

월간 가든인 7월호

July 2014 Monthly **Gardenin**

GARDEN DESIGNER

초화류의 혼식
실내정원의 기본기술

SECRET GARDEN

강릉 자수원
후식여행

FLOWER GARDEN

식물 '속' 보이네
정원사의 일기

GARDENIN KITCHEN

정원을 즐기는 방법
틈새를 활용한 미니상추텃밭



ISSN 2288-1719



9 772288 171000

10,000원

Gardenin Information

호주실습탐방기(1), Garden & Movie, 가든인 Q&A, Book & Flower Festival

공간을 꽃으로 디자인하다.

코리아 총 상금 3,000만원

플라워디자인

콘테스트

KOREA FLOWER DESIGN CONTEST

- 참가자격 제한없음 (개인 또는 단체)
- 작품유형 꽃을 이용한 공간디자인 (주제 제한 없음)
- 작품크기 가로*세로*높이 (3m×3m×3m) 이상 크기제한 없음
- 심사위원구성 화훼부분, 조경원예부분, 디자인부분, 미술부분, 철학부분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busanflower.co.kr>
문의전화 051-850-9962,3

주최 _ **LetsRun** PARK 부산경남 (구 부산경남 경마공원) 주관 _ (사)부산플라워클러스터, **우리나라이**
전화문의 / 051) 850 - 9962~3 (코리아플라워디자인콘테스트 사무국)

2014
09.26 (금) ~ 10.05 (일)

제7회 전국 초·중·고교 화훼창작 경진대회 (부대행사)

- 주최주관 부산광역시, (사)부산플라워클러스터
- 일시 2014.9.27 (토)
- 신청서다운&접수 Daum카페 cafe.daum.net/kfpca
- E-mail zz3787@hanmail.net (매일접수)

Cover Story

꽃들이 즐비하게 나열 되어 있어 마치 꽃밭을 걷는 듯한 느낌.
육묘장에서 육묘장이 아닌 꽃밭의 느낌을 이끄는
꽃들과 아늑한이슬 나뭇잎, 4월~11월 서리전까지
전경이 아름다워 심심한 꽃을 만나보는 정원
코레우스 버티실라타(핑크색)이 전경에 깊숙이 감춰져 있다.
이런 초여름 더위의 방문으로 경정을 이끄는
코스모스와도, 국화화도 유사한 꽃잎 모양을 가진
이 꽃의 학명은 *Coreopsis Verticillata*.

그 꽃 코레우스 품종은 우리에게 볼품없던 귀한 꽃,
코레우스(*Coreopsis* + *Urseed* = *Coreuri*)?
국내시장에 명명, "품종독립"이라는 슬로건아래 개발한 연구품종으로
세계 유명 수퍼마켓 체인에서 거브론을 받으며,
상품 선택의 선호도로 높은 평가를 받아
연구원과 육묘가의 co-work에 최고의 걸작을 이룬 상품이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이 는 다년생초로서 품종 품이 아름답고,
장기간(6개월간) 개화함으로 꽃과 함께하는
동거동락의 시간이 길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자, 이제 5대약 6대약 코레우스와 함께 향수를 즐기,
한국의 위상을 해외시장에서 고양시킬 획득하고,
국내시장에도 수급자와 개인의 경험에 선을 보이고 있다.
7월을 커버는 코레우스 "미리" 신묘종을 선보이게 되었다.

Contents

Garden Design

Colour in the Garden

Secret Garden

Kitchen Garden

Flower Garden

Garden Design

- 3 cover story
- 6 발행인의 글 너를 사랑해온 것이
- 8 손관화 교수의 정원구성 초화류의 혼식
- 12 공간디자인 2 정원의 공간배치와 디자인하기
- 18 윤평섭 교수의 가든 이야기
서울시 신청사의 벽면녹화는 이렇게
- 22 실내정원의 기본기술 Ⅲ
실내 광도에 따른 식물 배치 방법

Secret Garden

- 28 휴식여행 제주도 사라니숲길 그리고 비자림을 걷다
- 32 Colour in the Garden
- 36 민들레 야생화 김정희씨의 야생화 분경
- 40 금강이와 초롱이의 菟愛源 자수원
- 44 Gardener's Diary - 정원사의 일기
- 48 푸르미와 산귀래 별서 식물원 탐방

Flower Garden

- 52 박공영과 함께하는 정원식물의 '속' 훑쳐보기
봄맞이 속, 바람 속, 당귀 속
- 56 춘란 알고보니 중국산?
이제부터는 향기나는 춘란 아리울
- 58 한여름 큰 꽃과 향기로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꽃
백 합
- 60 여름철을 장식하는 귀족적인 꽃 야생나리
- 62 다육 식물 취미 재배를 위한 환경
함께하는 다육이~

Gardenin Kitchen

- 66 정원은 문화에서 시작된다. 정원을 즐기는 방법
'나도 디자이너네'~ 소품을 디자인해 보자.
- 70 틈새 공간을 활용한 미니텃밭
텃밭관리 2년차 실용적인 상추텃밭 가꾸기
- 72 안완식박사의 도시농업
여름날 무더위를 식혀주는오이냉국
- 76 가든디자이너 우정아의 DIY 가든
낡은 쟁반과 솥을 활용한 가드닝
- 78 차병진 수목재단센터장의 으뜸교육
정마철 식물의 건강관리
- 80 초보 도시농부의 텃밭가꾸기
옥상 텃밭 만들기까지
- 82 2014 식생활 교육박람회

Gardenin Information

- 86 Detox Fruits 6
- 90 강동구 성내동 강풀만화거리
평온한 꽃길을 걷는 듯
- 93 국제산림워크캠프
- 96 호주 실습 탐방기(1)
- 100 유훈수 소장의 Q&A
- 102 Garden & Movie High School Musical 3, Beastly
- 104 Book & Flower Festival
- 110 함께라서 가까워서 좋다 경기도권 수목원

너를 사랑해온 것이

시인 김영채 (2014.06.12.)

내 너를 사랑해온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였는지
네가 내곁에 있을 때 미처 몰랐구나

내 너를 사랑해온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너와 함께 마주할 때는 알지 못 했구나

그런데 지금
두견새 피울음짓는 새벽
네가 내 곁에서 멀어져간 그리움에

《너를 사랑해온 것이》 김영채
시인 김영채는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원간 기독인 발행인이다.

이렇게 흘러 내리는 눈물이
비통의 이 작은 가슴을 적셔
네 잠든 영혼의 바닷물이 되는구나

이제야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이
얼마나 부족했던가 되뇌어보지만
칠흙의 어둠보다 무거운 죄압을

뉘우쳐 무엇하랴
후회한들 무엇하랴
피눈물 가슴채워 무엇하랴

이제는 오직 너만을 위해
저 평온의 여름 숲처럼 융성한
네 영혼의 행복을 위해 기도할뿐이구나

초화류의 혼식

독일 2011 EUGA - 아이리시스, 백일홍, 코스모스, 코레옵시스, 맨드라미 등

손관화교수

천인연암대학 화훼디자인계열(가드닝 전공+플로리스트리 전공)
http://sohn.yonam.ac.kr



프랑스 - Verbena bonariensis와 Pennisetum villosum, 가우라, 살비아 등

정원에서 초화류는 꽃피는 식물의 중심이 되어 초화류의 꽃은 색을 의미한다. 그러나 색만으로 단순하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형태와 질감, 그리고 초장이 다른 식물로 변화를 준다. 초화류는 같은 종류의 꽃을 가득 모아 군식하면서 이웃에 다른 종류의 꽃들도 군식하여 식재한다. 이런 방식으로 만든 꽃밭은 충분히 아름답지만, 단순한 꽃의 형태를 가진 튤립이나 아이리스 등을 같은 종류로만 모아 심으면 심심한 느낌이 든다. 이럴 경우 튤립이나 아이리스와 잘 어울리는 형태나 초장, 개화기, 색을 가진 꽃을 사이 사이 혼합해 심어 주면 전혀 다른 느낌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색도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 출근길에 매번 봄이면 시골집 담 옆에 키 작은 노랑 아이리



영국 - 니켈라 등

“ 아이리스 사이사이의 썸바귀는 잡초처럼 아무렇게나 피어있을 때와 전혀 다른 느낌을 주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었다. ”



영국 - 포피, 수레국화 등

스와 썸바귀가 혼합되어 꽃피는 것을 본다. 아이리스 사이사이의 썸바귀는 잡초처럼 아무렇게나 피어있을 때와 전혀 다른 느낌을 주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었다. 봄에 한택식물원을 갈 때면 분홍 얼레지와 연파랑 현호색이 같은 공간에서 아름다운 색과 형태를 보여주고 파랑 무스카리와 노랑 산괴불주머니는 강한 대비색을 보여 준다. 아침 고요수목원에 튤립 사이사이로 다양한 색의 네메시스가, 그리고 무스카리와 꽃잔디가 혼식되어 맛있는 화색을 더욱 화려하게 대비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꽃밭에 초화류를 혼식할 때는 초장, 형태, 색, 질감과 같은 시각적 특성과 광, 온도, 수분, 토양과 관련된 생육특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식물에서 방출되는 화학물질이 이웃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여 같은 공간에 여러 식물을 같이 심으면 생육이 좋지 않은 식물의 타감작용(他感作用, allelopathy)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다년초일 경우 같은 공간에 여러 식물이 뿌리를 묻고 있기 때문에 점유하는 토양층의 깊이가 같을 경우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화류의 혼식을 위해 시각적인 모습만으로는 식물을 선정하기 어렵다. 국내에는 이러한 자료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경험에 많은 몇몇 가드너들에게만 축적된 노하우이므로 초화류 혼식을 위해 이러한 자료들이 많이 알려져야 할 것 같다.

외국에는 정원을 비롯한 다양한 용도의 공간을 위한 혼합



독일 2011 BUGA - 매리골드, 코스모스, 실비아 등

종자(Seed Mixtures)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많다. 대체로 정원용 꽃(garden flower), 야생화(wildflower), 자생 그래스류(native grass)로 나누어져 있는데 미국과 같이 넓은 나라에서는 각 지역의 기후에 맞는 꽃들로 혼합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초장을 가진 꽃들만 포함시키기도 하고, 습지식물로만 혼합되어 있는 것도 있다. 또 일년초만 혼합한 것도 있고 다년초만 혼합한 것도 있다.

국내에서 혼합종자는 법면 녹화용 잔디나 그래스류를 중심으로 혼합된 종자가 가장 많으나 초화류를 중심으로 혼합한 종자를 판매하는 업체도 몇군데 찾아볼 수 있다. 고속도로 절개지나 비탈면의 식생녹화를 위한 식물배합시 수레국화나 사스타데이지, 코레옵시스와 같은 꽃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꽃’에서는 혼합종자 우리법면 3호(Mixture seed 'URI 3')와 4호(Mixture seed 'URI 4')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고, 색이 다른 혼합 서양톱풀(Achillea millefolium 'Colorado' Mixture)이나 페스티발 스카이(Mixture seed 'Festival Sky'),

페스티발 스프링(Mixture seed 'Festival Spring')과 같이 외국에서 수입한 혼합종자를 판매하면서 다양한 공간을 단기간에 화려한 혼합꽃들로 물들이는 작업도 해주고 있다. 인터넷에서 경관용으로 꽃양귀비를 포함한 혼합종자를 판매하는 몇몇 업체도 찾아볼 수 있다.

몇 년 전 평택 공설운동장 둘레 경사지에 혼합종자를 살포하였다. 첫 해 빨강 포피와 파랑 수레국화, 노랑 코레옵시스 등이 민발하여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가뭄시 관수가 불가능하였고 장마기엔 잡초에 묻혔고 그 다음해엔 건조에 강한 코레옵시스와 양귀비가 드문드문 남아 있었는데 또 그 다음해엔 제초작업시 모두 없어져 버렸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영국 왕립원예협회(RHS)에서 출판한 식물조합 백과사전(Encyclopedia of Planting Combinations)에 보면 식물마다 완벽한 파트너(perfect partners)라면서 같이 심을 수 있는 식물을 추천하고 있으니 초화류 혼식을 위해 당분간 이 책을 참고하거나 식물원이나 여러 정원들을 방문할 때마다 어떤 식물들이 혼식되어 있는지 관찰하고 또 혼합종자에 포함된 식물들을 체크해 보면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한택식물원 - 4월 알레지와 현호색

영국 - 일리움, 에린지움, 실비아 등



한택식물원 - 5월 무스카리와 산피블주머니



한택식물원 - 튜립과 꽃잔디



정원의 공간 배치와 디자인

지난 1회에 이어 정원디자인을 위해 내가 만드는 정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정원 부지의 조사, 분석 작업에 관한 정리를 독자들에게 나누며, 정원을 디자인하는 작업에서 먼저 정원에 요소들을 부지의 위치에 배치할 과 위치에 맞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하는 공간 작업 후 공간에 맞는 선으로 공간을 분할하고 조정하는 공간 디자인을 준비한다.

정원 디자인 안에 공간을 나누며 계획하는 작업은 가장 중요하지만 초보자에게는 가장 막연한 작업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백지 위에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 구상하는 가장 기초적인 스케치 작업과 같아서 정원이라는 작품에 달린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사용하기에 편리한 정원, 유지 고나리가 용이한 정원은 물론이고 정원의 스타일과 분위기, 주제의 아름다움이 천천히 들어나는 기초적인 작업이다

정원 공간 배치하기

정원부지에 원하는 정원의 리스트를 체크하며 개략적인 위치를 정하며, 도면에 개략적으로 메모를 적어 넣는데 이를 Bubble Plan 또는 zoning plan이라 부른다. 정원공간의 조사, 분석 자료 정리를 위해 만들기 원하는 정원의 기획 리스트를 옆에 준비하여, 도면 위에 덮고 원하는 요소를 정 위치의장소를 적어 넣으면서 하나하나 배치해 나간다.

이 단계에서는 정확한 크기는 필요 없지만 필수 요소의 공간확보는 대략적인 크기설정 확보 후 전체적인 면적의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예) 파티오 공간의 크기를 너무 작거나 크게 배치하여 공간을 효율적 사용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공간 위치는 기능과 환경요건을 고려하며, 모양이나 형태를 너무 추구하다 보면 불편한 정원이 되기 쉬운데 각 구역의 효율적 배치기능을 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공간 배치의 연계 이용도는 이웃 공간과의 조화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파티오는 부엌과 가 곳에 있어서 사용하기에 동선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용하다. 채소밭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배치하고 쉼터나 벤치의 위치를 정할 때에도 그늘이 필요한지, 아님 따스한 햇살이 그리는 곳에 돌기 기후에 따라 위치를 정하며, 크기와 모양을 다양하게 하여야 공간의 동선이 즐겁고, 활기찬 정원을 만들 수 있다.

동선을 원활하지 않게 만들어 놓으면 원하지 않는 곳에 길이 생겨서



임 춘 화 (유아이디얼가든 대표)

정원의 전체 디자인을 망치는 경우가 생긴다. 수공간의 스타일이나 위치도 기능과 용도에 맞게 신중하게 위치를 정한다. 그 외 정원 장식품을 배치시 중요한 전망포인트에서 그림의 액자처럼 프레임을 정하여 배치하면 멋진 정원의 포인트 공간 연출로 이어지며, 너무 많은 소재의 연출은 정원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다.

정원 배치하기의 순서

- ① 정원 공간의 도면 드로잉 보드준비
- ② 부지 도면을 드로잉보드에 붙이고 위에 새 트레이싱지를 붙인다.
- ③ 부지의 경계와 집, 철거되지 않은 사설물들을 그려 넣는다.
- ④ 부지를 조사 분석한 자료를 옆에 비치해 둔다.
- ⑤ 기를 원하는 정원의 희망 리스트를 준비한다.
- ⑥ 리스트에 있는 요소들을 배치하고 반드시 무엇인지 적어 넣는다.
- ⑦ 리스트를 꼼꼼히 배치하고 배치한 것은 x표를 해가며 체크한다.
- ⑧ 리스트를 체크하면서 빠진 것이 없는지 검토한다.
- ⑨ 스케일 자료 대략적인 크기를 재면서 크기에 맞게 배치한다.(등선표시)
- ⑩ 식재 구역은 구역 정도만 표시한다.(mixed border, ground cover, screening, hedge, tall shrub, herbs, vegetable plot 등)
- ⑪ 여러 개의 레이아웃을 만든 후 아이디어를 통합하거나 선택한다.
- ⑫ 부지의 구역의 높낮이나 자재를 대략적으로 정한다
- ⑬ 각 코너의 디테일이 필요하면 별도의 종이에 적는다.

중심선의 종류에 따른 정원의 공간 디자인하기

정원의 기능과 환경, 스타일 결정 후, 정원배치는 구체적으로 공간을 분할하는 선과 패턴의 구성요소로 결정한다. 정원공간 디자인에 있어서 선과 패턴은 분위기와 운동성, 공간의 개성을 나타내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직선의 사각형, 원, 곡선을 기본으로 하여 모양과 패턴을 만들고 반복하고 조합하여 공간과 정원의 형태나 스타일을 표현한다..

초보자는 디자인 할 공간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시작할 지 막연하게 느껴지나, 먼저 정원 부지와 주택의 위치를 고려하여 어느 중심점에서 선을 시작할 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주택의 한 모퉁이 점에서 시작하든지, 거실의 창문의 시작점이 되든지

결정하여 선을 창조해간다. 한가지 유용한 팁은 모노종이처럼 일정한 간격의 선을 격자로 그어 빗금을 치며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또 현관의 폭이나, 거실 창문의 폭과 같은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모양을 만들 수도 있다.

정원의 잔디공간, 수공간, 화단등 공간은 선으로 분할 되는데 어떠한 선으로 공간을 분할 하느냐에 따라 스타일이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다. 어떤 선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원을 스타일에 맞는 정원을 디자인하기도 하고, 역동성 있는 정원을 만들어 내기도 하며, 안정된 느낌을 줄 수도 있으며, 길어 보이게도 하고, 넓어 보이게도 할 수 있는 마법을 부리기도 한다.

속초 설악문화센터 정원



직선(Square)의 디자인과 실례

초보자가 디자인하기 쉽고 건축물과의 조화가 비교적 쉬워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디자인이며 크고 작은 정원에 모두 무난하게 사용된다. 가장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정형화되고 인공적인 느낌의 정원이어서 모던 디자인에 많이 사용된다.

선의 조합은 중심점, 선, 대칭축 그리고 사선을 응용하고 조합하여 패턴과 모양을 만든다. 사각형의 한 선을 연장하여 다른 사각형과 연결하고 작은 사각형으로 나누기도 하고 직사각형의 형태로 만들기도 하여 패턴을 만든다. 즉,

사각형의 꼭지점이나 1/2지점 또는 중심을 지나는 지점 또는 한 변에서 뻗어 나와 다른 선과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같은 사각형의 선을 조합할 때는 비교적 쉬우나 원이나 곡선과 조합할 때는 뾰족한 예각의 공간이 생기거나 리듬감이 없거나 선의 한 구성요소의 포인트가 아닌 곳에서 임의대로 겹치게 하면 논리적인 공간 연결이 안되고 아름답지 않은 공간이 만들어 지고 만다. 이 점은 원이나 곡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인천 대공원 꽃전시장

그린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쪽은 간결한 모던가든을 만들고 다른 한쪽은 질서 정연하고 화사한 패턴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포물가든을 디자인하였다.

원(Circle)의 디자인과 실례

원을 이용한 디자인은 아주 강렬한 느낌을 준다. 또한 인공적인 느낌을 주며 모던하고 강렬하고 단순, 간결한 분위기의 정원을 창조한다. 그래서 원을 정원에 사용했을 경우 포인트 장소로서 시선을 붙잡아 두는 중심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작은 정원에 사용했을 경우에도 모던한 디자인의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원을 이용할 때에는 반원이나 부채꼴 또는 다양한 크기의 원을 조합하여 흥미로운 연출을 할 수 있다.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원이 음양의 상징을

나타내는 심볼로 사용되기도 한다.

원의 경우에 연결 시 아주 주의해야만 예약의 뾰족한 부위가 생기거나 둔각의 애매한 부분이 생기게 하여 디자인이 간결함을 잃게 해서는 안되며 원과 직선을 연결할 때 만나는 부분에서 직각에 가깝게 연결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원은 중심점, 원주, 지름, 반지름, 접선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포인트에서 연결하거나 겹치고 또는 확장하면 논리적이고 다이내믹하며 역동성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코리아 가든쇼 2014 화계비원

세 개의 원을 겹치게 디자인하고 각 부분을 높낮이를 다르게 하여 작은 정원이지만 효율적이고 드라마틱하게 공간을 구성하였다.



일산 마두동 주택 정원



일산 마두동 주택 정원

원형의 화랑목 경계를 두르고 사계절 화려한 화단을 만들어 화사함과 단정함을 모두 추구한 실용적인 정원으로 디자인하였다. 넓은 잔디밭과 화려한 화단, 단정한 장미원을 공유하고 싶은 정원주의 요구에 따라 원형의 잔디마당을 만들고 주변으로 화사한 화단을 두었으며 작은 원과 큰 원을 변형하고 연결하여 작은 심터와 정미원을 하나의 정원 안에 모두 담게 디자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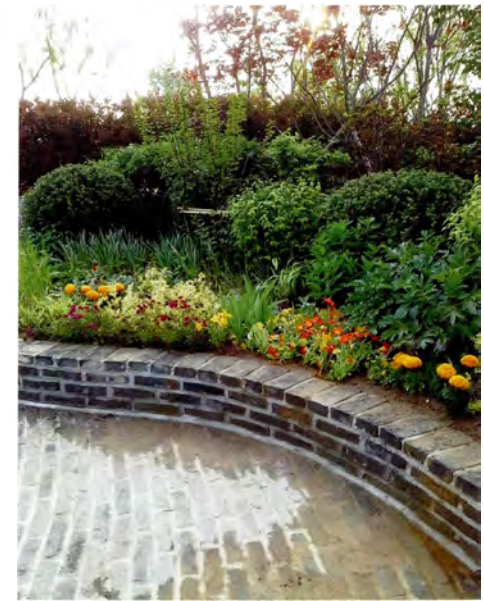
곡선(Curve)의 디자인과 실례

자연스러운 곡선을 이용한 디자인은 자연스러운 비정형화된 정원에 이용되며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선호하는 스타일이다. 곡선을 이용할 때는 너무 많은 곡선의 커브를 두지 않고 커브를 크고 대담하게 만들면 자연스러우나 대담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 작작 소심한 커브가 반복되면 복잡하며 조잡하게 된다.잉글리쉬 코티지 가든이나 큰 규모의 큰 규모의 풍경식 정원을 디자인 할 때 곡선을 많이 사용한다.동양의 정원이나 한국의 전통 정원에 여기에 속한다.

2012 경기정원문화 박람회 순천시 정원



강과 해안선의 유려한 곡선, 신의 따스한 능선을 표현하기 위해 자칫 조잡해 지기 쉬운 곡선 디자인의 첫점을 피하기 위해 대담하고 고 커다란 커브가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다랭이논의 아름다움을 모티브로 하여 화단의 선과 바닥재의 포장 패턴, 계류의 선도 대담하고 힘있는 곡선을 이용하여 디자인하고 하였다

순천 정원박람회 SK정원

맺음말

공간을 나누는 기본적인 선과 패턴은 결국은 화단이나 잔디, 길, 연못과 같은 공간의 영역으로 나누어 지고 정원의 분위기 나 스타일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선과 패턴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정원의 스타일과 분위기가 달라진다.또한 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공간이 넓어 보이기도 하고 좁아 보이기도 하며, 길어 보이기도 한다. 좁은 정원이라면 넓어 보이게 디자인하고, 좁고 긴 부지라면 넓고 너무 길어 보이지 않게 하여 편안하고 실용적이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간 분할 시 중요한 점은 물론 모양과 패턴의 창조 작업 과정에서 디자인의 기본 원칙인 통일성, 조화, 균형 그리고 공간의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공간의 이상적인 분할과 아이디어의 실현의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것이 디자인의 핵심이다.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두르지 않고 편안하게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를 실험해 보면 만족한 디자인에 도달할 것이다.

서울시 신청사 벽면녹화는 이렇게



윤평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서울시 벽면 녹화를 실시하기 위해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T/F팀을 구성하여 외부전문가 6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총 10명이 수차례 걸쳐 회의하고 토론했으며 의견을 수렴하고 실시되었다.

서울시청사 벽면에 벽면 녹화를 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이자 우리의 높은 위상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한국의 자랑거리로 원예업계의 업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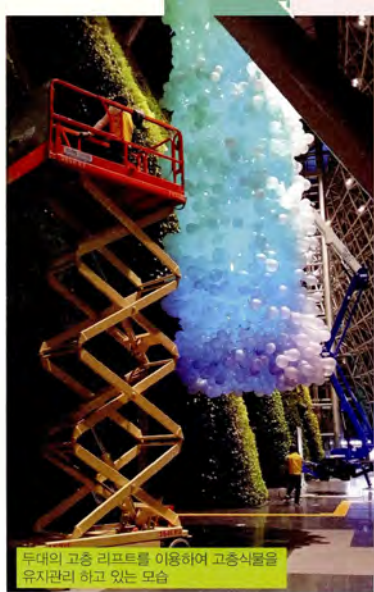
먼저 시청사의 벽면 녹화(green wall)를 조성

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중 최저, 최고 온도 조사와 일조시간과 투광량을 조사하였고 이에 적절한 시설물과 관수시설, 식물들이 어떤 식물이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 검토하였으며 식생기반시설과 시공방법에 이르기 까지 식물 식생을 위해서 식생틀을 여러 가지로 샘플을 만들어 놓고 식생하여 생육상태를 모니터링하였다.

또한 일본의 벽면 녹화와 국내의 벽면녹화 사례를 분야별로 조사하였고 총규모가 높이가 28m로 1층부터 7층까지 전면과 측면에 식재되었다. 식물의 선정은 14종이 선택되었고

약 10만본이 식재 되었다. 14종이 선정되었지만 이들 중에서 또 몇 종류를 선정하여 식재하기로 하였다.

이에 기대효과로는 음이온 배출과 산소배출로 공기정화효과를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며 실내오염물질로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 이산화질소, 벤젠이나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하이드 등과 같은 유해물질을 해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며 미세먼지와 온도 등 미기후 조절과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순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다.



두대의 고층 리프트를 이용하여 고층식물을 유지관리 하고 있는 모습



고층까지 녹화된 벽면전경



두대의 고층 리프트를 이용하여 고층식물을 유지관리 하고 있는 모습

심층부에 화분형에 식재된 스킨답서스

식생틀은 배양토 용기를 높이가 135mm, 폭을 135mm로 하고 길이는 1m로 반원형으로 길게 형틀을 플라스틱제로 만들고 색상은 어두운 녹색으로 하여 소방법에 저촉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방화제를 처리하였다. 맨 상층부에는 화분형으로 배양토를 담고 스킨답서스를 식재하여 늘어트리는 것으로 하였다.



식물을 식재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배양토이다. 배양토로는 식물이 필요로 하는 필수 요소가 인공용으로 만든 장기간을 유지하는 데에 부족하므로 자연토를 10% 정도 혼합하여 사용키로 하였다.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는 관수시설 설비구역을 6개 구역으로 분리하였고 방재와 시비계획 등 유지관리에도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관수시설을 6개 구역으로 분리하여 관수시설을 한 것은 병발생시 구획별로 차단하기 위해 계획 실행되었다.



벽에서 들여다 본 벽면녹화 전경



Spathiphyllum wallisii 알리스파티필름



Ardisia pusilla 산호수



Ardisia pusilla Variegata 무늬산호수



Chamaedorea elegans 테이블아자



Epipremnum aureum Lime 스킨답서스 라임



Epipremnum aureum Marble 스킨답서스 마블



Epipremnum aureum N Joy 스킨답서스 엔 조이



Hoya carnosa Variegata 무늬호양



Epipremnum aureum 스킨답서스



Hedera helix 잉글리쉬아이비



Philodendron Lemon Lime 필로덴드론 레몬 라임

식물의 선택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선정하였다.

신선한 녹색이 나는 것과 노랑색이나 붉은색이 나는 잎색을 가진 식물로 밝은 색이 나는 것, 잎이 큰 것 보다는 잎이 작고 부드러운 것, 내음성인 것, 예코플라자환경에 생육이 적합한 식물로 실내오염물질 제거 및 음이온 발생 등 공기정화기능이 탁월한 식물이며 병충해 및 공해에 강한 식물, 식재디자인에 색상을 가진 식물, 오래 동안 생장지속이 가능한 식물을 선정하였다.

서울시 선정사에 식재한 식물 종류

스킨답서스(*Epipremnum aureum*)와 스킨답서스 '라임'(*Epipremnum aureum 'Lime'*), 스킨답서스 '마블'(*Epipremnum aureum 'Marble'*), 왕모람(*Ficus pumila*), 스파티필름(*Spathiphyllum wallisii*), 옥스카르디움(*Philodendron hederaceum var. oxycardium*), 아글라오네마 '크리스티나'(*Aglaonema 'Christina'*), 씨서스 엘렌다니카(*Cissus 'Elen Danica'*), 테이블아자(*Chamaedorea elegans*), 산호수와 무늬산호수(*Ardisia pusilla*, *Ardisia pusilla 'Variegata'*), 잉글리쉬아이비(*Hedera helix cv.*), 호아(*Hoya carnosa cv.*), 드라세나 콧세피아나(*Dracaena surculosa*), 레몬라임(*Philodendron 'Lemon Lime'*)

측면에서 바라본 벽면녹화 전경



식물유지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7층 높이까지 떡잎을 따 주기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고층작업차를 구입할 것과 중앙제어시스템구축을 하여 관리자가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물은 실내조건에서는 환경조건상 1~2년에 한번씩 10~20%를 갈아주어야 하므로 이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현재는 벽면녹화의 최대면적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측면에 시선으로 모자이크한 벽면녹화



고층의 벽면녹화 모습

실내정원의 기본기술 III

실내 광도에 따른
식물 배치 방법

글/사진 정순진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 농업연구사

광 환경은 실내 식물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충분한 빛이 없다면 광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들어진 영양분은 호흡으로 소비만 될 것이고, 마침내 식물은 죽게 된다. 우리는 실내라는 공간에서 식물을 어떻게 키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 실내식물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maintenance)할 것인지, 좀 더 크게 자라게(growth) 할 것인지에 따라 식물마다 필요로 하는 광 요구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실내 식물을 커다랗게 키우기보다는 현재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면서 감상기간

[몇 가지 실내식물의 유지와 자람을 위해 추천되는 빛의 세기(형광등 기준, 하루 16시간)]

테이블야자(*Chamaedorea elegans*)
유지(Lux) 540~810 , 생장 (Lux) 810~1,080

점란(*Chlorophytum comosum*)
유지(Lux) 1,080~2,160 , 생장 (Lux) 2,160~4,320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고자 할 때 먼저 식물의 실내 환경 적응 여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온도, 습도 등의 환경은 실내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간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제어되고 있지만, 광도(빛의 세기)는 인위적 조절에 한계를 갖기 때문에 실내 낮은 광도에서의 적응성 여부는 식물의 실내 도입 시 가장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보통 광도는 창문을 기준으로 실내 2m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면 광도의 수준은 80% 정도 감소한다. 이번 호에서는 실내 공간 깊이에 따른 광 환경의 특성과 식물의 광 요구 특성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배치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을 늘리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아래 에서 보는 것처럼 식물의 종류에 따라 요구하는 광도 수준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실내 관엽식물의 유지를 위한 광도 수준은 표 2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낮은 광도를 요구하는 식물의 유지를 위한 최저광도는 태양광은 130 Lux, 인공광은 270 Lux 수준으로 같은 밝기라면 태양광이 인공광보다 식물에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실내식물의 경우, 생장을 위한 광도 수준은 유지를 위한 광도 수준의 최소한 50%의 광도가 더해진 수준이다

[표 2. 광원의 종류와 광도 수준에 따른 식물이 요구하는 최저광도와 선호 광도]

광원	광도 수준	유지 (Lux)	생장 (Lux)
자연광	낮음	130	380~1,080
	중간	380	1,080~2,700
	높음	1,080	2,700
	매우 높음	5,400	>5,400
인공광	낮음	270	810~1,080
	중간	810~1,080	2,160~5,400
	높음	2,160	5,400
	매우 높음	10,760	>10,760

(Calhey and Campbell, 1981)

실내 광 수준에 따라 알맞은 식물을 선택하기 위해 보통 직사광, 반그늘, 그늘로 실내공간의 광 수준을 분류한다. 참 기준이 모호하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창을 기준으로 하여 실내 깊이에 따라 5수준(직사광, 직사광 없는 밝은 광, 반그늘, 그늘, 빛이 거의 없음)으로 분류하여 실내 위치별 알맞은 식물을 추천하면 다음과 같다.

측정위치	남향 (Lux)	동향 (Lux)
A 발코니 창측 (실내깊이 0.0m)	3,300	4,400
B 발코니 내측 (실내깊이 1.6m)	530	900
C 거실 (실내깊이 5.0m)	130	80
D 그늘 (가장 구석진 곳)	40	30
E 빛이 거의 없음 (필요할 때 인공광)	2~3	2~3

* 5월부터 12월까지 주간 07~19시 평균 광도를 조사함 ('08 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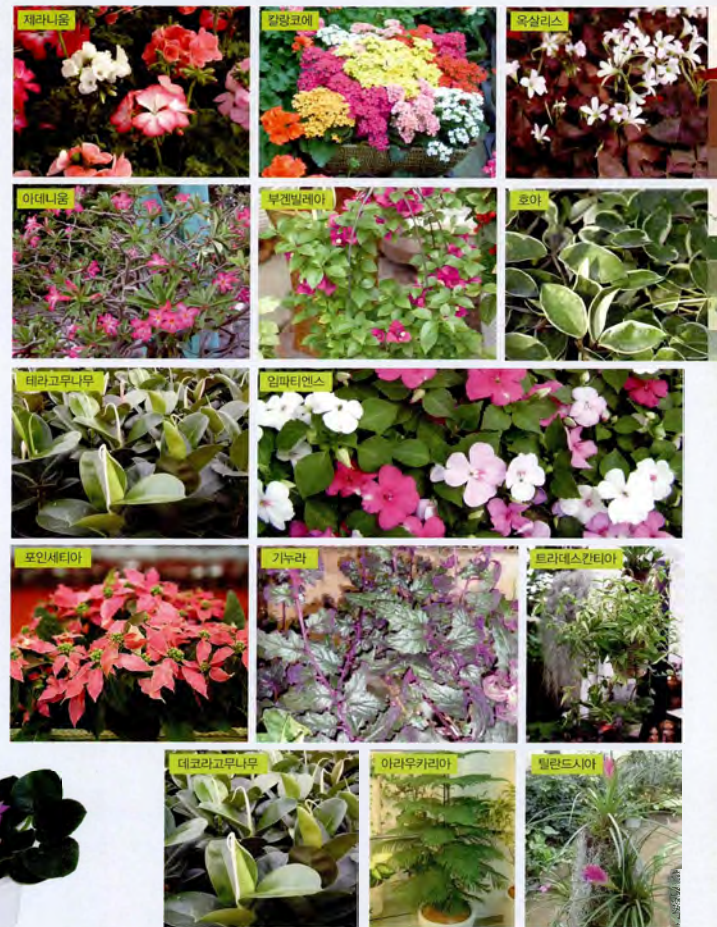
1) 직사광

가) 직접적인 직사광

남향의 창가로부터 약 0.6m 내의 거리에 있으며 실내 공간 중 최대의 광을 받는 지역이다. 특히 여름철 남향 창가에서 직사광을 견딜 수 있는 식물은 얼마 되지 않으나 여름철 한낮 동안의 햇빛을 차광시켜주면 더 넓은 범위의 식물들도 자랄 수 있다. 만약 직사광이 필요한 식물이라면, 남쪽을 향한 창문 근처에 거의 온종일 놓아두어도 좋다. 동쪽이나 북쪽을 향한 창문에 놓아도 직사광을 받을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짧으므로 대부분 실내식물은 서쪽이나 동쪽을 향한 창문 근처에 배치하는 것이 적당하다.

나) 부분적인 직사광

낮 동안에 일정량의 태양광이 일에 비치는 밝은 지역으로, 동쪽이나 서쪽을 향하는 창가에서 약 0.6m 이상 떨어진 곳과 부분적으로 차광이 된 서향 창가가 해당한다. 꽃이 피는 식물의 상당수와 특정 관엽식물에서 가장 이상적인 장소다.



2) 직사광 없는 밝은 광

직사광에 의해 비치는 지역 바로 근처로, 하루 동안 부분적으로 태양광을 받는 창가 주변으로부터 약 1.5m 떨어진 곳이 해당된다. 실내 관엽식물은 직사광선이 아닌 밝은 빛을 요구한다. 다양한 색깔의 잎을 갖는 식물들은 전체가 녹색인 식물보다 더 밝은 광이 필요하다.



안수리움



관엽배고니아



디펜바키아



파페로피아



스파클 필름



벤자민고무나무



아나나스



보스톤고사리

3) 반그늘

태양이 비치는 창가로부터 약 1.5~2.5m 떨어지거나 태양이 비치지 않는 창가에 가까운 지역, 적당한 빛이 있는 지역으로 직사광의 1/4 정도 수준이다. 국소수의 꽃 피는 식물들이 이곳에서 자랄 수 있고, 대부분의 관엽식물은 잘 자랄 수 있다.



드래세나 미치나리



망초이나루



형문죽



식물레리 홍관



푸틸라고무나무



산호수



스킨십서스



개문죽



팻츠레데라

5) 빛이 거의 없음

모든 실내식물에 부적합한 조건이다. 자연 채광이 전혀 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인공광이 켜지는 장소와 같이 실제 식물이 받을 수 있는 빛이 거의 없어 식물이 살아남기 어려운 장소다. 만약 이곳에 식물을 놓고 기르려면 인공광을 이용하여 빛을 공급해주어야 하고, 인공광이 주여지지 않는다면 식물은 일정 기간 이용하는 일회성 소모품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 자연광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1) 흰색 또는 크림색의 벽과 천장

흰색 또는 크림색의 벽과 천장은 빛이 잘 들지 않는 공간에서 빛의 반사를 일으켜 식물생육에 도움이 된다. 실내에서 자라는 식물의 흰색 배경은 줄기가 창문 쪽으로 향해 구부러지는 현상을 줄여준다.

2) 화분 돌려주기

창가에 두는 식물의 잎과 줄기는 유리창 쪽으로 휘어진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장을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화분을 매시간 조금씩 돌려주어야 한다.

3) 겨울철 화분과 유리창의 관리

겨울이 오면, 가능한 식물들을 창가 가까이 두어야 한다. 잎에 쏘여지는 일조시간을 늘려준다. 그리고 겨울철 유리창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빛이 잘 들 수 있게 한다 (먼지를 제거하는 것은 빛의 세기를 10%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

4) 순화

식물을 빛이 없는 공간이나 그늘에 있던 식물을 갑작스럽게 직사광선이 비치는 창가 쪽으로 옮기면 안 된다. 옮기고자 할 때는 며칠을 두고 조금씩 더 밝은 장소로 이동시켜주는 순화과정이 필요하다.



아글라오네마



도깨비고비



필로덴드론 옥시카르디움



신세베리아

“국비지원”

V

조경가든특화과정 도시원예교육생 모집



- ▶ 주 최: 경기도
- ▶ 주 관:   경기농림진흥재단
- ▶ 교육기간: **2014년 8월 6일 ~ 10월 22일 / 총 3개월12주 강의**
매주 수요일 10:00~15:00 / 4시간 수업 (중식제공)
- ▶ 수강료: **8 만원**
기본 원예도구 제공 (장갑, 전정가위, 모종삽, 끈 등)
조경가이드북 및 교재 제공
- ▶ 수강혜택: 우리넷 1년 무료구독권
텃밭제공 (교육 기간 이후, 작기내 텃밭 작물 수확 계속 무료로 수확 가능)
교육수료증 증정
우리꽃 10% 구매 할인권 증정
- ▶ 접수기간: 교육시작일 전까지 선착순
- ▶ 접수방법: 전화, 이메일(gardenjoa777@naver.com)
- ▶ 전화접수 문의: 031-634-7990

알기 쉽게 실습을 함께 진행하는 조경가든특화과정 '도시원예 아카데미' 교육과정안내

교육의 특징

1.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건전한 취미원예생활을 독려하며,
2. 정원문화와 도시텃밭문화가 우리나라에 생활 속의 일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3. 일반 원예학의 지식 습득과 실생활에 반영할 수 있는 원예 기술의 활용 교육입니다.

실습교육의 특징

야생화정원가꾸기, 베란다정원만들기, 텃밭가꾸기, 잔디정원가꾸기 등 정원을 실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종자의 파종, 육묘, 식물의 재배와 병충해 방제, 화분의 이식, 분재의 전정 등 정원을 가꾸는데 필요한 연습과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간 관심두었던 원예학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가정에서 바로 알아야 할 원예생활의 즐거움과 깨달음을 보다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천그린아카데미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1. 귀농귀촌 교육의 최적화 농장

약 만3천평의 농장에 신설육묘장, 생산하우스 등 시설과 농업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700여종의 다양한 야생화를 직접 만지며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실습

정원관리, 텃밭관리, 잔디관리 / 트랙터, 관리기작동법 / 수목의 관리와 전정 / 실내정원 등의 다양한 실습을 진행합니다.





제주도 '사려니 숲길' 그리고 비자림을 걷다

작가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한 소설에 의하면
진정한 자아성찰과 휴식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단순히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것의 일부일 뿐, 진정한 휴식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누구와' 사랑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처럼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행위를 '어디에서'
행하는지도 중요하다. 이번 여름에는 진정한 자아성찰과,
행복을 제대로 만끽하기 위해 신념의 섬이라 불리는
제주도에서 먹고, 기도하고, 사랑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글, 사진 황주리 기자

양쪽으로 우거진 빈틈없는 사려니 숲길의 입구



천년의 숲, 비자림의 자갈길 입구

비자림 天然自生樹林群落

아무리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하더라도 제주도에서는 일단 자연과의 교감이 먹는 것 보다 먼저다.

제주 아무리 유명한 보말, 자연산전복, 흑돼지 그리고 천혜향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일단, 자연의 향 그윽한 비자림을 걷고 있노라면 배고픔도 잠시 멈출 정도로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채워주기 때문에 허기도 잠시 잊게 된다.

북제주군 구좌읍 평대리에 위치한 천연자생수림군락(天然自生樹林群落)인 비자림(樅子林)은 수령이 500~800년인 오래된 비자나무 2800여 그루가 하늘을 가리고 있는 매우 독특한 숲으로 제주도에 가장 처음 생긴 삼림욕장이며, 단일수종의 숲으로는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숲이다. 실제로 햇볕이 켜진 날 비자림 숲을 거닐고 있으면 하늘에 햇볕 한줄기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무가 우거져있다. 숲의 가장자리에는 비자나무의 할아버지로 불리는 "천년의 비자나무"가 우뚝 서 있는데, 이 비자나무의 키는 14m, 가슴높이둘레 6m, 수관폭 15m이며, 수령 820년 이상으로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진기한 비자나무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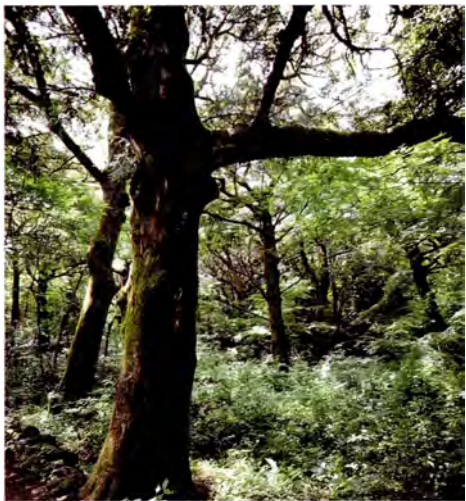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진기한 비자나무의 자태

주목과(朱木科)에 속하는 비자나무는 암수 판 그루이고 1년에 겨우 1.5센티미터 가량 자라 나이테가 없으며, 수령이 15~20년이 되어야 비로서 열매를 맺으며 한 해에 2개년의 열매가 맺혀 사시사철 열매를 볼 수 있다.

깊은 맛이 나는 비자나무의 이 열매는 식용과 회충약으로 쓰이고 제사상에 오르기도 한다. 게다가 상록수림이라 사시사철 언제 그 울창함을 느낄 수 있으며 비자림은 풍란, 콩짜개란, 흑난초, 비자란 등의 난초들이 자라고비자나무숲은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아 연중 푸르른 숲을 유지하고 있다. 녹음이 짙

은 비자나무 숲 속의 산림욕은 피톤치드로 알려진 물질이 흘러나와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정신적, 신체적 피로와 인체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자연건강의 치유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자나무 숲 속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두 가지 길이 나오는데 40여분이 걸리는 짧은 코스, 1시간 20여분이 걸리는 긴 코스가 있다. 비자림은 천연기념물 374호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되고 있다.

비자림은 온갖 개밭이 멈춘 것과 같은 착각 속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다. 도심에서는 흔히 듣지 못한 새소리와 마치 곁에 일렁이는 파도소리처럼 들리는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절로 시 한 소절을 읊게 되거나 홀로 마음속에 다짐을 하게 되기도 한다. 혹은,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순간을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기도 하게 된다.



신령스러운 '신역(神域)의 숲'

사려니 숲길은 제주시 봉개동 절물오름 나쪽을 지나 서귀포시 남원읍 사려니 오름까지 이어지는 약 15km의 숲길을 일컫는다. 숲길의 중간 지점부터 사려니오름까지는 사진에 신청해야 가볼 수 있지만 교래리~붉은오름 간 약 10km는 연중 개방하고 있다. 제주 올레길 코스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21곳의 올레길들 만큼이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게다가 비교적 완만하고 평탄한 지형덕에 유모차와 휠체어를 가지고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려니 숲길은 전형적인 온대산지로 자연림인 줄참나무, 서어나무가 우점해 있고 산딸나무, 매죽나무, 단풍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다. 산림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삼나무, 편백나무 등도 식재되어 있다.

도종환 시인은 <사려니 숲길>이라는 시에서 '신역으로 뻗어있는 사려니 숲길 같은'이라는 표현을 썼다. 제주도 말로 사려니(삼안이)의 '살'을 뜻하는데 이는 곧 신성한 곳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를 알고 나니 사려니 숲길을 걸으며 내가 거닐고 있는 이 숲길을 '신역'이라고 표현한 도종환 시인의 시구와 제법 어울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도심 속에서 뻐뻐하게 들어서 있는 빌딩들을 일컬어 '빌딩 숲'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서 숨막히게 살아온 내가 '진짜 숲'에 있다고 생각하니 걷고 있는 내 자신이, 아니 이 곳이 '꿈인지 생인지' 자꾸 탄성을 자아내며 걷게 된다.

사려니숲길의 삼나무는 마치 인위적으로 가로 세로 넓이 계산을 통해 심어놓은 것처럼 이쁘고 단정하게도 서있다. 너무도 뻐뻐해서 숲 속은 밤인지 낮인지 분간되지 않을 정도다. 1930년대 제주도가 별장계 열병이었을 때에 제주도민들이 일본에서 빠르게 자라는 삼나무를 들여와 이 일대에 심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곳 입구 주변의 삼나무들은 수령이 80년쯤으로 유난히 굵은 것이라고 한다. 과연 신의 땅이라 불리는 사려니 숲길은 소슬한 바람과 새들이 지직이는 소리와 화합을 이루어 자연의 음악소리를 들려줬다.

때마침 나타난 숲길 코스 이름은 다름아닌 '치유와 명상의 숲길'이었다. 이 숲길은 온통 키다리 삼나무들이 호위하고 있다. 해발고도 500~600m 정도로 높은 곳에 위치한 사려니 숲길의 이렇게도 큰 삼나무들이 거센 바람 속에서도 휘지 않고 곧게 자란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이곳, 사려니 숲길이야말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고, 자연과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신비의 섬'이라 불리는 제주도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사려니 숲길은 놀랍고, 고맙고, 아름다운, 마치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다.



COLOUR IN THE GARDEN

오도
폴무학교 생태농업 전문과정 교사

정원의 아름다움은 정원사의 손길과 정성 그리고 다양한 꽃과 나무의 어울림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 색깔(Colour)이 더해지면 정원은 한층 더 빛을 바르게 된다. 꽃을 좋아한다고 해서 온갖 색의 꽃을 화단에 섞어서 심게 되면 아름답다기 보다는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꽃이 어떤 색을 띠는지 그리고 어떤 색의 꽃과 더 잘 어울리는지 한번쯤 살펴보면 정원은 단정하면서도 우아하고 때로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마치 사람들이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을 때 옷의 색깔을 고민하듯, 정원에도 내가 좋아하는 색의 꽃을 고르고 맞춰 보면서 어울림의 색을 연출해 보자.

화사한 봄날엔 흰색과 분홍으로 화사함을 더하고, 더운 여름에는 흰색과 파랑으로 시원함을 부르고,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에는 식욕을 돋구는 빨강과 노랑, 추위로 옷을 입히자,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하얀 눈이 가진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식물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드러내 보는 건 어떨까.

정원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지만, 매일 다른 모습으로 설레임을 더해준다. 정원사의 손길이 꽃을 심고, 물을 땀고, 물을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제 파란 하늘과 초록의 나무 그리고 고통색의 흙 사이로 펼쳐지는 빨주노초파남보의 색깔에 눈을 돌려보자.



White

순결, 혹은 시작을 의미하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흰색. 흰색의 꽃들을 모아 심는 정원을 화이트가든(White Garden)이라고 부른다. 화이트가든을 대표하는 정원으로는 영국의 씨싱허스트가든(Sissinghurst Garden)이 있다. 흰색의 장미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흰색의 꽃들은 귀품이 느껴질 정도로 맑고, 투명하다. 정원사들의 로망이기도 한 화이트가든의 매력을 한번 살펴보자.



흰색+노랑
Top Terrace Primula White n Yellow Shades 01 WG



흰색은 색과 색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원색의 꽃을 좋아하는 경우, 한 장소에 모아 심게 되면 강렬한 이미지가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적은 양이라도 흰색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 흰색이 바탕색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꽃과 꽃 사이에 자리를 잡아도 좋다. 원색 하나하나의 색감이 드러나면서도 전체의 색을 부드럽게 중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원에 어떤 색의 꽃을 넣으면 좋을지 고민이 된다면 일단 흰색의 꽃을 심으면 효과적이다.



흰색의 양이나 모양, 색감이 주는 매력

흰색은 다양한 색감을 중화시켜 주기도 하지만, 양이 너무 많아져도 팽창감이 확대된다. 시선이 흩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비한 흰색의 양 조절이 필요하다. 초록의 나무나 잎이 바탕색으로 받쳐주면 흰색이 더욱 단정하게 보인다. 흰색의 꽃을 모아 화이트가든을 만들 경우에는, 꽃 모양과 키, 혹은 잎의 모양과 색을 다양하게 선택하고 배치하는 것이 좋다. 전체적인 흰색의 이미지에 묻히지 않게 하는 방법이며, 보는이의 눈을 즐겁게 해 준다. 흰색의 또 하나의 매력은 흰색과 어울리는 색의 조합에 따라 정원의 느낌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흰색과 분홍이 만나면 동화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흰색과 파랑이 만나면 시원함을, 흰색과 빨강이 만나면 모던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흰색과 녹색(안나벨레+호스타)

모든 색의 바탕이 되어주는 녹색에 흰색이 더해지면 흰색의 순수함이 더욱 증폭이 된다. 흰색과 녹색의 조화속에서 흰색이 더욱 돋보인다.



흰색과 파랑의 어울림(크로커스)

흰색의 깨끗함에 파랑이 더해지면서 물이 흐르는 듯한 평온함을 연출한다. 크로커스는 3월에 피지만, 더운 여름의 정원에도 흰색과 파랑의 꽃을 찾아 심으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흰색 원색과 색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

흰색과 분홍의 어울림(수선화+튤립)
순백의 수선화가 양쪽으로 늘어지고, 분홍의 튤립이 볼륨감 있게 가운데 선을 유지하면서 끝없이 펼쳐진다. 양적으로는 튤립이 적지만, 꽃모양의 단정함이 풍성하게 보인다. 튤립의 꽃잎 가장자리에 흰빛이 수선화의 흰색과 연결이 되면서 통일감을 준다. 흰색과 분홍의 만남은 화사한 봄날을 더욱 화사하게 장식해 준다.



흰색과 노랑(프리물라)

화사하면서도 귀엽고, 부드러운면서도 정감 있는 느낌이다. 흰색과 노란색의 수채화 같은 선율이 잔디밭으로 초대하는 듯 하다.



흰색과 파스텔칼러

(아네모네+제라늄+빈카)

흰색의 밝음과 제라늄의 부드러움 그리고 빈카의 어울림이 잔잔하게 다가오는 느낌이 좋다. 아이들이 있는 유치원이나 공원 등에 잘 어울리는 화단이 아닐까.



김정희씨의

야생화 분경



민들레 야생화
김정희 대표

꽃이 많은 계절에 즐기는 야생화 분경은 우리 강산을
축소해 놓은 듯 해 일반 화분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투박하게 빚어진 토기에 산을 형상화 시킨 돌과 함께 하는
야생화의 향기가 가득한 작품을 감상해 보자.

분경 step by step

1



화분에 망을 넣고 마사토로
배수층을 만든다.

2



돌을 화분 지름의 1/3 지점에 놓는다.

3



미스김 라일락의 뿌리에서
흙을 털어 내고 식재한다.

3



4



풍로초, 무늬 비비추, 한라개송마, 골무꽃, 설난, 나도 부추, 아르메니아도
흙을 털어내고 뿌리를 정리하여 식재한다.



5



식물 식재 후 이끼를 돌 주위에 덮어준다.



6



식물의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들어가도록
나무젓가락으로 흙을 다져준다.

6



7



마사토로 이끼 주변과 흙 위를 덮는다



야생화 분경의 순화과정

처음 식재 후 반그늘에서 햇빛쪽으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이동시켜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증산 작용의 억제로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막아주는 것이다.



분경 관리 Knowhow

식재 후 바로 물을 흠뻑 주고, 뿌리까지
몸살을 앓기 때문에 바로 햇빛에 내 놓지 말고 반그늘에서
10일 정도 순화 과정을 거친다.

관수는 야생화중에서도 잎이 얇은 것따뜻한 것을 권해
화분 배에서든 차등하게 관수하는 것이 좋고, 너무 잦은 물을
흠속에 넣어 너무 잦아들기에 젖은 흠이 묻어 나오면 물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흠이 묻어 나오지 않으면 물을 준다.
비료는 1년에 2번 정도 유기물 고체 비료를 흠 위에 얹어 놓으면
충분하다. 만약 조금씩 키우고 싶다면, 비료를 년 4회 정도로
줄이든지 주지 않으면 된다.

야생화는 겨울이 되면 꽃이 피기 때문에 겨울에
실내에 따뜻하게 보관하면 이듬해 꽃을 볼 수 있다.

풍로초, 무의 비비추, 한라개승마, 비룡나물, 골목꽃, 설산,
아리메시아, 미스김나일과 관하는 비비추, 나도 부추,
설산은 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에 물을 주면
자연스러운 관수가 된다.



신기한 자귀나무

Albizia julibrissin (Persian silk tree)

자귀나무

황규관

말복 더위에 자귀나무 꽃빛은 불다
면산 산정에는 소나기 구름 사이로 번개가 치고
상수리나무 열매도 어느새 쭉 자랐는데
자귀나무 꽃빛에 가슴이 설레는 것은
사랑이 아픔을 제 이면으로 가지고 있듯
가을의 기운을 띄약별에게 느껴서다
그걸 사람들만 모른다고
길가의 보는 눈 붉어지라고 짠 것이다
뜨거운 고통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열은 웃음의 파문을 피운 것이다.
자귀나무는...



우리는 보통 낮에는 문을 열고 밤에는 문을 닫는다. 꽃잎도 낮에는 꽃
잎을 열고 햇빛을 받아들이고 밤에는 잎을 닫는다고 알고 있다. 그런
데 자귀나무가 되면 잎이 닫힌다? 이런 식물이지?

자귀나무는 밤이 되면 잎을 닫아 버려 그 모양이 귀신 같다 하여 한국
식물명의 유래가 자귀목-자귀나무-작외나무-자귀나무로 불린 설과
나무를 깎는데 쓰였다는 도구의 하나인 '자귀'의 손잡이로 이 나무를
사용해서 불린 설 등을 가지고 있다. 저녁에 잎이 짙을 이뤄 함쳐진
고 부부금실을 상징하는 '합혼수', '아합수' 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렇기
때문에 부부금실을 좋게 하기 위해 정원수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여름날 자귀나무의 모습처럼 서로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보자.



가든인 박세경 기자

금강이와 초롱이의

자수원 孜受源



자수원의 윤준영, 권명숙 부부

강릉 경포대 도립공원 내에 위치한 윤준영, 권명숙 부부의 정원에 들어서면 눈이 정화되는 듯 하얀 카모마일이 반겨준다. 과실수 사이로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카모마일을 지나면 집과 연결되는 길 양 옆으로 철쭉원, 무늬 창포, 노랑어리엔, 수련 등이 있는 청아한 자태의 수생정원, 매발톱, 으아리, 백리향 향기 가득한 야생화원, 바위술이 주가 된 다육정원, 등 테마가 있는 정원이 조성되어 있고, 집 주변으로 넓은 잔디 정원과 구근이 조성되어 있고, 그 위로 구갑무늬 개나리, 병꽃류, 조팝류 등으로 조성된 언덕 위에 꽃 나무원이 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 부부는 어린 시절의 그리움으로 20년 전에 아내의 고향인 강원도 강릉에 터를 잡고 서울과 강릉을 오가며 정원을 조성하다가 10년 전부터는 귀향해 살면서 지금의 정원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엔 사진 지식이 없어 손쉬운 나무 위주로 식재하다가 보니 정원이 무언가가 덜 된 느낌이 나고 허전했다고 한다. 꽃을 좋아하는 아내의 조언으로 초화류를 하나 둘 사다 심으면서 지금처럼 아늑한 정원이 되었다고 한다.



주목, 오염송, 대추나무, 감나무, 배나무, 자두나무, 매실, 은행나무, 불두화, 꽃사과 등나무, 포도나무, 병꽃나무 등의 목본류와 카모마일, 샤프타데이지, 토종으아리 2종, 클레마티스 10종과 복주머니란, 갯깁이풀, 처녀치마, 복수초, 금낭화 6종의 삼지구엽초, 20종의 나리류, 12종의 알리움, 튤립, 크로커스, 12종의 후룩스, 6종의 동자꽃, 8종의 작약, 3종의 복단, 연산홍, 자산홍, 7종의 양귀비, 백리향, 이태리하설초 등 600여종의 수종이 아우러져 있는 800여 평의 정원은 틀에 박힌 일반정원과 달리 테마가 있으면서도 자유분방한 것이 돋보인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원

잔디 정원은 주로 구근 식물로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사전 해수욕장에 접한 정원은 강한 해풍이 구근에게 해롭기 때문에 정원 가장자리로 오죽을 심어 방풍림의 역할과 함께 정원에서는 흔하지 않은 색을 정원으로 끌어들여, 구근의 화려한 색으로 약간은 떠있는 정원을 차분히 가라 앉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죽순과 대잎차 등의 먹거리도 얻고, 대나무 살로는 가정에서 필요한 바구니 등을 만들어 하나도 버릴 것 없이 활용한다고 한다. 또한 오죽은 일반 나무보다 4배 이상의 산소가 발생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로운 식물이라고 한다.

또 정원과 텃밭 사이의 공간에도 오미자와 복분자를 울타리 목으로 활용하여 방풍의 기능과 함께 다소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는 곳을 가려주고, 꽃도 보고 열매를 얻는 일거양득을 취했다



식물을 살 때 무조건 두 개를 샀다..

정원을 조성하면서 가장 힘이 들었던 것은 월동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관리였다고 한다. 처음엔 다 월동이 되거나 하고 심다가, 고사하고 나서야 그 식물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반복하며, 차 한 대는 정원에 넣었다고 할 정도로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도리어 월동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종류들을 월동시키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한다. 식물을 살 때 두 개를 구입해 하나는 온실에서 화분으로 가꾸고, 하나는 노지에 식재해 환경응이 가능한지 실험하는데, 월동시키는 것에는 왕겨와 낙엽으로 멀칭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이듬해부터는 내성이 생겨

월동하기가 수월해진다고 한다. 이렇게 실험을 해도 월동이 되지 않는 금작화, 아부틸론, 만데빌라, 수국, 새우풀꽃, 노고단, 티보치나, 금매화 만양금 등은 온실에서 화분으로 겨울을 난다고 한다. 식물을 사러 멀리 있는 농원을 가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인터넷으로 동우회 활동이 많아 종자 나눔 동우회에서 종자나 삼목묘를 교환하여 개체수를 늘린다고 한다. 초기에는 종자를 주로 얻어서 번식시켜 정원을 가꾸었으나, 지금은 나누어 주는 기쁨이 더 크다고 한다. 주로 삼목으로 번식 시켜서 삼목묘를 나누어 주거나, 씨를 받아서 파종한 것을 나누어 주어야 실패가 적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이 가능한 것

은 10평의 유리 온실이 외부 환경과는 달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배움으로 진화하는 정원

귀촌 후 정원과 텃밭을 겸하면서 부족한 지식으로 인한 실패를 성공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덕이 컸다. 유기농법과 친환경 비료, 친환경 농약 등을 배우며 집으로 돌아와 실습하는 것이 노하우가 되어 지금은 남들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한다. 일년 내내 개설하는 프로그램을 부부가 등록하여 지금도 학구열을 불태운다고 한다. 이런 경험으로 비료는 집 안에서 급제와 흰 비둘기를 정원에 방사해 나온 분변을 땅에 구덩이를 파고 낙엽과 커커이 쌓아서 EM효소를 첨가해 숙성시켜 만든다고 한다. 또 깻묵을 잘게 부수고 물을 적신 후 EM효소를 섞어 바람이 통하지 않게 보름 정도 부숙 시켜서 하얗게 곰팡이가 피면 양파밭에 넣고 물을 5배 정도 넣어 우려서 그 우린 물을 1000배 희석해 식물들에서 염면시비 하거나 관수한다고 한다. 남은 찌꺼기는 주먹보다 작게 스타킹에다 넣고 묶어서 월동이 어려운 식물 화분 위에 올려 관수시 영양분이 스며 들게 한다고 한다..

방제는 잎이 나기 전과 꽃이 지고 나면 일 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친환경 농약으로만 방제를 하다 보니 과실수의 피해가 너무 커 저독성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 정원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민달팽이는 원두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곳곳에 담아 두면 사라진다고 한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곳

귀향해서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정원이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어 방문하는 이가 많아 그쪽으로만 더욱 신경을 쓰다 보니, 식생과 상관없이 보여주는 정원이 되어 버렸다 한다. 화단은 화려하지만 경계성이 떨어지고, 지속적인 아름다움은 없어서 허무함으로 다시 정원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하게 되었다고 한다. 보여주는 정원이 아닌 매년 같은 시기가 되면 같은 색으로 물들이는 '나를 위한 정원'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지금의 정원의 시작이라고 한다. 아직도 캐모마일 같은 우세종이 있어서 꽃이 지고 나면 파종한 모종을 옮겨 심는 수고로움은 있지만, 년간 계획이 있어 한결 편하게 정원을 대면할 수 있고, 기다림이 즐거움이 되었다고 한다.

흙처럼 진실하게, 꽃처럼 아름답게, 벌처럼 성실하게 라고 정원 한쪽 돌에 새겨둔 가훈처럼, 스스로 아름다움을 찾아 가는 이 정원의 지킴이들의 마음이 그러할 것 같다.



북문자 울타리



아열대식물들이 있는 온실



파종한 트레이판

하루 종일 할 일이 너무 많은 정원이지만, 아침에 물주고, 꽃과의 대화를 하고 나면 내가 정원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정원이 나를 정화시킨다는 느낌이 나요. 정원의 식물도 감정이 있어 미워하면 죽더라고요, 처음 심었던 박래기 나무의 위치가 맘에 들지 않아 썰다, 썰다 했는데, 어느 날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식물이나 사람이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해를 준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어요. 작은 관심으로 시작된 사랑의 마음이 꽃을 아름답게 만들듯,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면 또 다른 아름다움이 전파되지 않을까 싶어 지금은 작은 꽃 하나로 나만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평은 아직 정원 문화가 보편화되지 않아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나들을 잘라 보면 그들도 정원 문화에 조금은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

외래종을 야생화로

뿌리 사이의 기존의 흙을 다 털어낸다.

구덩이를 파고 물을 흠뻑 적신 후 뿌리를 펼쳐서 심는다.

식재 후에는 되도록 원산지의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고 서서히 순화시킨다.

처음엔 몸살을 하지만, 뿌리가 물을 찾아 흙 속으로 뻗어서 나간다. 기존의 흙이 있는 채로 식재하면 뿌리가 그 흙으로만 뻗어서 나중엔 고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환경에 적응해야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리스의 비밀

"노란색 매력포인트로 벌들을 꼬여내다"

창포가 전성기인 초여름에는 정원에 벌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그 벌들이 어떻게 아이리스의 매력에 빠질까요?

꽃창포 *Iris ensata* var. *spontanea*

무늬꽃창포

Acorus calamus var. *angustatus* 'Variegatus'

꿀벌이 좋아하는 색은 분홍, 노랑, 주황, 초록, 보라 등 밝은색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벌들이 몸속에 있는 배설물을 버리려 나올 때 노란색 꽃에 가장 많이 앉는다고 합니다.



꽃창포의 꽃과 줄기

바로 이때문에 창포의 꽃 잎면의 노란색이 포인트로 있는 것 아닐까요? 색깔을 보고 꽃잎 위로 앉은 벌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암술과 수술이 있어 꿀을 모으면서 창포의 수정을 돕게 됩니다. 참으로 영리한 창포의 번식법입니다.

가든인 양자선 기사

July

정원사의 일기 (Gardener's Diary)

가드너 김시웅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플우락교전공부 정원

관상정원 (Ornamental Garden)

주로 관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원으로 야생화원, 수생식물원, 암석원, 향기원, 나비정원 등으로 주제별로 나누어 구성할 수 있다. 우리집은 폭 1.5m, 길이 7m의 작은 화단으로 되어 있다. 가장 보기 좋은 때는 5월이지만, 7월이 되면 떡갈잎수국과 기린초가 화단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화단에는 떡갈잎수국 이외에 백리향, 빈카, 미스김 라이락, 정향품, 독일붓꽃(흰색), 바위구절초, 리아트리스, 참취 등이 있다. 석축을 한 사이에는 줄팔기를 심었고, 테크아래에는 어성초가 자라고 있다. 집 주변에는 소나무 8그루가 자라고 있고, 짙레 또한 꽃이 만개하면 보기에 좋고 아이들에게 짙레순을 따먹는 추억을 주고 싶기 때문에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장마가 시작이 되는 7월의 정원에서 할 일중에 하나는 화단의 꽃이 비,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만들어 주는 일이다. 작고 탐스러운 흰꽃이 달리는 안개꽃의 지지대 세우는 방법과 7월의 정원을 더욱 화사하게 해 주는 식물을 몇가지 소개 해 보자.

지지대 만들기

>> 안개꽃



안개꽃은 줄기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쓰러진다. 따라서 쓰러지지 않게 지지할 필요가 있다. 철사나 지지대로 만들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나뭇가지를 안개꽃의 줄기근처에 조심스럽게 꽂는다. 적절한 시기는 꽃이 피기 전에 한다. 이렇게 하면 식물이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다.

>> 기린초 (Sedum kamtschaticum)

여러해 살이 풀이며 양지바른 곳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 잘 자란다. 이동하기 좋게 통나무 화분에 심었다. 통나무 화분을 만들기는 쉽지 않으나 만들어 두면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 자라는 식물을 심으면 잘 자라고 잘 어울린다. 기린초는 연한 순을 나물로 먹을 수 있다.



>> 떡갈잎수국 (Hydrangea quercifolia)

낙엽지고 잎이 넓은 키작은 나무로 원산지는 북아메리카의 남동쪽이다. 잎모양이 떡갈잎처럼 넓어서 떡갈잎수국이라 부른다. 꽃대는 흔히 보는 수국보다 길고 꽃이 흰색으로 피는 것이 특징이다.



>> 무늬개키버들 (Salix integra 'Hakuro-Nishiki')

낙엽지고 잎이 넓은 키작은 나무로 재배변종(Cultivated Variety)명이 'Hakuro-Nishiki'이고 'Hakuro'는 일본어로 '백로'를 뜻한다. 새로 나오는 잎이 흰색으로 멀리에서 보면 꽃처럼 보인다. 이것을 처음보고 이름 지은 이는 백로 같이 보였나 보다. 줄기를 하나로 키워 재배할 수도 있고, 자라는 데로 재배할 수 있다.



과수정원 (Fruit Garden)

과일나무가 있는 밭을 우리는 과수원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과수정원은 무엇일까? 과수정원은 과수원과 정원이 결합된 형태의 정원이다. 과수정원의 과수(果樹)는 단일화된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과수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집에는 딸보리수, 앵두, 뽕나무, 매실, 블루베리, 자두, 산복사나무, 사과, 배, 감, 밤나무 등이 있다. 종류로 보면 거대한 과수원 같지만 불과 5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중에 뽕나무는 씨앗이 우연히 밭둑아래에 떨어져서 난 것이다. 6월부터 익기 시작하는 보리수, 앵두, 뽕나무는 수확이 7월까지 이어진다. 빨간 앵두와 보리수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고, 철분이 많은 오디는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특히 좋은 보양식이 된다. 보기에도 좋지만 먹기에도 좋고, 유기재배가 가능해서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과수나무이기도 하다. 6~7월에 마을사람의 발길을 머물게 하는 식물은 딸보리수이다. 우리집 딸보리수의 맛을 본 마을사람들은 어김없이 또 찾아 온다. 나는 그들에 방해가 되지 않게 모른척한다. 올해는 딸보리수 번식을 하리라 마음먹는다. 그들의 집에서 딸보리수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 돌보리수 (*Elaeagnus multiflora*)

우리 집 돌보리수는 인근 수목원에서 1주를 분양 받았다. 돌보리수는 낙엽지는 잎이 넓은 키 작은 나무로 원산지는 일본이다. 이 나무를 우리 집에서 양지바른 곳, 척박한 토양에 심었는데 잘 자라고 열매 또한 해질이 없이 매년 잘 열린다. 꽃은 봄에 피고 작은 종 모양으로 끝이 갈라지고 향기가 있다. 작년에는 앵도 후에 열매가 익었는데 올해는 앵도보다 조금 일찍 열매가 익었다.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 일 것이다. 올해 봄에 꽃피는 식물들의 특징은 갑자기 찾아온 날씨 때문에 순서대로 피지 않고 동시에 피었다. 식물을 판매하는 종묘회사에서는 열매가 큰 보리수나무를 왕보리수나무(*Elaeagnus umbellata* var. *coreana*)와 돌보리수(*Elaeagnus multiflora*)로 같이 취급하지만 두 나무는 열매의 크기와 열매자루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왕보리수나무의 열매는 1cm 이하이고 열매자루는 0.5~1.2cm이며, 돌보리수의 열매는 1.5cm내외이고 열매자루는 1.5~5cm이다.

>> 앵도 (*Prunus tomentosa*)

앵도는 낙엽지는 잎이 넓은 키 작은 나무로 흔히 재배하는 나무이다. '우물가에 앵두나무~'의 노랫말처럼 집 우물가에서 심지만 우리는 집에서 양지바른 남쪽 방향에 흙은 복토한 후에 거름 한번 주지 않은 땅에 재배하고 있는데 약간의 해질이 있고, 해질을 막기 위해서는 열매를 딴 후에 전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전정하는 방법은 다음호에서 다루기로 한다. 장미과에 속하는 앵도의 꽃은 흰색 또는 연한 홍색으로 꽃잎이 5장으로 서로 겹쳐지지 않으며 나무 전체에 가득하게 핀다. 열매는 연한 홍색으로 익으며 자세히 보면 잔털이 있다.

>> 뽕나무 (*Morus alba*)

뽕나무는 낙엽지는 잎이 넓은 키 큰 나무로 흔히 재배하거나 산과 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뽕나무란 이름의 유래는 이 나무의 열매를 오디라고 하는데 먹으면 소화가 잘 되게 하여 방귀가 '뽕~'한다고 하여 뽕나무란다. 어떤 사람들은 뽕나무와 오디가 다른 나무인걸로 아는 경우도 있다. 뽕나무의 꽃은 관상가치는 없으나 열매가 맛있으며 철분성분이 많아 여성에게 좋고 잼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좋다. 산에서 보는 뽕나무 중에 뽕나무와 산뽕나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둘의 구별법은 열매를 보아서 열매 끝에 짧은 실 같은 돌기가 있으면 산뽕나무 없으면 뽕나무이다. 이 짧은 실같은 돌기가 암술대에 해당한다. 약으로 쓸 때는 산뽕이 더 좋다고 한다. 연하고 작은 뽕나무 잎으로는 끓는 물에 데쳐서 물침으로 먹을 수 있으며 연하고 큰 잎으로는 장아치를 담가 먹으면 좋다. 너무 크게 자라면 열매를 따기에 어렵기 때문에 크게 자란 가지는 전정을 할 필요가 있다.

채소정원 (Vegetable Garden)

100평 정도의 채소정원(텃밭정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집은 2008년 이후 유기재배를 원칙으로 하며 트랙터로 밭을 간적이 한번도 없다. 이랑의 수는 9개, 그 중에 한 개는 꽃밭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텃밭정원은 자급자족용이며 여분의 채소는 이웃집과 나누어 먹고 있다. 밭갈기 대신에 삽이나 쇠스랑으로 2~3년에 한번씩 땅을 뒤집어 주고 이때 다른 축분 퇴비를 이용하기 보다는 낙엽이나 풀로 만든 퇴비를 넣어 준다. 퇴비대신에 낙엽을 사용해 보면 땅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옷거름으로 가급 유박을 이용한

다. 석회는 토양산도를 맞추기 위해 손으로 한줌 쥐어 1m²에 뿌려준다. 또한 식물에 충해가 왔을 때 석회를 뿌려주어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한다. 유기재배를 하기위해서 돌러짓기를 중심으로 섞어짓기를 하고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배추흰나비를 막기위해 흰색 차광망을 쳐서 물리적인 접근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채소정원에서의 7월에 할 일은 역시 토마토와 오이 등의 유인 줄을 묶어주는 것 일 것이다. 7월의 따뜻한 기온을 머금고 쑥쑥 자라기도 하지만, 태풍에 대비를 해서 유인을 해 주고, 튼실한 열매가 달릴 수 있도록 결순도 따주는 일을 잊지 말자.

>> 토마토, 오이 유인줄 묶고 유인하기



토마토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쪽 가로대(보)에 줄을 묶고 토마토의 아래부분에 줄을 묶는다.



토마토가 자라고 꽃이 피는 가지가 나오면 아래로 3~4개의 잎을 남기고 나머지는 따준다. 잎자루를 위쪽으로 따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로 따주면 줄기에 상처가 생길 수 있다. 유인줄은 한 쪽 방향으로 감아준다. 한 번은 감는 방향과 토마토의 지렁이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실험했지만 별차이가 없었다. 오이는 덩굴손이 있어 스스로 감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감지 않으면 나중에는 열매가 무거워서 줄기가 내려올 수 있다.

>> 토마토 결순 지르기



줄기와 잎사이에서 자라는 결순을 지르면 된다.



주의할 점은 결순을 딸 때 줄기의 겹침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고 날씨를 봐서 비가 올 것 같으면 비가 온 후에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병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캐모마일 꽃차 만들기

캐모마일은 1년생 허브로 1년 초화이나 씨앗이 떨어져 그 자리에서 계속나고 점점 자기의 영역을 넓혀 나간다. 감국처럼 꽃을 따서 꽃차를 만들 수가 있다. 꽃은 꽃대가 생기지 않게 꽃만 따고 그늘에서 말려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담아서 차로 마실 수가 있다. 또한 독특한 향기가 있어 여러 가지 곤충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푸르미와 산귀래 별서 식물원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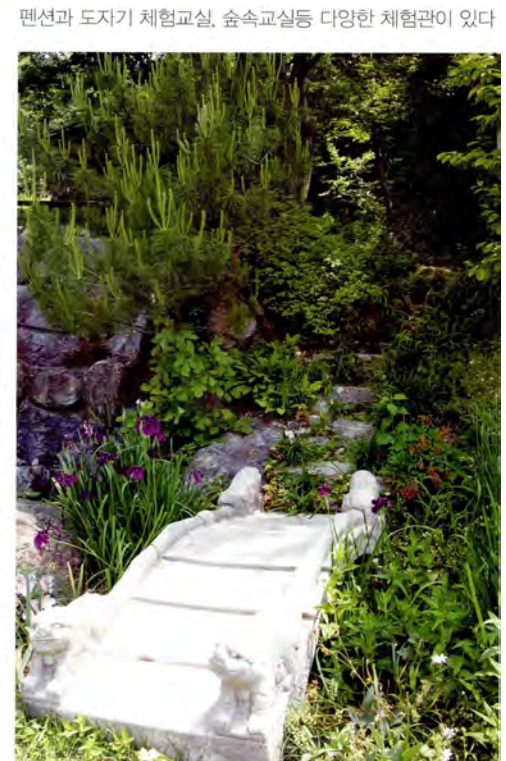


별서식물원 박수주 원장님

1982년부터 조성된 산귀래 별서 식물원을
경기조경가든대학 졸업생 모임인 푸르미와 함께한
탐방 길은 식물원 원장님인 박수주 수필가님의 자상한
안내가 있어 외갓집 동산을 걷는 듯이 편안함의 여운이
남았다. 건물의 담쟁이처럼 오래된 세월만큼
식물원 곳곳의 풍경들은 자연과 하나된 듯
편안함이 있고, 외국 수종과 토종 수종과의 공생이
잘 어우러진다. 끈끈이 대나물과 검금계국, 샤스타데이지와
양귀비, 풀꽃과 어성초, 노랑 붓꽃과 장미 등 군락에도
색의 조합이 시선을 잡는다. 길을 따라 들꽃 군락이
조성되어 있어, 탐방 내내 눈이 즐거운 산귀래에는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나라의 타사인 박수주님의
심상·심상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하다



푸르미원장님의 기념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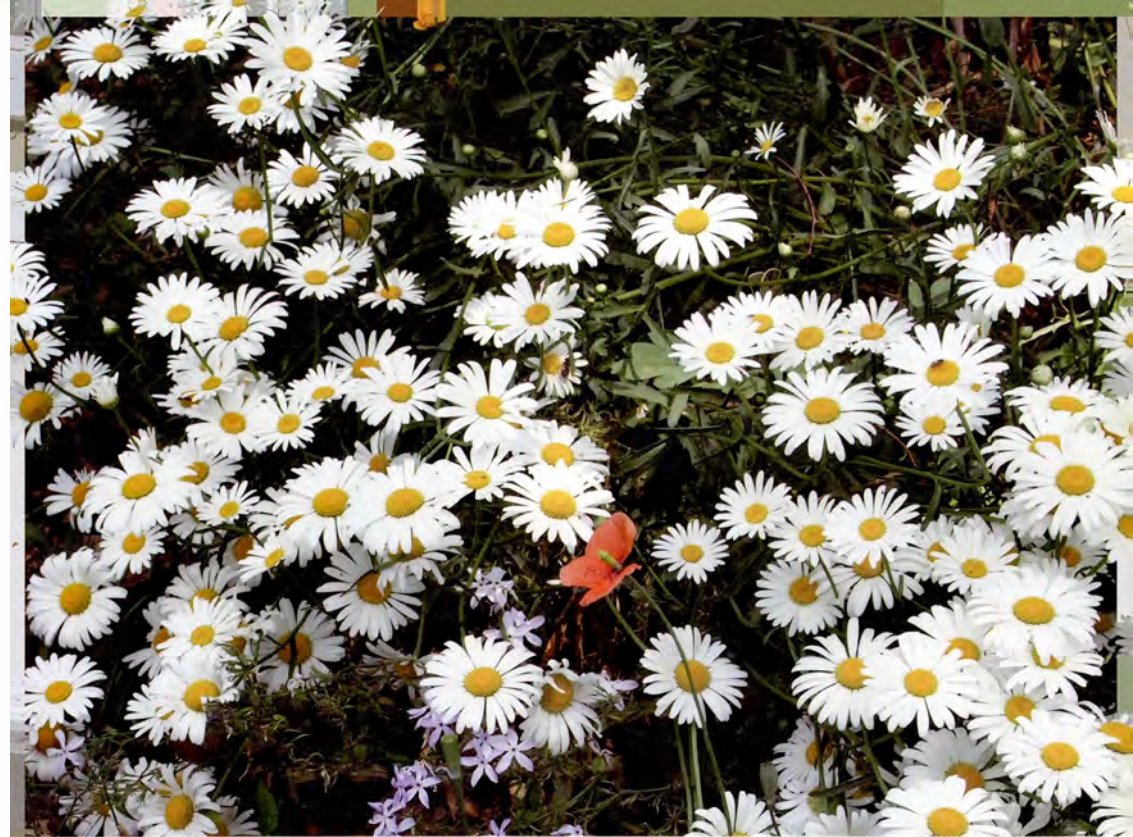
펜션과 도자기 체험교실, 숲속교실등 다양한 체험관이 있다



가족단위로 방문하면
아이들의 정서에도
생활에 지친 어른들에게도
휴식의 공간이 될
별서 식물원



각양각색의 꽃들이반겨주는 별서식물원



샤스타데이지



곤곤이대나물과 겹금계국



여성초와 무늬 여성초

박공영과 함께하는 정원식물의 '속' 훑쳐보기

정원, '속'보이네



이름이 더 예쁜
봄맞이 속 (*Genus Androsace*)

봄맞이는 일년생, 이년생, 식물로 상록성으로 매트 혹은 쿠션 모양을 형성한다. 다년생을 포함하여 약 100종의 식물이 속한다. 이들은 털이 있는 작은 로제트형으로 줄기가 없거나 아주 짧고 꽃대만 길게 빼 꽃을 피운다.

우리의 정원 어딘가에 피었다 사라지기도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보기 힘들다.

잔디밭이나 양지바른 곳에서 가을에 발아되어 겨울에 따개 비와 같이 납작하게 땅에 붙었다가 봄이 오면 먼저 봄을 마중 나온다.

대부분 북반구의 산악지대에서 발생하고 돌 틈 사이, 돌 더미, 잔디밭에서 자란다. 높은 고산지역에 자생하는 종은 쿠션 모양을 형성하는 데 바람이 잘 통하는 고산지

대 온실에 특히 적합하며, 대부분의 나머지 종들은 암석 화단이나 돌이 있는 묘판이나 수반에 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경용으로 아주 좋은 식물이기도 하다. 내한성이 매우 강해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기를 수 있지만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물이 차는 땅에서는 생육이 불량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꽃의 모양은 꽃다지 혹은 냉이와 같은 로제트 상태로 겨울이 지나고 난후 사방으로 꽃대가 나고 또 그 꽃대 하나하나가 사방으로 여러 가지를 내어 그 끝에 하양 혹은 연한 파랑색의 꽃을 피어낸다. 그 모습은 작지만 너무 아름다운 꽃이다. 다만 햇빛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생육이 나쁘게 되며 온실이나 실내재배 시에는 진다물의 피해를 받을 수 있고 토양이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에 의한 피해 경향이 있다. 또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죽은 로제트를 제거해주어야 한다.

봄맞이는 그 이름만큼이나 앙증맞다.



봄맞이는 땅에 붙어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많은 꽃대를 올려 꽃을 피운다. 자세히 보면 우리 주변 정원뿐만 아니라 잔디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단,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한다.



박공영과 함께하는 정원식물의 '속' 훑쳐보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네모네로 표현하는 꽃은 구근을 형성하여 추식구근으로 분류하여 가을에 심는다.

그리고 환엽수 아래 심는 바람꽃은 단색으로 주로 파랑과 하얀색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우리의 정원에 매우 추천하고픈 종류로는 여름 이후에 피는 아네모네를 추천하고 싶은데 코스모스를 능가하는 정서적 친밀감이 있는 꽃이다. 보통 하얀색과 구리색의 분홍색 등이 주를 이룬다. 다만 내한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 겨울 보온을 해주면 더욱 좋다.

아네모네는 종류에 따라 다양한 재배법을 알아야 한다. 대체로 쉬운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진다.

1. 덩이 뿌리나 구근 등은 여름 휴면기간에 건조한 조건이 좋은데 화분에 기를 때는 관수를 중단하는 것만으로 되지만 정원의 경우 습기가 있어도 배수가 잘 되고 부식질이 풍부한 토양이면 그늘 토양이 좋아야 한다.
2. 햇빛이 잘 들거나 반 그늘 지역의 배수가 잘 되고 부식질이 많은 토양을 선호한다.
3. 밭고, 햇빛이 잘 드는 모래토양. 개화 후 건조한 휴면 상태에서 보호를 해야 한다. 겨울 동안 보호를 위해 뿌리 덮개를 해주거나 냉해가 없는 지역으로 옮겨준다.
4. 햇빛이 잘 들거나 반 그늘 지역의 촉촉하고 비옥하고 부식질이 풍부한 토양. 몇 층은 이식이 된 뒤 침략종이 될 수 있다. 겨울에 과도한 수분에는 견딜 수 없다. 추운 지역에서는 가을과 봄에 뿌리 덮개를 해준다.



아름다운 천상의 꽃,
바람꽃 속 (*Genus Anemone*)

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북반구의 온대지역에 넓은 서식지를 갖고 있으나 남반구에도 있는 변종이 많은 다년생 식물로 약 120여종이 속한 속이다. 아네모네는 지하경, 덩이줄기, 다육성 혹은 섬유질의 뿌리줄기를 갖고 있다. 이들은 3개의 주요 그룹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삼림지나 고산지역처럼 꾸민 온실에서 덩이줄기나 지하경을 이용한 봄에 꽃이 피는 종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구근 식물로 뜨겁고 건조한 여름날씨와 같은 지역에서 서식을 하고 봄이나 초여름에 개화를 하고, 주로 키가 크고 섬유성 뿌리가 있는 초본 종은 촉촉하고 넓은 삼림지 그리고 자갈이 있는 장소에서 발견되며, 늦여름에서 가을까지 꽃을 피운다. 대부분의 아네모네는 기저 잎, 줄기 잎 모두를 생산한다. 기저 잎은 로제트 형으로 나오다가 꽃이 피기 위한 줄기가 서면 잎자루는 점점 더 작아지고 꽃의 바로 밑에서는 줄기에 붙은 윤생체로 나온다.



키가 작은 속근성으로 재배가 매우 쉽다.

박공영과 함께하는 정원식물의 '속' 훑쳐보기



이 종류는 뿌리줄기로 번식이 잘되는 식물로 늦여름부터 피어나는 우리 정서와 아주 잘 맞는 식물이다. 겨울에 약간의 보온이 필요하다.

아네모네 코로나리아 라는 구근식물이다. 보통 가을에 심을 수 있으나 내한성 때문에 봄에 심는 경우가 많다.



갓는 품종으로 늦여름에 꽃을 피운다. 뿌리 줄기를 잘라 번식한다.

신선이 준 약초, 신선초로 불리는

당귀 속 (Genus Angelica)

몇 종의 일회 결실성 식물. 여러해살이 초본이나 이년생 식물의 50여 종의 속으로 주로 북반구의 습기 찬 삼림지, 초원, 늪, 그리고 시냇가에 있다. 크기가 크고 조형용 식물로 좋는데 작은 꽃이 우산 모양으로 모여 피는 산형화서를 이룬다. 꽃은 흰색, 녹색 빛이 도는 노란색이나 보라색 꽃이 피는 대형의 식물이다. Angelica는 삼림지 환경의 표본으로서 넓은 집경지역에 적합하거나 연못이나 개울가에서 길러진다. 신선초(*A. archangelica*)는 요리와 약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허브정원에 적합하다.

내한성 뛰어나고 대부분의 종이 건조한 조건에서 견딜 수 있어도, 물기가 있고 비옥한 토양에서 기르고 전호(*A. sylvestris*)는 햇빛이 충분히 드는 곳에서 기른다. 당귀나 신선초(*A. archangelica*)들은 개화 후 죽는데, 꽃이 피지 않거나 꽃이 약하다면 개화 전에 꽃대를 제거를 해주면 다음 해에 꽃이 핀다.

증식은 종자가 익으면 곧바로 화분에 파종을 하고 발아를 위해 빛을 쬌어주어야 한다.

모종은 너무 큰 것을 이식하면 활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되도록 개체가 어릴 때 이식을 해준다. 일반적으로 2~3년 이내에 꽃이 핀다. 해충 및 질병으로 건조한 여름에 흰가루병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진딧물, 달팽이, 민달팽이, 선충이나 고자리 피해가 있다.

유럽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당귀



박공영과 함께하는 정원식물의 '속' 훑쳐보기



무늬가 좋아 사랑받는 무늬 엔젤리카



신선초 꽃. 2m이상 크고 산형으로 모여난 꽃의 전체 지름이 약 30cm 이상되는 경우도있다.



당귀 꽃의 자주색 꽃이 고급스러움을 자아낸다.



유럽의 전호, 약용으로도 좋지만 꽃으로도 사랑받는다



80년도 중반 난관련 월간난과생활사에 입사를 하고 일본, 중국, 대만등 난관련 취재를 다니며 취재임을 극진히 확대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농업미래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경쟁력을 갖춘 동양란 품종 하나없고 선물용 동양란은 수입에만 의존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우리도 난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가는 길은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난 육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그 결실인 아리울을 내놓게 되었다.



세민금생령공학센터 김동용소장

춘란 알고보니 중국산?

이제부터는 향기나는 춘란 아리울



봄에 꽃을 피우는 동양란을 일컬어 춘란이라 부르며 학명은 보춘화로 되어 있다. 춘란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대만에서 자생하는 춘란을 자국의 이름을 앞에 붙여 한국춘란, 중국춘란, 일본춘란, 대만춘란으로 부른다.

국내 난류의 생산액은 805억원(2011)으로 분화생산액(2,765억원)의 29.1%를 차지하고 있고, 화훼부문 전체에서 2위에 해당된다. 전체 분화 생산액의 29.1%, 재배면적의 18.2% 수준으로 2000년에 비해 재배면적 및 생산액이 점차로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이들 중에서 심비디움의 재배면적(2010년)은 103ha(45%)수준이고, 생산액은 35%(296억)을 차지한다.

또한 난 품목별 수입량은 동양란이 19백만 본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반면 수출실적은 심비디움이 1.5백만본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호접란으로 1백만본이었다. 그러나 동양란은 약 4만본에 그쳐 수출이 대단히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입되는

동양란을 대체하여 외화를 절약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한국 자생춘란 신품종 육성 필요하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선물용 동양란 대체도 매우 중요하다.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선물용 난 소비 확대

예전에는 덩치가 큰 동양란이나 화려한 심비디움이 인기가 좋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춘란처럼 작으면서 무늬도 감상하고 향기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품종이 선물용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춘란으로 선물용을 한다는 것은 가격부분에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향기나는 춘란 아리울은 명품요건을 갖춘 품종으로서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품종으로 수입되는 동양란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일반적으로 한국춘란은 향기가 없는데 비해 향기나는 춘란 아리울은 향기와 복류무늬를 모두 갖춘 품종이라는 점이 자생춘란과의 차이점이다.

이번 개발한 아리울 품종은 정식 후 33개월

정도만 상품화를 할 수 있고 한국춘란 토종을 개발한 품종으로 저온에 강하며 농가에 서 일반춘란에 비해 재배에 부담이 적다. .

토종춘란을 육성한 신품종 아리울로 수출의 길을 열고자.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동양란을 대체 하려면 수입되는 동양란보다 월등한 품질의 명품난 이거나 가격면에서 저렴하여야만 수입난을 대체할 수 있다. 향기나는 춘란 아리울은 세계적인 브랜드 품종으로 될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춘란으로 선물용 주고 받기는 역시 가격이 문제이다. 어떻게 대량증식해서 농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묘를 공급 할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이며 향후, 수입되는 동양란 가격대에 맞춰서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육종할 유전자원이 너무 비쌌고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는 단점을 기회로 삼고

그 이유는 봄에 수정해서 가을에 파종을 하는데 포투리가 맺혀있는 동안에는 새싹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난과식물은 미숙과로 자연발아가 어렵기 때문에 가내 파종을 해야한다. 가내파종을 해도 바로 발아하는 게 1~2년 지나야 생강근이 형성 라이좀(당속줄기) 형태로 자라고 또 1~2년 난초의 모양을 갖춘 싹으로 발아하는 데까지 3년 이상이 걸린다. 원예성이 있는 품종은 선별하는데 보통 1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로 하는 문제가 있다.

난육종 데이터가 없기때문에 지금까지 300여 품종을 정밀 이것 저것 다 수정

일단 서로 다른 품종을 수정해서 싹을 틔워 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 한국춘란은 수정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데이터화에 어려움이 있다. 어떤 품종의 어떤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육종 기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지만 균일성, 원예성, 신규성, 재배성 및 대량생산이 가능한 품종을 찾는 것

은 너무도 힘들고 고된 연구였다. 배지 종류만 해도 100가지 넘게 시험을 하였고 초기에 가능성이 높은 품종이 발견되면 무균실에 들어가기 전에 복육을 하고 치상작업을 했는데도 3일만에 오염이 나서 버려야 할 때에는 그 허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육종은 사업은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기다림

누구나 사업을 하다보면 같은 문제에 봉착하지만 신품종 육종사업은 더 많은 시련과 고통에서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다. 품종만 개발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개인적인 생활을 자제하다보니 친구도 다 멀어지고 집انب, 기술보증에서 제기술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은행에서 신용보증으로 돈을 빌리고 결국 육종사업은 민자유종가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동양란을 대체하고 난수입국에서 난수출국으로 갈수 있는 우수한 춘란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난을 팔아 연구비를 충당하였지만 턱없이 부족해 뉴스에서나 들던 진짜 논팔고, 발팔고, 기술보증에서 기술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은행에서 신용보증으로 돈을 빌리고, 난육종 연구를 하였다. '1년만 더'라는 마음으로 한 해 한 해를 지나다 보니 어느덧 20년이 훌쩍 지나 있었다.

2014년 국내육성신품종대전

국내 육성 신품종 63점과 원종36점 총99점이 출품한 가운데 신품종생산자연합회 주최 2014년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KBS시청자 갤러리에서 개최한 '2014 국내육성 신품종대전'에서도 다수의 등록품종을 출품하여 원예계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신품종육성연구를 위하여 2013년 11월 29일 신품종육종생산자연합회 회원 중심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첨단방사선육종연구소에서 1박2일 후반기 워크숍 주최 등 신품종 육종연구에 열성적이다.

국내개발 향기나는 춘란을 컨셉으로 90%수입난에 의존시장 국산을 90%도전
신세대들이 기성세대로 들어오면서 향기문화에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오래전부터 향기나는 춘란을 개발하여 오늘 여기에 나온 것 같다. 앞으로 향기나는 춘란으로 컨셉으로 아리울, 줄리, 색동이 계속 육종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 위하여 전국 인터넷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명품 향기나는 춘란을 품격에 맞게 기존 리본 방식에서 벗어나 아리울 전용 분 및 나무택을 개발하여 사 용함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다.



가든인 잡지에 향기나는 춘란 신품종 아리울을 소개를 하게 되어 우리 토종의 유전자원을 바탕으로 선물용 난으로 수입되는 동양란을 대체하고 우리도 우리 브랜드로 난수입국에서 난수출국으로 가는 길에 이미 선진국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꽃과 함께 갈수 있어 감사드린다.





한여름 큰 꽃과 향기로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꽃

백합

백합은 여름에 적색, 주황, 백색, 분홍, 노랑, 외에도 다양한 색상으로 피며 몇몇 종은 향기도 가지고 있는 북반구 전역이 원산지인 백합과의 구근식물이다. 육종 기술의 발달로 겹꽃도 작출되고 있다. 한국의 기후에 매우 잘 적응하며 재배에 손이 덜 가고, 번식도 쉬운 편이라 키우기가 좋고 키와 꽃이 크고 아름다워 여름 정원에 빼 놓을 수 없는 구근 화초이기도 하다. 참고로 백합과 나리를 다른 식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백합은 100개의 조각이 하나로 합쳐진 것 같은 구근을 가졌다는 뜻을 가진 한자어이고, 나리는 백합의 순 우리말이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를 사용할 때 헷갈려하지 않아도 된다.



1 식재 정보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좋은 땅에 심는다.

백합은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좋은 땅에서 생육이 좋다. 생육 중 토양 양분 소비도 많으므로 심을 땅이 비옥하면 더욱 좋다. 음지와 비옥하지 않은 땅에서는 개화율이 낮아지고, 구근이 땅 속 깊이 위치하므로 배수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생육이 좋지 않으므로 그러한 장소는 피한다. 오리엔탈 계열의 백합은 한여름에는 오후에 그늘지는 장소에서 키우면 좋다.

백합 구근은 가을에 심으며 땅을 10~20cm사이를 파서 심고 뿌리를 넓게 펴고 양분 흡수가 많으므로 식재 간격은 30cm이상으로 하면 좋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구근은 작은치리가 되어서 봄에 팔리는 구근이므로 가정에 2년 이상 키운 구근은 가을에 심어 겨울의 작은을 받게 해야한다.



화분 재배 시에는 물이 30cm이상 화분에 있어 키우면 잘 자란다. 토층 나오는 지가 30cm이하인 물주론더 작은 화분에 심어 가꿀수 있으므로 화분 재배 시에는 키가 작은 물주론더 적극 활용하면 좋다.



2 백합의 분류

주로 3가지 계열로 나뉜다

아시아틱 - 튤파리, 참나리 등에서 작출된 품종들이다. 키는 대체적으로 1m를 넘지 않고 꽃은 주로 워나 옆을 향해 피며 향기가 없으며 색상이 매우 화사하고 밝은 편이다. 키우기는 쉬워서 고온에 강하고 번식이 잘 된다.

나팔나리 - 나팔나리 종류에서 작출된 품종들이다. 키는 1m정도 자라며 꽃은 주로 옆을 향해 피고 향기가 있으나 꽃 색이 백색 위주로만 있어 단조롭다. 키우기는 쉬운 편이다.

오리엔탈 - 일본 원산의 웅담나리, 산나리 등에서 작출된 품종들이다. 키는 50~150cm정도로 크고 꽃도 다른 계열보다 크며 주로 아래나 옆을 향해 핀다. 색상과 꽃 분위기가 매우 화려하며 향기가 매우 짙은 품종들이 많다. 여름 고온에 낙엽이 잘 지고 번식율은 다소 낮은 편이라 다른 두 계열보다는 키우기가 까다롭다.



3 비료, 물주기

양분 흡수가 많아 비료를 많이 주어야 한다.

백합은 뿌리를 깊고 넓게 뻗으므로 물주기에 그리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비료 요구량이 많으므로 가을에 퇴비를 듬뿍 주고, 씩이 트고나서 잎이 질 때까지 속효성 비료를 2~4주에 한 번 주면 좋다.

4 번식법

가정에서는 분구 번식을 주로 한다.

백합은 씨뿌리기, 분구, 인편삽으로 번식이 가능한데, 씨뿌리기는 개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가정에서는 좋은 번식법이 아니다. 인편삽은 백합 구근의 조각을 하나씩 분해하여 그 조각들을 흙에 묻는 것인데 한 번에 많은 포기를 얻을 수 있지만 개화구를 희생해야 하고 번식된 포기들이 꽃이 피려면 2~3년은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다. 분구는 번식율은 낮지만 개화구를 희생하지 않고 백합은 해마다 땅속의 줄기에 자구를 3~10개 정도 만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규모 재배에는 분구 번식이 좋다.

인편삽에 대해 소개하자면 백합 구근의 조각(인편)을 하나씩 분해하여 오목한 부분이나 인편의 뭉툭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게 하여 흙에 3~4cm깊으로 묻는 번식법이다. 영리재배시에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인편에 살균제를 처리하고 열로 소독한 질석에 묻기도 한다. 가을이나 초봄에 시행하는 게 좋고, 묻은 후 3개월 정도에 인편에서 아주 작은 구근이 생기기 시작한다. 영리재배 시 대량번식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번식방법이다.

5 백합의 월동

내한성이 매우 강하다

백합은 깊게 심는 구근식물이기에 추위에 매우 강하다. 정원에 백합을 적당한 깊이로 심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월동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화분에서도 중부지방에서 노지월동이 되기는 하지만 이상 환파가 올 수 있으므로 화분에 심은 백합은 0도 전후의 장소에서 월동시키면 좋다.

6 백합의 구근 관리

구근을 캐서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많은 종류의 구근식물은 높은 습도에 약해 구근을 여름에 캐서 보관하지만 백합은 장마에 잘 견디므로 그럴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구근이 건조에 매우 약하므로 옮겨심을 때가 아니면 캐지 않도록 한다. 백합은 건조에서 구근을 보호할 수 있는 겹질이 없어 공기 중에 1주일 이상 보관하면 구근 상태가 안 좋아지고, 1달 이상 보관하면 말라 죽는다. 구근은 땅에 심은채로 그대로 두는 것이 좋고, 꼭 구근을 캐서 보관해야 겠다면 촉촉한 수태나 모래에 넣어 보관하도록 한다.

백합은 토양 양분 흡수를 많이 하므로 한 곳에서 5년 이상 키우면 그 이후에는 생육이 좋지 않으므로, 심은 지 5년이 됐다면 가을에 구근을 캐어 새로운 장소에 심도록 한다.

여름철을 장식하는 귀족적인 꽃

야생나리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야생화는 소박하고 서민적인 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나리꽃은 원지모를 화려함과 귀족적인 멋을 풍기는 꽃이다. 엷드려 찾지 않아도 될만큼 키도 훌쩍 큰 나리꽃은 색상도 흰색, 주황색, 황색, 분홍색 등 종류도 많다. 순수한 마음으로 자연을 음미하면서 나리꽃들의 귀족적인 아름다움과 순결한 모습에 잔뜩 빠져본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하늘나리



글 사진 이명호
이명호의 야생화
<http://www.skyspace.pe.kr>



솔나리

여름철 산야를 화려하게 수놓는 꽃

야생 꽃들이 한동안 뜸한 여름철 산야를 화려하게 수놓는 꽃이 바로 야생나리들이라 할 수 있다. 엷드려 찾지 않아도 될 만큼 키가 큰 나리의 꽃은 화려하기도 해서 사람들 눈에 쉽게 잘 띄는 편이다. 대부분의 야생화는 그저 소박하고 서민적이라 할 수 있지만, 나리 종류들은 야생화이면서도 왠지 화려하고 귀족적인 멋을 물씬 풍기는 그런 꽃이다.

개화 시기별 특징

전국에 퍼져 자라긴 하지만 분포하는 종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개화 시기도 종류별, 고도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야생나리 종류는 대략 18종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6월부터 8월까지 한여름에 꽃이 핀다. 위도와 상관없이 전국 각지에 두루 자생하는 나리는 털중나리(6월)·하늘나리(7월)·참나리(8월)라 할 수 있고, 해발고도와 상관없이 산기슭부터 능선까지 피는 나리는 털중나리라 할 수가 있다.



털중나리

6월에 일찍 피는 나리는 털중나리를 비롯하여 하늘나리, 북부지방의 날개하늘나리와 울릉도의 섬말나리·민섬말나리가 있다. 꽤 귀한 편이라 할 수 있는 중나리와 땅나리는 식물도감조차 사진이 잘못 실려 나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7월에 피는 나리는 하늘말나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나리들이라 할 수 있는데, 말나리·지리하늘말나리·누른하늘말나리·땅나리·노랑땅나리·솔나리·큰솔나리·흰솔나리 등이다. 솔나리는 귀하다고 하여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식물 II 급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이보다 더 귀한 것은 남부지방의 노랑땅나리, 백두산의 큰솔나리, 높은 산지에서 간혹 볼 수 있는 흰솔나리·검솔나리 등으로, 이것들은 정말 찾기 힘든 희귀종이다.

8월에 피는 야생나리는 중나리와 참나리 두 종류로 파악이 된다. 중나리는 경기도 동북부 지역 일부와 강원도 북부 지역의 제한된 지역에서만 자라는 반

면, 참나리는 지역 구분 없이 전국에 고루 퍼져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참나리는 키도 크고 넓게 분포하면서 개체수도 많기 때문에, 한국의 야생 나리를 대표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또한 중나리와 참나리는 들판이나 비교적 낮은 산지의 계곡에서 자라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노랑참나리

야생나리의 분류

야생나리류는 식물계 > 피자식물문 > 단자엽식물강 > 백합목 > 백합과 > 나리속으로 분류가 된다. 나리속 식물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분류를 하는 데에는, 잎차례, 꽃이 피는 방향, 꽃의 색깔, 꽃잎의 반전, 식물체의 크기, 털의 유무, 잎의 모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줄기에서 돋는 잎이 모두 어긋나는 호생나리 종류로는 털중나리·하늘나리·날개하늘나리·땅나리·노랑땅나리·솔나리·큰솔나리·흰솔나리·중나리·참나리 등이 있다. 밑의 잎은 돌려나고 그 위에서 작은 잎이 어긋나는 윤생나리 종류로는 말나리·섬말나리·하늘말나리·지리하늘말나리·누른하늘말나리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섬말나리는 윤생하는 잎이 2층 또는 3층인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꽃이 필 때 하늘을 향해서 피는 종류로는 하늘나리·날개하늘나리·하늘말나리·지리하늘말나리·누른하늘말나리가 있고, 엷을 향해서 피는 종류로는 말나리·섬말나리·중나리·털중나리·참나리가 있다. 땅을 향해서 피는 종류로는 땅나리·노랑땅나리·솔나리가 있다. 나리들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하늘나리·중나리·땅나리'라는 방식의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나리속 식물들의 꽃 색깔은 대부분 주황색인데 비해서, 솔나리는 분홍색, 흰솔나리는 흰색, 검솔나리는 흑자색, 섬말나리와 누른하늘말나리는 짙은 황색, 노랑땅나리는 밝은 황색으로 꽃이 피는 점이 다르다.



섬말나리

하늘나리

흰솔나리

말나리



참나리



큰솔나리



땅나리

꽃에 얽힌 전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리따운 처녀가 살고 있었다. 마침 그 고을에는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원님의 아들이 있었다. 하루는 원님 아들이 그 처녀를 보고 반해 버려 그녀를 강제로 희롱하려 했으나, 처녀가 끝내 자결로서 순결을 지켰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원님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녀를 양자바른 곳에 묻어 주었는데, 그 곳에서 흰 꽃이 자랐다. 원님 아들은 그 꽃을 거두어 자신이 고이 길렀는데, 이 꽃이 바로 나리꽃이다. 그래서 나리꽃의 꽃말은 바로 '순결'이라고 한다. 7월은 피서의 계절이다. 강과 산을 찾아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얽매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연을 음미하면서 나리꽃들의 귀족적인 아름다움과 순결한 모습에 잔뜩 빠져본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다육 식물 취미 재배를 위한 환경 함께 하는 다육이~



글 사진 강석정 호지원대표

식물 성장의 3요소가 빛, 물, 공기라는 것은 누구나 알것이고 여기에 어떤 용도에 어느 화분을 선택할 것이지도 고민 거린다. 더구나 비료는 얼마만큼 주어야 하는지, 병충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분을 갈아 주거나 뿌리나 줄기를 정리할 때, 잡초를 제거해주어야 할때도 기본적인 원예용품도 준비해 두면 편리하다. 대부분의 다육식물이 CAM식물(Crassulacean acid metabolism)이며 일반적인 C₃식물처럼 주간(주간)에 동화작용을 하는게 아니고 주간과 야간(야간)에 상황에 따라서 동화작용을 한다고 한다.

선인장은 대표적인 CAM식물이라 주로 야간에 동화작용을하여 이산화탄소를 소비하고 산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겨울철에 연탄을 피우는 실내에서 선인장을 많이 기르게 되었다한다.



서미는 (Sinocrassula yunnanensis)

위조점 : 토양 중의 수분이 감소할 때 수분을 주면 위조가 회복되며 이 시점의 토양 수분 함량을 초기 위조점이라 하고, 그 후 토양수가 감소해서 영구히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점의 토양 수분 함량을 영구 위조점이라 한다.

식물을 실내에서 잘 기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벌이 잘 드는 곳에서 식물을 기르고 몇 개씩 번갈아 가면서 실내에 놓아 둔다면 식물이 망가지는 것도 어느 정도 방지가 된다.

물주기 : 다육식물은 식물체내에 물을 저장하고 있고 한낮에 잎의 기공을 닫고 있기에 수분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는 식물이다. 물 주기도 일반 관엽식물처럼 많이 주지 않아도 된다.이런 이유로 게

햇빛 : 다육식물은 햇빛을 좋아 한다. 무조건 광선이 강하면 안된다. 햇빛이 강하면 통풍이 잘 되어 식물이 햇빛에 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대개 18℃~25℃에 잘 자라는데 장마가 끝난 후 고온다습한 계절에 많이 물려서 죽는다. 대개 말복이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온이 되면 잘 자라게 된다.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다육식물은 햇빛이 없다면 키우지를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일조량과 일사량을 햇길려 하는데 적당히 강한 햇빛으로 오래도록(?) 해가 비추면 좋다고 하겠는데 경험으로 봐서 하루 6시간 정도면 그런대로 훌륭히 키울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를 쬌 시간이 적어진다면 물을 적게 주어서 못자람을 최대한 막아 주어야 한다. 다육식물은 타 식물보다 위조점이 높아 장기간 물을 주지 않아도 잘 버텨주는 것이 장점이라 생각된다.



이젤라 (Haworthia isabella)

은 사람들이 키우기 좋다고도 하지만 모든 다육식물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물의 양은 천차만별 달라짐을 꼭 알아야한다. 제일 주요한 것은 다육식물이 언제 휴면을 하며 지금 휴면중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알고 물을 주어야 된다. 리튬스와 같은 고도다육이나 그라노비아와같이 여름에 휴면하는 종은 장마 전부터 서서히 단수하여 한여름엔 스프레이나 적은 양의 물을 주도록한다. 어느 정도외경지에 오면 마니아들은 식물의 생장점 부근만 보아도 금방 알수 있다. 물주기는 조금씩 주는 것으로 충분하며 가끔씩 화분 밑으로 물이 나올 정도로 흠뻑주어 화분속의 불순물이나 골고루 수분이 공급될수 있도록 한다. 물주기는 기온이 오르기전인 아침에 주고 여름철 고온기엔 오후 3~4경에 준다.특히 겨울철 기온이 오르기전에 물을 주고 참바람을 쐬어 동사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하워치아(Haworthia cooperi var. obtusa)

저온처리¹ : 구근류나 화목류 등에서 화아 분화나 영양 생장을 인위적으로 유발하기 위하여 낮은 온도에 일정 기간 두는 것.

야간온도² : 겨울에서 장기간 물을 주지 않고 기르게 되면 다육식물은 안토시아닌의 발현으로 잎의 색이 발간색을 띄우며 아름다운데 인위적으로 장기간 물도안주고 겨울에 노출시키면 각지열레가 거기거나 나중에 정상적으로 다시 키울때 중이 지기도 한다. 위조점이 가까워지면 물을 주어도 깨어나지도 않고 죽게된다.

이러한 이유로 다육식물을 재배할 때 조그마한 온실이 있다면 동형(冬型): 겨울에 잘 자람)과 하형(夏型):여름에 잘 자람)을 구분하고 햇빛을 좋아하는 강약의 종을 구분하여 배열하면 좋을 것이다.

비좁은 공간에 많은 다육식물을 기르코자 한다면 비교적 소형종을 수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科), 속(屬)을 구분하여 수집재배 하면 한층 재미를 더할 것이다. 굳이 가격을 비싼 희귀종이나 돌연변이로 보여주기 위한 재배가 아닌 진정한 자신만의 취미를 위한 재배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신령옥

환기 : 다육식물은 아파트 베란다와 같은 공간에서 비교적 기르기가 쉽다. 하지만 창문을 닫은 베란다는 한낮의 온도가 40~50℃가 넘게 되므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잘 시킨다. 남향집이라면 햇빛이 강하므로 차광해 주어야 하는데 경험상 창호지 정도의 차광이면 훌륭하다.

온도 : 다육식물은 비교적 저온에 강하다. 저온에 강하다는 것이 저온에 잘 자란다는 것은 아니다. 종에 따라서는 원산지가 영하 20℃ 이상 내려가는 곳에서도 월동이 되는 것도 많다. 바위솔이나 와송처럼 겨울에 휴면하는 종은 저온처리¹가 15일 이상되어야 봄에 좋아지며 야간기온이 12℃정도라면 최고의 온도이다.주간과 야간의 온도차가 10~15℃일때 다육식물은 잘 자라며 한겨울 야간온도²가 5℃가 된다 해도 잘 견디어 낸다.

기본구조사용방법

작은전정가위로
굵은 구근 꽃대
잘라주기 (1)

2014 초화, 야생화, 채소종자 TOP 11



꽃이 저도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에키나세아
솔방울 이삭이 아름다워 절화로 좋습니다. 다년생으로 매년 만나볼 수 있는 분홍 에키나세아
■ 초장 : 60~70cm, 파종 : 3~4월, 개화 : 6~8월, 5g : 3,000 원



바람에 날아가는 나비 같은 풍접초
꽃 피기전 실태모양으로 꽃술을 꽃잎에 싸고 개화하면서 풀어놓는 모습이 아름답다.
■ 초장 : 60~70cm, 파종 : 3~7월, 개화 : 6~10월, 5g : 1,500 원



매우 화려하여 축제에 많이 이용되는 양귀비!
귀하의 집앞에 축제를 재현해보세요. 추파용 종자로 가을에 씨앗을 뿌려야 다음 해에 크고 건강한 양귀비꽃이 개화됩니다.
■ 초장 : 70~100cm, 파종 : 10~11월 초, 개화 : 5~6월, 5g : 3,000 원



빠르게 꽃을 피워내는 코스모스 빅스타사계!
파종 후 60일후에 개화되어 작고 귀여운 코스모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초장 : 60~80cm, 파종 : 3~7월초 개화 : 6~10월, 5g : 3,000 원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에 좋은 브로콜리!
식이섬유 뿐만 아니라 비타민C도 풍부하여 피부관리에 탁월합니다. 실내보다는 실외 재배가 좋습니다.
■ 파종 : 3월 또는 7월, 15~20℃로 관리, 장마철 주의, 10립 : 1,000 원



눈 건강에 가장 좋은 채소 근대!
뿐만아니라 골다공증예방 및 항암효과에 탁월합니다. 초보자가 기르기 쉽습니다.
■ 파종 : 3월, 이식 : 4월, 수확 : 6~11월, 1g : 2,000 원



금연 도움을 주는 케일
니코틴 제거 효과가 뛰어나 금연 계획을 세우신 분에게 매우 좋습니다. 호냉성 채소로 추위를 잘 견뎌 겨울까지 실외 재배가 가능합니다.
■ 20립 : 1,000원



산후 조리에 좋은 노란 호박!
이뇨작용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어 산후 붓기 빠지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발아율이 매우 좋습니다.
■ 3립 : 3,000원



노화를 예방해주는 고마운 빨간무(비트)
파종 후 20일 만에 수확 가능합니다. 실내,외 어디든 잘 자랍니다.
■ 1g : 2,000원



흠 없이 기르는 새싹채소!
씨앗을 하루정도 물에 불렸다가 물 적신 솜위에 뿌린 뒤 5~7일이면 바로 수확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 1g : 1,000원



봄~가을까지 계절따라 다르게 연출되는 26종의 야생화
26종의 종자가 혼합되어 개화시기에 따라 다양한 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년생 종자로 이루어져 매년 관상이 가능합니다.
■ 파종 : 연중가능 | 50g : 15,000원

부피생장과 길이생장

황금조팝, 꽃나리

정원에 볼륨감을 주면서 디자인을 풍요롭게 하는 팁 중에 하나가 부피와 길이가 다양한 수종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중에 초여름에 아름다운 황금조팝과 꽃나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황금조팝 *Spiraea japonica* 'Gold Mound'



꽃나리 *Lilium brownii* var. *colchesteri*



▲초여름 정원에 리듬감을 주는 꽃나리



◀황금조팝과 톱풀 사이에서 꽃나리가 우뚝 올라와있다.



▲황금조팝과 옥잠의 다양한 볼륨감을 볼 수 있는 혼합식재



▲키가 크게 자라는 조팝꽃든바와중간키의 톱풀비단(*Achillea millefolium* 'Red velvet')과 코레우리문밤 그리고 옥잠파레(*Hosta hybr.* 'Shade Fanfare')가 어우러지는 혼합식재

황금색 잎이 특징적인 황금조팝은 노란색 색소가 많은 잎이 천천히 성장하면서 가로로 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면서 dorm형식(원형)으로 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백합은 구근식물로 직선으로 키가 크면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알뿌리(구근)를 통해 생장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톱풀이나 수선화, 무스카리를 생각해보면 같은 구근식물로 꽃대가 수직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든인 양자선기자

키와 부피가 다양한 식물들을 심어서 풍성한 볼거리를 주는 정원을 꾸며보세요.

정원을 즐기는 방법

'나도 디자이너!~' 소품을 디자인해 보자.



정원을 만들고 그저 식물과 물만 뿌려 주는 것이 아닌 작더라도 아기자기한 멋을 낼 수 있는 소품을 가지고 꾸며 놓으면 좀더 많은 애착이 가는 장소가 되는 것이 틀림없다. 이번 호에서는 서수현 가든디자이너의 소품을 이용한 디자인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만드는 키친가든 어떻게 변화 할 수 있을까?

글 사진 서수현 가든디자이너



우리나라의 텃밭의 형태는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 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가 튼실하게 열리게 하기 위해 디자인 되어있다. 잡초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을 씌워주는 멀칭을 하고 관리가 쉽게 일렬로 쪽 심어 놓는다. 하지만 유럽의 키친가든의 경우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울타리로 높이를 높여주는 Raised bed(높여준화단)를 만들어 관리하는 사람이 허리를 덜 구부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거나 거름을 주는 양을 조절하기 위해 경계를 만든다. 채소나 열매를 맺는 식물들은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Raised bed엔 채소와 같이 먹거리를 심고 그 주변으로는 꽃을 심어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정원을 디자인한다.

키친가든의 경우 raising bed라고 하여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채소를 식재한다. 이렇게 하면 거름을 주는 양도 조절이 쉽고 허리를 많이 구부리지 않아도 쉽게 정원을 관리할 수 있다



키친가든에는 어떤 소품들이 쓰일까?

Raised bed의 재료로는 전지 혹은 전장을 통해 생긴 나무 가지들 혹은 말채 나무와 같이 가늘고 긴 줄기를 가진 나무들을 이용하여 자연소재로 틀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혹은 데크로 쓰이는 방부목이나 벽돌등과 같이 화단을 만드는 재료들도 이용된다.

Gardenin

Props

Tepee trellis(원뿔, 격자형 구조물)

원뿔형 혹은 격자형 구조물로 덩굴성 식물을 키우는데 쓰인다.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것 있지만 목재나 철 혹은 구리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형태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 예술가들이 만든 구조물도 사용하여 키친가든 또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도 한다.



도자기 콜드프레임. 보온이 잘되고 통기성도 있어 식물을 보호하는데 유용하다. 위쪽에는 뚜껑이 있어 프레임 전체를 옮기지 않아도 인접을 볼 수 있다

이름표

어떤 식물을 심었는지를 알려주는 이름표. 아이들과 함께하는 정원놀이를 할 때 어떤 식물인지 알 수 있어 좋고 식물의 생김새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 관찰 할 때에도 구분하기 쉬워 좋다. 꼭 이름표라고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온 나무막대기나 두꺼운 나뭇가지를 반으로 자른 것을 사용해도 좋다.



정원에서 자라는 말채나무와 같이 줄기가 가늘고 긴 나무를 이용하여 토마토나 덩굴성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소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사용하면 좀더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할 수 있다

Cold frame(추위보호 소품)

콜드 프레임은 연약한 식물 혹은 새로 싹이 돋고 있는 식물을 추위나 바람에서 보호해 주기 위해 만든 소품이다. 유리, 도자기 등 재료는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한데 식물을 덮어주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디자인이면 상관없다. 보통 종모양으로 생긴 것이나 고깔 형태가 많다.



종모양 콜드프레임. 식물이 자라는 모양을 볼 수 있어 좋으며 작은 새싹이 자라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식물을 심은 앞쪽으로 이름표를 만들어 꽃이두었다. 식물을 구분하기에도 좋고 식물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

허수아비

새를 쫓을 때 사용되었던 허수아비는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사람의 형태로 만드는 것은 같다. 아이들과 함께 한 옷을 가지고 허수아비를 만들어 보는 것도 정원놀이로 좋은 방법이다.

정원 의자

정원에 놓이는 의자나 테이블 같은 것들은 정원용품품을 파는 곳을 가면 쉽게 살 수 있지만 나만의 정원을 만들거나 저렴하게 만들고 싶을 때에는 자신의 정원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창고형 마트가 성공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DIY코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인건비가 비싼 외국의 경우, 집안 곳곳을 직접 손보지 않으면 돈이 쑥쑥 나간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난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직접 부품을 사서 집안을 손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국의 경우, 특히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가정의 가정들은 뒤뜰에 창고를 만들어 놓고 남자들만의 소품들을 모아놓는다. 취미 생활 삼아 가구는 정원도 마찬가지이다. 집 근처에 있는 가든 센터에 가면 무엇이든 정원에 관련된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정원을 즐길 수 있다. 우리나라도 손수 정원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선 쉽게 만들 수 있는 키친가든부터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소품을 이용한다면 아끼기하고 예쁜 정원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정원 의자. 요즘엔 DIY를 위해 목재도 잘라서 배송해 주기 때문에 디자인만 생각해 낸다면 만드는 것이 힘들지는 않다. 혹은 만들기를 못한다면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스케치만 해서 목공소에 들고 가면 만들어 주기도 한다.

가든인에서 알려드려요

Gardenin Reporter



햇빛이 잘 드는 양지 공간에 심어져 생육환경에 적합하지 못하다. 엽록소가 줄어 노랗게 변했다.

큰나무 밑에서도 자랄 수 있어 그늘을 좋아하는 호스타이다. 그늘은 호스타의 생육환경에 적합해 호스타 종에 따라 품종 고유의 색상을 발현한다.

호스타에게 그늘을 양보하세요!

뜨거운 햇볕 안녕~ 시원한 그늘이 좋아

황록색의 식물은 엽록소가 많기 때문에 그늘에서 키워야 잎이 색이 진하고, 잘 자란다.



옥잠 골든티아라
Hosta hybr. 'Goldentia'



옥잠블루엔젤
Hosta hybr. 'Blue Angel'



옥잠 알보마기나타
Hosta x undulata 'Albomarginata'



옥잠엘레강스
Hosta Sieboldiana 'Elegans'

우리 연못 건강하게 관리하기

건강한 연못과, 건강하지 않은

연못 전격 비교



그늘이 있는 음지공간에 조성된 연못

햇빛을 강하게 받는 보법은 이끼가 만들어졌으며, 식물들 통해 그늘이 만들어진 외곽 부분은 깨끗합니다. 연못에도 그늘이 필요하다는 것 참고해주세요 ^^



햇빛이 잘 드는 양지 공간에 조성된 연못

연못에 그늘이 없다면 전반적으로 이끼가 많이 끼어있습니다.

틈새 공간을 활용한 미니 텃밭

텃밭관리 2년차 실용적인
상추텃밭 가꾸기

지난해 옥상에 미니 텃밭을 가꾸면서 겪은 실패를 교훈삼아 다시 나만의 텃밭 만들기에도 시도했다. 지난해 옥상 텃밭의 가장 큰 실패요인은 '과유불급'. 한꺼번에 너무 많은 작물에 욕심을 내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름철 가장 자주 먹게 되는 상추에 포인트를 맞춰 새롭게 텃밭을 가꾸기를 시도했다.

글 사진 김지태

잡초뽑기와 흙고르기

겨울을 넘기고 봄이 지나는 동안 방치되어 있던 옥상 텃밭은 가관이 었다. 빈 텃밭에 제멋대로 뿌리를 내린 망초가 어느새 나무처럼 튼튼한 줄기를 뽐내고 꽃을 피우고 있었고, 고들빼기처럼 생긴 악센 잡초들이 번식하고 있었다. 돌보는 이 없이 홀로 자라 꽃을 피운 건 가상했지만 텃밭을 만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 뽑을 수 밖에 없었다. 악센 잡초의 뿌리까지 다 캐낸 후 흙의 절반 가량을 버리고 새로운 상토를 섞었다. 여기에 토양 영양제를 섞고 물을 줘 비옥한 흙으로 만든 후 상추 씨앗을 뿌렸다. 지난해 상추 재배에 실패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씨를 너무 많이 뿌렸다는 것이다. 혹시나 안 자랄까 하는 마음에 3~5개씩 그것도 좁은 간격으로 뿌렸는데 그제 오히려 성장과 발육에 방해가 된 것이었다. 이번에는 간격을 여유있게 띄워서 2~3개씩만 알뜰하게 뿌렸다. 보통은 발아트레이를 이용해 발아시킨 후 옮겨 심기도 하는데 지난해 그냥 파종해서 발아에 성공했기에 이번에도 바로 텃밭에 파종을 시도했다.

공터 한켠을 활용한 미니텃밭

상추 파종시기는 3월 말경이 좋다고 하는데 서울에서도 꽃이 늦게 피는 북쪽 산자락이라 그런지 발아도 잘 되는 편이었다. 발아된 새싹 중 튼실한 싹만 남기고 덜 자란 것들은 미련없이 솎아냈다. 상자텃밭을 다 채우고 남은 씨앗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집 근처에 버려져 있는 공터 한켠을 텃밭으로 활용해 보기로 했다. 공터 귀퉁이 약 1m * 1m 정도 흙의 잡초들을 제거하고 자갈들로 담을 친 후 미니 텃밭을 만들었다. 잡초와 돌멩이들을 제거한 자리에는 상토와 토양영양제를 섞어 흙을 고르게 했다. 옥상 상자텃밭에 비해 제법 여유로운 공간이 생기자 다른 작물을 심어볼까 하는 욕심도 들었지만 더 욕심부리지 않고 상추 하나에 집중하기로 했다. 마트에서 파는 '모듬 쌈채소'가 개인의 미니텃밭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재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해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다.

조그만 텃밭에서 나눴던 즐거움

지난해에는 상추를 뜯을 때 대부분을 정확히 안 뜯어서 줄기가 지저분하게 남곤 했다. 보기에 안 좋을 뿐더러 미백효과가 있다는 상추의 하얀 즙도 그냥 버리게 된다. 상추를 뜯을 때는 그냥 쥐어 뜯기 보다는 상추대 끝부분을 따는 생각으로 줄기 가까이 따 주는 것이 좋다. 튼실하게 자라는 몇몇 개는 밑단의 이파리들만 따 주면서 꽃을 보고 씨앗도 받아보려고 한다. 저렴한 가격에 수백립을 구입할 수 있는

씨앗이지만 자기가 기른 채소에서 소중하게 씨앗을 받는 일도 텃밭가꾸기의 묘미 중 하나이리라.

조그만 미니텃밭이지만 이곳에서 자란 상추는 우리 가족이 충분히 먹고도 많은 양이 남는다. 직접 기른 상추를 싱싱한 상태에서 먹는 재미도 좋지만 친지나 이웃들과 나누는 재미도 텃밭을 가꾸는 큰 낙이다. 종묘상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부담없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씨앗 몇 개로 여름철 식단을 풍성하게 하고 나눴던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진정한 시티 팜(City Farm)의 즐거움이 아닐까.

공터를 활용한 미니텃밭 만들기 팁

TIP TIP TIP!!!

1 흙을 충분히 골라야 한다.

흔히 농사를 짓기 위해선 땅을 개간해야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정도 거창한 개념은 아닐지라도 흙을 작물 재배에 적합한 땅으로 골라줘야 한다. 산도조절제같은 전문적 방법까진 아니라도 상토와 비료, 영양제 등을 섞어 흙을 골라준다.

2

2 잡초는 보이는대로 뽑아준다.

잡초의 뿌리는 생각보다 역세고 깊어서 보이는 즉시 뽑아주는 것이 좋다. 방치하고 그대로 두면 잡초꽃을 보는 재미도 있긴 하지만 크게 자란 잡초를 한꺼번에 뽑는 일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3 고추나무에는 지지대가 필수

고추는 텃밭이 없어도 화분 등을 이용해 손쉽게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작물이다. 씨앗발아기 어려우므로 보통 묘종을 사다가 심는데 나무 줄기에 힘이 없으므로 옆에 튼튼한 지지대를 세우고 끈으로 묶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4

4 키친가든에 욕심부리지 않는다.

텃밭을 가꾸다보면 채소도 기르고 꽃도 보겠다는 욕심이 들 수도 있다. 작은 공간에 화초와 채소류를 함께 심는 것은 무리이다. 식물마다 일조량과 습도, 그리고 선호하는 흙의 산도 등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작은 텃밭에서 화초류를 함께 키우려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작물의 성질과 맞는 화초류를 특별히 선택해서 화분과 텃밭을 구분해 놓고 심어야 한다. 채소류도 마찬가지. 가능한 같은 공간에 여러 작물을 함께 키우지 말고, 함께 키울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키우도록!



2

2 미니 텃밭일지라도 하나의 생태계다.

아무리 조그만 텃밭이라도 완전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벌이 날아오고 거미와 이랑모를 곤충들이 나타나고 땅을 파 보면 지렁이가 보일 때도 있다. 이때 징그럽다고 이들을 죽이거나 갖다 버리지 말자. 우리의 텃밭을 함께 가꾸는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여유있게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단 진딧물 등 식물에 치명적 해를 입히는 해충은 악을 써서 제거해야 한다.



여름날 무더위를 식혀주는

오이



여름 음식의 대명사는 역시 오이가 들어간 음식들이었다. 그 중 오이와 얼음 동동 띄워진 오이냉국은 생각만으로도 땀이 쏙 들어가는 기분이 든다. 상큼하고 시원하며 등산할때 필수품인 수분함량 최고 식품 오이. 안완식 박사님이 들려주시는 오이는 또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궁금해진다.



글 사진 안완식 토종씨드림 대표



오이꽃(수꽃(좌), 암(우))



벌써 30여년은 지난 이야기이다.

콩알 한 개가 한입에 잘 것 같이 커 한아가리콩이라고 이름 붙여진 강원도 특산의 메주콩을 보여준 홍천군 내면 창촌리의 홍순녀(61) 아주머니, 혹시 토종 오이종자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시치미를 떼다가 구겨진 신문지 조각으로 쓴 20여 알 정도 되는 하얀 오이씨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닭이 발을 절면 몇 알씩 먹이려고 발에 심고 남겨 놓은 것이 조금밖에 없어서 절대로 줄 수는 없다는 종자를 겨우 겨우 분양 받아 왔다. 40여 년 이상을 재배해 온 이 오이종자는 한여름이나 되어서 몇 마디 건너 드물게 열리며 길이가 짧고 주름이 거의 없으며 익세지 않은 가시가 나 있는데 색깔은 거의 백록색이다. 오이지를 담그기에 알맞고 늙으면 큰 것이 20cm 정도 되는 통통한 누런색의 노각이 되는 남방계 오이다. 요즘의 오이는 맛이 없기 때문에 이 토종 오이를 몇 평씩 재배하여 집에서 식구들이 먹고 친척들이 오면 나누어 주기도 한다고 했다.



가평토종오이

3,000여 년 전부터 이미 인도에서 오이가 재배되어 왔다. 인도의 북부 또는 네팔의 히말라야가 원산지라 지금도 원산지에서는 달걀 정도의 모양

강원도 홍천군 내면의 홍순녀 아주머니가 40여년을 재배 해온 토종오이



과 크기를 가진 야생종이 발견된다. 광주광역시 신창동에서 발굴된 기원 전 1세기경의 생활 유물 중에서 오이씨가 나왔다는 사실은 삼국시대 이전에 이미 오이를 많이 먹었음을 짐작케 한다. 오이는 '외' 또는 '물외'라고도 부르며 오랑캐 땅인 서역에서 들어왔다 하여 호과라고도 하고 또 늙어서 껍질색이 누런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황과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재배오이는 전국의 각 지방에서 물외로 불려 왔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오이는 북중국형과 남중국형으로 나뉜다. 북중국형 오이는 줄기가 가늘고 마디 사이나 잎자루는 길며 초세는 약한듯하지만 내서성이 강하다.

오이는 가늘고 길며 농록색이 대부분이다. 중화요리에 많이 이용되는 청록색의 긴 오이이다. 과실 표면에 있는 가시는 백 가시이고 과일이 익으면 황색을 띤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옛부터 오이소박이나 오이치를 담가먹던 토종 오이는 남중국형으로 줄기는 굵고 잎도 대형이다. 과실은 굵고 짧으며 성숙하면 갈색이고 네트가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가평토종오이, 곡성오이, 대화오이, 완주오이, 제주오이, 진부오이, 청주오이, 평창조선오이 등이



청주오이



제주토종오이

다.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에 들어 온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피클용 오이 중에는 괴산군 연풍면의 백오이나 완주군 화산면의 굴러온오이 등도 있다.

토종오이는 약간의 감미가 돌면서 아삭하고 맛있으며, 오이의 꼭지에는 쓴맛이 많은데, 그 성분은 쿠쿠르비타신 A,B,C,D이다. 쿠쿠르비타신 C는 악성 종양의 성장을 저지하는 작용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간염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오이뿌리는 설사나 이질, 상처로 인한 염증을 치료한다. 오이의 줄기는 해독의 효능이 있으며 몸의 깊은 부분에 생기는 화

농성 종창을 치료한다. 또 잎은 설사, 이질, 식체를 치료하고 어린아이가 젖이나 음식에 체해서 뱃속이 끓고 열이 나며 토하고 설사할 때 치료제로 쓰인다. 그러나 비타민 C는 산화하는 효소가 들어 있으므로 다른 채소와 섞어서 주스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오이 마사지는 여성들의 미용에 한 몫 하는데 오이의 즙을 내어 달걀노른자와 밀가루를 섞으면 좋은 영양팩이 되기도 하니 오이는 좋은 먹거리이면서 그 용도도 다양한 채소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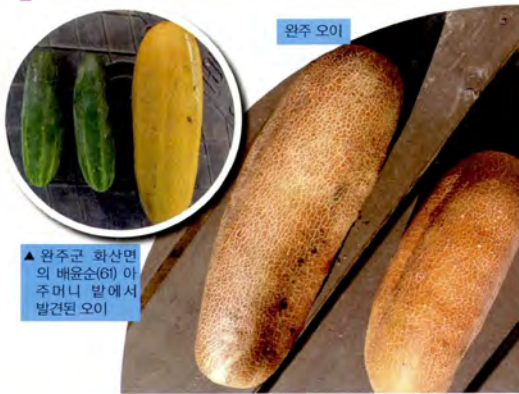
평창조선오이

곡성오이_노각

노각은 늙은 오이를 말하는데, 술지게미에 켜켜이 박아 두었다가 꺼내 먹으면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이다.

재료 : 노각(늙은오이) 5개, 술지게미 10컵, 고추씨 1컵, 소금 1컵, 술 2큰술

1. 고추씨를 믹서에 곱게 갈아 술을 거르고 난 술지게미, 술과 함께 고루 섞어 놓는다.
2. 술지게미에 소금을 조금 뿌려 골고루 섞어 간이 배게 한다.
3. 노각은 깨끗이 씻어 반으로 잘라 씨를 긁어 낸다.
4. 씨를 긁어낸 노각은 소금물에 절여 1~2일간 햇빛에 널어 물기가 없도록 한다.
5. 항아리를 준비하여 술지게미 한 컵, 노각 한 컵씩 켜켜이 담고 뚜껑을 덮어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6. 완전히 익으면 꺼내어 물에 씻어 얇게 썰어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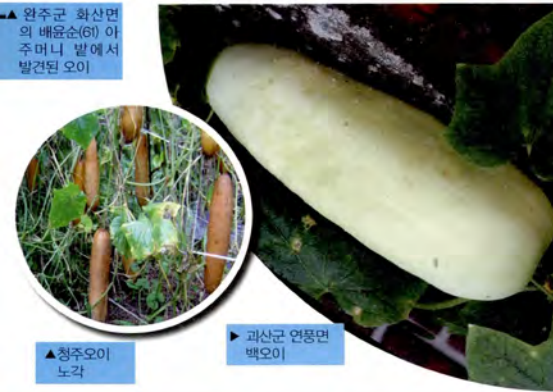
완주 오이

▲ 완주군 화산면의 배윤순(61) 아주머니 밭에서 발견된 오이



곡성오이 종자

곡성오이 노각



▲ 청주오이 노각



▶ 과산군 연동면 백오이

대화오이

대화오이 (가시없음)

오이 뱃두리



시원한 맛과 향이 물씬 풍기는 오이로 나물을 해 먹는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다진 고기를 보슬보슬하게 볶아 오이와 한데 섞어 볶아내는데, 이것을 오이뱃두리라고 하며, 씹게는 오이만 알파하게 썰어 소금에 절였다가 물길르 꼭 짜서 볶는데 아자작 씹히는 맛이 좋다.

재료 : 오이 1개, 소금 1큰술, 참기름 ½큰술, 쇠고기 50g, 진간장, 설탕 1작은술씩, 다진 파, 다진 마늘 1작은술씩, 참기름, 깨소금 조금씩, 식물성 기름, 실고추, 통깨 조금씩

1. 소금에 절인 오이가 나른해지면 자루에 넣거나 깨끗한 면행주에 싸서 물기를 꼭 짰다.
2. 팬에 참기름 1큰술을 둘러 뜨거워지면 물기 짰 오이를 넣어 센불에서 재빨리 볶아 바로 접시에 담아 차게 식힌다.
3. 뜨겁게 달군 팬에 기름을 조금 두르고 양념한 고기를 국물 없이 보슬보슬하게 볶는다.
4. 고기가 익으면 볶아 놓은 오이를 넣고 함께 살짝 볶은 후, 실고추와 통깨를 넣어 고루 섞어서 즉시 그릇에 옮겨 담는다. 다 볶아진 오이뱃두리를 팬이나 냄비에 그대로 두면 남아 있는 열 때문에 너무 익어 물렁해져서 맛이 없다.

오이는 급하다고 덜 절여진 것을 볶으면 풋내가 나므로 나른하게 충분히 절인 후에 물기를 꼭 짜서, 센불에서 재빨리 볶아야 푸른 색도 선명하고 아삭아삭 씹히는 맛도 더해진다. 또한 오이가 너무 짜게 절여졌을 때는 물에 가볍게 헹구어 물기를 꼭 짜도록 한다.

생활 속의 민간요법



완주군 화산면의 배윤순(61) 아주머니 밭에서 몇년 전 우연히 발견된 굴러온 오이

혈액순환 및 숙취해소

뛰어난 알칼리성 미네랄 식품인 오이는 피를 맑게 만들어 주고 몸 안에 쌓인 불순물과 쓸 데 없는 염분까지 배출시켜 주는 이뇨 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장염처럼 몸이 붓는 질병이나 고혈압, 신장병, 비만증 등에 좋고 숙취도 잘 풀어 준다.

이뇨작용

소변이 시원치 않고 몸이 잘 부을 때는 오이 한 개를 식초에 꼭 삶은 다음 국물을 꼭 짜내서 하루에 세 번씩 마시면 증상이 많이 나아진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냉증이나 저혈압, 빈혈이 있는 사람이 오이를 먹으면 몸이 점점 차가워져 몸의 균형이 깨지기 쉬운데 이때는 소금을 넣어 조리하면 괜찮다.

열 흡수

오이는 열을 빨아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상을 입은 자리에 오이생즙을 바르면 상처가 덧나지 않는다. 화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먼저 흐르는 물로 불에 덴 자리를 충분히 차갑게 한 다음, 강판에 간 오이를 바르고 붓대를 감으면 된다. 이때 하루에 한두 번씩은 붓대를 바꿔주는 것이 좋다.

무더위를 이겨내기 힘들 때 발바닥에 오이를 대 주면 어느새 서늘함을 느낄 수 있다. 이밖에도 타박상에는 오이 즙에 밀가루와 식초를 곁들하게 섞은 다음 상처가 난 자리에 붙이고 형겅으로 감아 주면 되고 이질에는 연한 오이에 꿀을 발라 먹으면 증상이 많이 나아진다.

피부미용

주근깨가 많이 난 사람은 오이를 얇게 저며서 아침, 저녁 마사지를 하면 깨끗해지고 여름철 따위로 짜증스러울 때 오이를 갈아 생즙을 내서 발라 주면 금방 가라앉는다.

부기

잘 익은 오이를 골라, 씨를 뺀 것 300g을 물에 달여 하루 2~3회씩 나누어 마시면 부기의 초기 증세에 효과가 있다. 생것으로 먹을 경우에는 신선한 것을 골라 강판이나 녹즙기에 갈아서 그 즙을 마신다.



런너를 아시나요 ?

런너(runner)란

식물본체에서 새로운 줄기를 뻗어 같은 식물체가 만들어질 때, 기는 줄기를 말합니다.

대표적 식물 : 아주가 (Ajuga reptans), 양지꽃, 딸기
아주가 잘라 심기 & 휘묻이 하기



런너가 발생한 아주가의 모습

1. 가위로 런너를 채취한다.
2. 흙에 잘 심어준다. 또는 자르지 않고 그대로 휘묻이 한다.

[잘라심기]



기는 줄기에서 발생한 새로운 아주가.



가위로 줄기를 토크낸 모습 뿌리가 살짝 나온 것을 채취한다.



줄기를 잘라내어 심은 모습

[휘묻이하기]



줄기까지 휘묻이 한 모습

가든인 박영미 기자

넓은 켈반과 숲을 활용한 가드닝



여름에는 집안에 습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다.
현 켈반과 숲을 이용해 자연 제습기를 만들어 보자.
숲은 숲내의, 숲장판, 숲방습제, 숲버거, 숲비누,
숲탈취제, 숲으로 염색한 천, 먹는 숲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품들에 이용되고 있고 그만큼 효능이
입증되어 있다. 숲은 실내가 건조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기를 내뿜고,
실내가 습하면 습기를 먹는 성질과 많은
다공질은 가지고 있고, 나무였을 때 빨아 올린
천연 미네랄이 고스란히 농축되어 있어서
때 식물이 착생하여 살기 좋은 장소이기도 하다.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KHDA(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회장



숲켈반을 만들기 위한 재료



마사토 참나무 숲 이끼 후마타 히포에스테스 푸테리스 생화용 본드 켈반 대명풍란

Step by Step



켈반에 생화용 본드나
친환경 접착제로 숲을 고정



마사토로 약간의 배수층을 만든다



푸테리스를 포트에서 분리해 나무젓가락으로 뿌리
사이의 흙을 털어 낸다



숲을 중심으로 앞맞은 자리에
마사토로 식재한다



같은 방법으로
후마타, 히포에스테스를 식재한다



풍란을 포트에서 분리하여 뿌리를 감싸고 있는 수태를
떼어내고, 죽은 뿌리를 가위로 정리한다



생화용 본드를 풍란의 뿌리에 바르고
숲에 붙여 고정시킨다



식재 후 식물의 밑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분문기로 씻어 내 준다.



풍란의 뿌리와 숲 사이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는 쪽으로 이끼를 깔아준다

관리법



식재 용도를 마사토로만 했기 때문에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덮어 둔 이끼의 수분관리에 유의한다. 공중 습도가 부족하면 분무
기를 이용하여 관수하고, 특히 장마철에 과습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실내가 건조해지는 겨울철에는 일정량의 물을 채워 수경재
배 하면 가습기의 역할도 대신할 수 있다. 비료는 액체비료를 100배 희석하여 분문기로 엽면시비 한다.

GARDENIN POINT

- 산화방지 효과
- 다공성으로 고성능 필터의 작용—공기정화
- 숲은 탄소덩어리, 음이온이 방전되는데 4500만년 소모

- 방부 효과
- 냄새 제거 효과
- 전자파 차단 효과

장마철 식물의 건강관리



글 사진 충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장차병진

올해도 어김없이 감기 걸리는 장마철이 돌아와 버렸다. 바지에는 물이 튀고 끈끈하고 끈적거리는... 나만 걸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그렇지 않았던 것을 알았던 작년. 감기를 예방하듯 식물 병해충 건강관리에 신경을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계절이 돌아 왔음을 최근 날씨를 보고 실감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식물들에게도 신경써주는 법을 배워야겠다.

“

밭에서 완두를 거두어들이고 난 바로 그 이튿날부터 시작된 비가 며칠이고 계속해서 내렸다. 비는 분말처럼 뽀얗고 알갱이가 되고, 때로는 금방 보폭이라도 뚫고 쏟아져 내릴 듯 한 두려움의 결정체들이 되어 수시로 변덕을 부리면서 칠월의 밤을 온통 물결처럼 질펀히 적시고 있었다.

”

토양과습으로 인한 동백나무 잎의 과습증상.



해마다 이맘때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다. 한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을 소재로 전쟁과 분단의 문제를 깊이 있게 그려낸 윤홍길의 소설 '장마'의 첫 구절이다. 소설의 결말은 화해였지만, 며칠이고 계속 내리면서 세상을 물결처럼 질펀히 적시던 장마의 잔상 때문인지 읽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던 기억이 있다.

어김없는 장마철

올해도 어김없이 그런 장마철이 다시 돌아왔다. 또 다시 그런 답답한 장마철을 보내지 않기 위해선 식물 병해충과의 전쟁, 그리고 식물의 건강관리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장마철은 분명 어느 때와는 다른데, 그렇다면 식물은 어떻게 관리하여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까? '장마'라는 것은 비가 집중하여 내리는 철을 이르는 말로 우리 나라에서는 대개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이년 강수량의 반이 집중된다. 그러다 보니 습도는 높고 곰팡이병 발생도 많아지고 냉해로 피해를 입기도 한다. 또한 장마철에는 태풍도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 병원균과 해충들도 함께 날려 오고, 큰 바람으로 식물에도 크고 작은 상처들이 많이 생겨서 병 발생을 촉진하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장마철 병충해 관리

장마철에 가장 주의하여야 할 것은 바로 병해충 관리. 그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니 뭐니 해도 봄부터 식물을 튼튼하게 키우는 것이며, 여름, 특히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병충해 방제'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식물을 튼튼하게 키우면 병해충의 피해도 적어지지만, 아무리 튼튼한 식물이라도 병해충에 완전히 면역인 것은 없다. 특히 야외에서 재배하는 식물들은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한 병은 물론, 진딧물이나



지나친 관수로 인한 양란의 썩음.

응애 및 각종 나비와 나방류 애벌레들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충해 피해를 줄이고 식물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병충해가 나타나기 전에 또는 나타나자마자 살균제나 살충제 등 작물보호제를 처리하는 것이다. 작물보호제의 사용이 꺼려진다면 천연살충제나 미생물살균제 등 친환경 작물보호제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할 만 하다.

작물보호제의 사용 이외에, 장마를 대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하여야 할 일은 풍성해진 잎과 가지를 장마철이 오기 전에 솎아주는 것이다. 잎과 가지가 풍성해지면 바람이 잘 안 통하고, 그에 따라 습도는 올라가 병원균의 생육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장마철에는 햇빛도 잘 안 들기 때문에 곰팡이병은 더욱 심해지고 중간에 겹쳐 있는 가지와 웃자란 가지 등은 과감하게 잘라 내어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흙과 너무 가까이 있는 잎사귀들이나 밑으로 처지는 가지들도 잘라 주는 것이 좋다. 축축해진 흙으로부터 병원균이 올라와 병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병 발생이 장마 이후의 발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은데 예로는 고추 역병의 경우 장마 전의 발생량이 장마 후의 발생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표1).

나비나 나방류의 애벌레나 진딧물 등 해충의 발생은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단연 많이 발생된다. 채소류는 애벌레들에 의한 피해가 심

한 편이므로 그리 큰 면적이 아니라면 한랭사를 덮어 씌워 애벌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은 나무젓가락 등으로 잡아내는 것이 더 낫다. 화초나 허브의 경우에는 병해충이 심하게 발생하였다면 그 잎이나 가지를 통째로 제거, 병해충의 먹이가 되는 잎들을 줄여주고, 바람이 잘 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데 화초나 허브는 잘라내어도 새로운 가지가 곧 다시 자라나므로 과감해져도 괜찮다.

장마철 물주기

장마철에는 대기습도가 높으므로 물주기 또한 매우 중요하다. 햇빛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칫하면 식물이 웃자라고 토양이 과습할 수 있다. 흙이 과습하지 않도록 물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분에 나무젓가락을 손가락 두마디 정도 깊이로 꼽아 놓았다가 그것이 말랐을 때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귀찮다면 물주는 간격을 평소보다 한배 반 정도 늘려 잡아도 된다. 물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주는 것이 좋으며, 화분 구멍으로 물이 빠져나올 정도로 흠뻑 주는 것이 좋다.가끔 흙 표면에 곰팡이나 버섯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흙 표면을 긁어내고 마르도록 해야 한다. 장마철에는 대기습도가 높아 화분의 수분증발량이 평소보다 현저히 줄어든다. 이런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물을 주면 토양이 과습해져서 뿌리가 썩는 경우가 많으며, 심하면 토양에 곰팡이나 벌레가 생기기도 하므로 토양과습은 절대 피해야 한다. 토양이

과습하게 되면 전에 말씀드렸던(2013년 12월호, '물이 많아요 걱정입니다!!!') '과습증상'이 나타나는 수도 있다. 산세베리아나 다육식물 등 수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식물들은 장마 내내 물을 안줘도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잎사귀의 탱탱함이 사라지며 약간 쭈글거리려 할 때 물을 주면 된다.

식물도 사람도 힘든 장마철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름은 식물에게도 힘든 시기이다. 늦봄과 초여름에 강한 햇빛으로 무성하게 자란 식물들은 장마철이 되면 햇빛은 부족해지고 물은 엄청 많아져서 활력을 잃고 비실거릴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많이 자란 줄기와 잎을 잘라 주는 것이 좋고 가급적이면 거름도 주지 않는 것이 좋다. 식물은 더위에 지쳐 쉬려고 하는데 영양을 계속 공급하면 오히려 힘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곤경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단, 더위를 좋아하는 식물이나 수확을 해야 하는 식물이라면 웃거름을 주는 것도 괜찮다.

초기역병(장마 전)	후기역병(장마 후)
0.1~1.0	2.7
1.0~10.0	35.0
10.0 이상	75.0

표1

배수불량인 모로코에서 장마기간 동안 발생한 모목의 뿌리썩음.



서대문구 일대는 담장을 없애고 마당에 주차시설을 갖추는 공사를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마당이 생기고 집안에 작은 텃밭이나 화분들이 놓여져 있는 집들이 많다. 하지만 역시 빌라들은 어쩔수 없이 1층이 주차장인지라 옥상을 이용하는 수 밖에 없는데 빌라에 거주하는 서 수연씨는 주말농장을 식구들과 함께 해오다 옥상텃밭을 만들게 된 케이스. 첫 수확까지의 소소한 일상과 궁금했던 점들을 초보농부시점에서 적어보았다.

초보 도시농부의 텃밭가꾸기
옥상텃밭을
만들기까지

주말 농장을 만나다

서수현 /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순수 토박이 서울사람으로 살아온 나에게 농촌이라는 것은 체험 시간에 불과하고 그저 앞집 할아버지 암마당의 관객으로 만족해야 했다. 대도시에서 몇 해 전부터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농촌체험 그 중에 주말 농장이라는 이름을 걸고 작은 텃밭을 분양받아 감자, 고구마를 비롯해 토마토, 고추, 상추 같은 먹거리를 키우기 위해 밭을 일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어린이들의 체험활동으로도 많이 활용되기도 해서 유치원이나 학교의 현장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농작물을 심고, 가꾸고 수확까지 한다. 그런 활동들을 보면서 '이름도 잘 모르고 먹기 싫어하던 채소들과 가까워지고 직접 재배하는 노고와 수확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 정서적으로도 매우 좋을 거야 사람은 흙을 밟아야 된다하지 않았던가...'라고 생각하던 즈음이었다.

고구마순 두 포대

아버지의 지인께서 하시는 주말농장에 몇 번 따라가 본 것이 시작이었다. 아버지께서 분양받으신 주말농장에 분영 고구마를 심으셨다 하셨지만 그해 우리집에 배달된 것은 고구마순 두 포대가 다였다. 아버지의 첫 농사는 실패였다. 자주 들여다보고 정성을 쏟아야 했지만 그리 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우스운 것이 사람 마음인지라 뿌린 것 없이 실망하신 부모님께선 다음 해엔 감자를 심으셨다. 이번에도 주말농장 사장님께서 거의 다 키우시고 우린 감자 캐는



날이 되어서 밭에 갔다. 난 생처음 해 본 감자 캐기는 힘들긴 했지만 정말 재미있고 신났다. 줄기를 당기면 줄줄이 나오는 감자에 온 가족이 신나서 수확의 기쁨을 누렸다. 감자는 캐서 햇볕에 흙을 말린 후 담아야 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금방 캔 감자를 찌니 하얀 분이 솔솔 나와 지금까지 먹어 본 감자 중에 최고였다.



우리 가족과 이모들까지 가족 나들이 겸 감자도 캐고 삼겹살 파티도 하는 즐거움도 있었다. 그러나 차로 한 시간이나 이동해야 하고, 모두 시간 맞춰 같이 수확하러 가는 것, 감자의 운반과 보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2년 만에 감자 농사도 접고 말았다.

주말농장에서 옥상텃밭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농장은 2년만에 무산.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고 나는 토마토와 딸기 씨앗을 사다 작은 화분과 봉투에 키워 스티로폼 박스로 옮겨 심기로 했다. 토마토씨앗은 배양토가 안에 들어 있어 물만 주면 자라나게 되어 있어서 참 키우는 나에게는 굉장히 편하고 쉬운 선택이었다. 무럭무럭 자라 스티로폼 박스까지 옮겨 심었을 때 그 기분 역시 엄청 낫고 말이다. 딸기 씨앗은 바로 화분에 심어 역시 나의 텃밭인 스티로폼 박스로 옮겨 심었다.

지금은 잘 자라고 있는 옥상텃밭 내 식구들. 다음에는 토마토와 딸기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식구가 더 늘어 복적거리는 나의 옥상텃밭을 소개하려 한다.



여름에 직삽이 잘되는 식물

G 박영미 기자

[가우라(*Gaura lindheimeri* 'Whirling Butterflies')로 직삽하기]



자르기 전 가우라



자른모습



다듬은 모습



포트에 심은 모습



10월 후 새싹이 나오기 시작



10월 후 새싹이 나오기 시작

가우라, 거북머리(*Chelone obliqua*), 부처꽃(*Lythrum anceps*), 코스모스(*Coreopsis nasea*) 등

이유 : 여름에는 식물이 자라기 좋은 온도가 유지되고 습도가 높아 덜 말라죽습니다. 흙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잘 주면 뿌리도 잘 발달됩니다.

1. 가우라 포기를 밑 동의 높이가 같도록 자른다.
2. 자른 줄기를 꽃대는 잘라내고 7~8 센티미터 정도로 다듬는다.
3. 포트에 깊이 꽂아준다. 여러 개를 심어도 좋다.
4. 1~2주 간 차광을 하여 직사광선을 피한다.
5. 흙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준다.



aT센터에서 진행된 가든조아 식생활 교육박람회 전시소식

지난 6월 19일 ~ 21일, 3일동안 진행된 교육박람회에 전시하게 된 가든조아의 전시회장의 모습과 소식에 대해 전해본다.



기간 : 2014년 6월 19일 ~21일
장소 : 양재동 aT센터



양재동 aT 센터앞 광장 전시장 (2014. 6.19 ~ 21), 식생활 교육박람회 광장 전시장



벽화수 채소심기도 칼라로 먼저 CG를 잡아 품을 보도자료로 준비하고 실제 모형의 벽화수 5색 채소는 전시장을 통하여 호기심과 창의적 놀라움을 시민과 어린이에게 전달했다.



심고 또 심어서 벽에서 먹는 채소의 위용을 선보이고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식생활 생활적용법을 알리고 있다.



상추와 동근 재배백의 지지대가 식생활 박람회장의 입구에서 어린이 친구들은 반갑게 맞이하였다.

가든조아 원에 전문팀 의 수고로 원하는 날짜에 맞추어 발아, 성장의 모습을 전시장으로 그대로 이용 / 둥근 감자 접이식 그린 재배백(미사용식 접어 보관하고, 가벼운 채소백)이 채소정원 이동 후 멋진모습으로 성장과정을 어린이들에게 쉽게 보여주며, 지지대로 호박과 가지가 달리고, 고추와 오이도 주렁주렁 달리는 모습을 보며, 감자재배 백에서 아래 문으로 감자나 고구마를 밀당지에서 캐어 먹는 재미도 연출한다



잔디 책상 위에서 어린이와 친구하며 푸르게 함께 자라요



작은 묘종의 오색 채소들- 적근대, 꽃 양배추, 적거자, 청거자, 케일이 다투어 쑥쑥 자라며 전시회장으로 고고행진 기다림.



호박, 오이, 콩 등 덩굴식물은 지지대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전시준비



빨강정원과 노랑정원



낭만적인 노랑정원



푸르름속 무당벌레와 함께

30분만에 설치된 에코 방들의 위용과 무늬역새의 눈부심



꿈의 비름 식초로 꾸리기

Gardenin Reporter

파밤나방이 발생하면 식흔 부위의 줄기를 제거하고 분무기에 식초를 넣어 뿌려주면 된다 집에서 간단하게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해충발생



해충의 식흔 흔적



해충의 모습



식초방제모습



파밤나방 유충

기든인 이광범기자

Detox Fruits 6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디톡스' 과일 6선

즐거운 것도 너무 많이 하면 지겹고,
몸에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
현대인들은 해도 너무하게 먹고, 즐기고, 마시고 있다.
'적당히'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단어가
현대인의 일상에서 '미덕'이 된 것이 조금 씁쓸한 오늘 날.
이제는 해도 너무 많이 먹고 했던 것들이 만들어 놓은
'독'을 배출할 시기다. 더 건강 하려면 '비워야' 살고
더 행복 하려면 '버려야' 산다. 비워야 더 채워지고 버려야
더 얻을 수 있다는 '철학'을 삶 속에서 실천해보자.

글. 황주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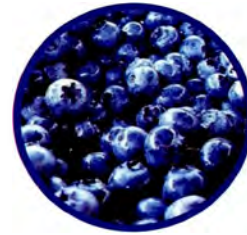


레몬디톡스 열풍의 주인공, 레몬

레몬, 오렌지, 라임과 같은 시트러스 과일은 비타민 C 함유량이 높아 피부건강에 좋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 사실이다. 이 뿐만 아니라 레몬은 효소(엔자임)의 배출을 촉진시켜 몸안의 독소를 수용성의 성질로 바꾸어 몸 밖으로 쉽게 배출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항산화제의 대표하는 물질인 글루타티온을 생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비타민 C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글루타티온은 화학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간 해독을 돕는 역할을 한다. 아침에 기상 후 레몬물을 마시는 것은 알카리성 물질을 몸에 생성시켜 다른 음식물로 섭취해 몸 속 가득한 산도와 균형을 맞춰주기도 한다. 신선한 레몬주스는 몸 속 pH (산도)의 밸런스를 지켜줄 뿐더러 20가지 이상의 항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얼마 전 '레몬디톡스' 다이어트 방법이 다름이 아니라 레몬의 이러한 기능들 때문에 열풍을 몰려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각종 영양소 덩어리인 사과

사과는 갖가지 영양을 두루 포함하고 있는 '영양가 덩어리'다. 각종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칼슘, α-클로루칼레이트, 플라보노이드, 터페노이드와 같은 각종 식물 화학물질인 파이토케미컬 들을 모두 함량하고 있다. 이 모든 물질들은 해독작용에 탁월한 물질들이다. 하나의 플라보노이드와 플로리진은 간의 해독작용을 하는 담즙생성 촉진을 돕는 성분들이다. 사과는 이뿐만이 아니라 몸 속의 중금속이나 식품첨가물과 같은 독소 배출역할을 하는 수용성 섬유질 펙틴의 좋은 근원이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는 사과도 골라먹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최대한 사과는 유기농 사과를 섭취하는 것이 안전인데, 이는 일반 사과가 잔류농약을 가장 많이 포함하는 12가지 식품에 속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기농 사과는 일반 사과에 비해 약 15퍼센트 가량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보인다고도 한다.



담즙생성을 돕는 탁월한 물질을 가진 블루베리

머리가 아플 때 아스피린이나 게보린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다면, 블루베리로 약을 대체하기를 권한다. 조직손상을 통해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몸의 각종 통증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천연 아스피린'이라고도 불릴 정도다. 블루베리 300g 이면 DNA 손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요로를 따라 생기는 각종 박테리아 (유해균)를 통해 요로에 염증을 유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항생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항바이러스성 물질을 가진 블루베리는 '프로안소시아니딘'이라 불리는 슈퍼 디톡스 파이토뉴트리언트로도 불린다.



요로결석에는 크랜베리가 탁월하다

크랜베리주스는 현재 한국 약국에서 '요로결석' 환자에게 약용으로도 팔 정도로 요로염증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요로염증 (UTIs)에 크랜베리가 탁월하다는 사실은 1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실이다. 항균작용에 우수해 각종 몸 속 독소배출을 하는데 가장 유명한 과일이기도 하다. 항염요소를 어떠한 과일 보다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심혈관계 및 면역력을 유지,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소화건강 증진에 탁월하다.



각종 성인병에 고통 받는 현대인의 만병통치약, 자몽

비만을 막고 당뇨를 막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항암작용을 하며 위염을 치유하고 잇몸질환을 낮게하고 뇌졸중과 대사증후군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과일이 바로 자몽이다. 현대 한국인이라면 가장 두려워 하는 암과 당뇨병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과일이라면 자몽은 '만병통치약'이라 불려도 될만하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어떠한 약과도 견줄 수 있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약에 비해 훨씬 장점이 많다. 자몽의 핑크색 속살은 카로티노이드 파이토 영양소인 라이코펜 성분 때문이다. 각종 카로티노이드 중에서도 라이코펜은 세포에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와 싸울 수 있는 가장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 많은 이점 들 중에서도 자몽의 가장 큰 장점은 간의 '정산화'를 돕는 역할일 것이다. 손상되어있던 간을 가장 빠르고 생기있게 만들어 주는 데는 자몽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



질긴 고기도 연하게 만드는 파인애플

파인애플은 소화효소인 단백질 분해효소인 브로멜린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사과, 배와 함께 같이 넣으면 고기요리를 할 때 고기질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성분은 결장을 청소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잦은 혈액응고, 염증유발 그리고 종양으로 고생하는 이라면 브로멜린 성분으로 모두 점차 치유할 수 있다. 같은 파인애플 줄기에서 나온 2개의 분자는 암의 성장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도 발표된 바 있다.

Detox Fruits 6

올 여름, 앞 서 소개된 과일만으로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날 수 있다. 조금만 공부하고 내 몸 속에 들어가는 음식의 성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면 얼마든지 적은 돈과 시간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처럼 먹을 거리에 관심을 가지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저절로 눈 앞에 그리고 삶 속에 펼쳐질 것이다. 게다가 알고 먹으면 몸에 더 좋다는 '플라시보' 효과도 덤으로 오니까 말이다.



밀*요..뽐을*요? TT TT

CF광고처럼 여름은 너무 좋지만 무성한.. 화단을 보면 화가 나죠.
어떻게 관리를 해야할지..
그저 뽑기만 하면 되지.. 마구잡이로 뽑으려니 힘만 들고.. 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제의 잡초 녀석들 1,2,3



잡초를 긁어내는 경우
꽃밭에 섞여 있는 경우
정원안에 식물과 잡초가 섞여 있
는 경우 갈고리쪽을 사용하여 살
살 긁어 주면서 정리한다.



잡초를 파내는 경우(작은 삽이음)
식물과 잡초 사이에 뿌리가 깊은
잡초는 삽을 이용한다.
주변식물이 상하지 않도록 파내도록
한다.



어린 잡초가 자라는 경우
(작은 삽이음)
갈고리를 사용하여 흙을 가볍게
긁어준다. 흙과 뿌리가 나오면
손으로 긁어서 분리한다.



Summer Sale

크로스백 가든도구백 4종 세트

여름특가 7월 한정 10,000원

가든
조아



꽃백합 절찬리 판매중!

전화주문/택배가능합니다. 서둘러 주문 주세요^^
구입문의 031)634-7990 / www.gardenjoa.com

2014년 새로운 정원을 가꾸어 보세요.

관목사이 또는 군식으로 식재하면 매우 좋습니다.

특히 관목사이에 혼성으로 식재하면 **효과가 두배!!**



하양 Nabona



빨강 Fanbio



노랑 Yellow Diamond



주황 Orange Metrix



여러분의 정원에 색감과 향기를 다양하게 하고,
정원 구조와 생육환경도 풍성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GardenJoa
가든조아

July 2014 Gardenin - 89

평온한 꽃길을 걷는 듯

했던 순간.
보는 순간.
꽃 한송이를 가득 싣고,
살랑이는 바람을 고백할까.
너의 마음 나의 마음.
무런 모두 꽃이다.

강물벽화거리의 주제는 '사랑'이다.

'사랑'이 주제로 선정된 모티브는

"나는 사랑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성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강물 작가의 메시지였다.

글 김홍렬



▲ 꽃길 디자인 컨셉 (사: 김홍렬, 이한나, 그림: 이화)

작년 8월에 조성된 강물 순정만화 벽화거리가 조성되었다. 시간이 흘러 2014년 봄, 강물 만화거리가 새로운 기획안으로 조성되게 되었다. 기획안의 특징은 성내동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벽화 뿐 아니라 밋밋하고 무미건조한 골목길에 꽃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강물 만화거리에서 꽃길을 선정하기 위해 꽃길 조성팀 이한나 작가와 함께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현장조사를 했다. 강동구 성내동 '천호대로 168가길'에 들어섰을 때 3층 계단부터 대문까지 꽃 화분으로 예쁘게 조성된 집이 눈에 띄었다. 하늘에서 꽃이 내려와 꽃길로 흘러가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꽃게단이 이쁜 집의 담벼락에 꽃 벽화를 그리고, 그림 아래 주민들과 가든조아와 함께 조성한 '화분 정원'을 조성했다.



'평온한 꽃길을 걷는 듯'은 어떻게 탄생되었을까요?

'평온한 꽃길은 걷는 듯'은 오래전부터 나의 블로그 이름으로 써왔던 것이었다. 건축, 조경, 도시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가졌던 꿈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꽃길과 같은 평온한 느낌이 가득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 꿈을 담아 블로그 이름으로 정하고 활동하고 있었다. 그 꿈을 실천해볼 수 있는 기회가 강물만화거리에서 가졌다. 따스한 햇살이 구름 사이로 내려오고, 실랑실랑 불어오는 바람 한 점에 꽃잎이 하늘거리는 것을 생각해보라,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가. 오랫동안 바라왔던 '꽃길'을 강물 만화거리 조성에 적용할 수 있어 작업했던 모든 순간이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꽃길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민들을 만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물어보았다. 자신들의 딸의 졸업식과 주인 아저씨와 약혼식이 행복했다고 했다. 모두 꽃으로 함께하는 순간이었다. 이를 벽면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했다. 주민들의 스토리와 행복했던 순간의 주인공은 강물 만화에서 나오는 인물로 표현하는 것으로 디자인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강물 순정만화 시리즈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이 사랑을 전하는 순간을 모티브로 하여 주인공들의 손에 꽃을 들고 있는 것으로 또 하나의 벽을 디자인하고자 했다.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갔을 때 골목에 버려진 자전거가 있었다. 이 자전거를 '꽃 자전거'로 만들어 꽃을 한 아름 가득 싣고 어디론가 소풍을 가는 것은 연상하게 하고 싶었다. 꽃 자전거를 타고 꽃길을 지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는 동안 그 마음은 설레이지 않을까. 사랑을 전하는 나의 마음과 사랑을 받는 너의 마음이 느껴지는 우리 모두는 꽃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이렇게 꽃길에 대한 디자인 컨셉을 잡고 나니 하나의 시가 되었다.

꽃 화분에 심겨진 수종



꽃 화분 수종은 가든조아 양재선 주임님 가이드를 많이 받았다. '꽃 벽화'가 꽃잎이 흩날리고, 노란색, 핑크색 꽃이 많이 그려져 꽃 화분에 핑크빛 장미와 너도복숭아, 보랏빛의 개리틀 나나, 흰색의 백목국, 초록빛의 어리썬이 가득한 황금개미자리 등으로 선정해서 화분에 심어보기도 했다.



◀ 테라코타 화분에 하얀색 칠을 하여 화분에 꽃을 심기 전에 주인들과 꽃화분에 재미있는 그림 그리기를 먼저 했다. 어렸을 때 자주 썼던 크레파스를 가지고 다양한 얼굴 표정 그리기를 진행했다. 동네 어른, 아이 구분없이 재미있어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주민들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강물만화거리 '평온한 꽃길을 걷는듯' 주민참여 꽃화분 만들기는 지난 6월 7일(토) 오후 5시에 진행되었다. 꽃길 조성 완공은 6월 말에 완공되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완성된 꽃길을 소개하겠다.
(이상 '평온한 꽃길을 걷는듯' 조성팀 팀장, 김홍렬 작성)



International Forest Workcamp

organized by the forest office of Kastellaun, Germany

국제산림워크캠프 참가자 모집 소식을 듣고, 산림 선진국인 독일의 숲은 어떤지 직접 느껴보고 싶었고 외국 학생들과의 교류와 여러가지 새로운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혀 보고자 참가를 신청하게 되었다.



1. 국제산림워크캠프란?

매년 독일에서는 독일 산림위원회의 주관으로 '국제산림 워크캠프'가 개최된다. 이 캠프에는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15~20명의 Forestry 전공 학생들이 숲과 산림에 대해 학습하고 산림기술도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대부분 유럽과 북미지역 참가자로 이루어진 가운데, 동국대에서 10년째 학생들이 선발되어 드물게 아시아권에서 참가하고 있다. 이는 계속해서 이 캠프에 선발될 수 있도록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지도교수인 강호덕 교수님이 힘쓰고 계시기 때문이다.

1997년 1기로 시작해 내가 갔던 2010년에는 제 14기로 한국 2명, 포르투갈 3명, 스페인 2명, 폴란드 2명, 세르비아 2명, 아일랜드 1명, 에스토니아 1명, 루마니아 1명으로 총 7개국에서 14명이 참가했다.



◀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page/politics/201404/h2014042919572321000.htm>



※독일 국제산림 워크캠프 사이트
<http://www.wald-rip.de/>



프루닝 ▶

2. 국제산림 워크캠프의 목적 및 내용

국제산림 워크캠프의 목적은 각국에서 모인 산림 전공 학생들의 아이디어 교류를 바탕으로, 숲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제산림 워크캠프는 선진산림국인 독일의 Rhineland-Pfalz 숲에서 진행되는데 교육내용은 산림생태계 관리, 산림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 휴양림 조성 등 임업분야 전반위에 걸쳐 현장 중심으로서 실제였던 방법으로 산림을 가꾸고 관리하는지를 보고 직접 작업을 해보게 된다. 대학 수업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현장 실습은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강의실에 앉아서 듣는 것보다 직접 느끼며 배운 것이 더 오래 남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4. 가장 기억에 남는 캠프 활동

주로 했던 작업은 임도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미래목 선별이었다. 미래목은 그 숲에 앞으로 남아 있을 나무다. 나무는 자라면서 점점 굵어지고 커지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나무와 경쟁을 하게 되는데 경쟁에서 이길 위치에 있는 나무를 골라서 전용 스프레이로 표시를 하고 아래쪽의 죽은 나뭇가지를 정리해준다. 나머지 나무는 베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한다.

나무가 어린 숲을 정비한 적이 있는데 나무를 감자기 베어내면 그 부분에 강한 햇빛이 비치는 등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서서히 죽일 나무를 골라 환상박피를 했다. 환상박피는 나무의 사람 가슴 높이 부분을 전용 낫을 이용해 껍질을 벗기고 형성층을 파괴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천천히 죽은 나무는 곤충이나 버섯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쓰러질 때 주변 나무를 상처주지도 않습니다. 처음으로 환상박피를 했는데 관리자 분께서 잘했다고 하셔서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난다.

모든 작업은 인간에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숲과 공존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토끼, 사슴, 여러 가지 새들 등 각종 야생동물을 많이 보았고 건강한 생태계라고 느껴졌다.



3. 내가 보는 독일의 산림

보통 우리나라의 숲을 떠올려보면 경사가 급한 산 깊은 곳의 울창한 숲이 생각나지만 내가 가보았던 독일의 숲은 가파른 산보다는 경사가 낮고 평탄한 느낌의 산들이었다. 우리나라 산의 등산은 정상등반에 있다면 독일의 산은 트래킹 길을 따라 어느 구간을 다녀오겠다고 정하고 오르는 것이 틀리다 볼 수 있다. 면적이 매우 넓은 만큼 산을 정비하기 쉽도록 구역이 나뉘어 있고, 임도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작업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산림 경영 기본이 된다.



5. 업무 이외의 시간

작업을 하려면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아침 6시 30분에 숙소에서 출발, 4시에 작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그 날의 저녁 식사 당번이 식사 준비를 했다. 나라별로 2명씩 총 4명이어서 돌아가면서 저녁을 만들었는데 모두가 요리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덕분에 각국에서 주로 먹는 음식을 가보지 않고도 맛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차례가 된 날에는 미리 가져간 불고기 소스로 양념한 고기를 구워주었는데 다들 매우 좋아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하지만 한 달 후 캠프가 끝나면 다시 만나기 어렵다며 모두들 식사 후 늦게까지 야외 모닥불에 둘러 앉아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영어도 잘 못하고 지금은 그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무척 즐거운 시간들이었다. 몇몇 친구는 가끔 페이스북으로 연락하는 등 지금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6. 전체적인 느낀 점

독일의 산림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잘 정비되어 왔다는 것이 크게 와 닿았다. 특히 모든 작업들이 인간 중심이 아닌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를 위한 것이어서 더욱 대단하게 느껴졌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정말 선진국이라고 생각되었다.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어야 인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독일과 같은 관점과 방식으로 산림이 경영되지 않아서 아쉽다. 예를 들면 평창올림픽 때문에 가리왕산의 500년 된 원시림이 일부 파괴될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는 점만 보아도 그렇다. (인터넷 뉴스에 따르면 이미 벌목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개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자연보다 인간의 이익이 우선 순위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드는 것이다.

국제산림 워크캠프에 참여해서 숲에 대해 배운 것도 많지만, 다른 문화도 접하며 여러 방면으로 견문이 넓어져서 만족스럽다. 4년 전이지만 글을 쓰며, 사진도 다시 보며 추억을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가든인 박영미 기자



overseas report

호주 실습 탐방기



한국농수산 대학에 재학중인 나는 2학년 장기실습 과제로 농장 실습을 1년간 선정해야 한다. 대학입학 시험과 유럽에서 유학경험이 있는 부모님의 권유로 접한 것은 기만이었지만 유럽 방문의 기회를 갖는 경험이었다. 유럽 여행의 기회는 원예를 입학하여 공부하려는 나에게 아주 많은 문제를 개방하며 보여주는 것 같았고, 유럽의 겨울은 늘 초록의 잔디와 푸른 나무들이 동성히 숲을 이루고, 도시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원의 숨쉬기가 숲을 전파하여 가까운 도시에서도 자연의 경관과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들을 보니, 새로운 세계를 만나듯 하였다.

한국 농수산대학 원예과 박재우



1월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에서 실습을 하지만 유럽 여행후 나의 안목이 많이 변한 것을 감지하며, 한국의 농장이 아닌 해외 농장의 실습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제 농업도 우리나라라는 제한적인 것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으로 진출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농업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고 느꼈다. 해외 농업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그간 노력했던 영어와 약간의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외국의 관습이나 문화를 익히는 것에 두려워 하지 않았던 것이 이번 기회에 내게 도움이 되었다. 나는 한국이 아닌 조금 힘든 길, 호주를 선택하게 되었다. 1월 13일 한국에서 출발, 11시간의 긴 비행을 하고 호주 시드니에 도착했다. 시드니에서 퍼스(Perth)까지 경유하기위해 2시간 가량 여유를 뒀는데 연착과 계산 오류로 인해 비행기를 놓쳐버리는 오류를 범해버렸다. 버진블루에 가서 다음 비행기를 잡고 7시간의 시간이 생겼다. 나는 공항에 짐을 맡기고 시드니를 구경해보기로 했다. 시드니 국제 공항역에서 트레인을 타고 센트럴역에 내렸다. 강렬한 햇빛과 그림 같은 하늘이 우리나라 강남을 연상하게 하는 높고 예술적인 건물들과 그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있는 공원. 역시 내가 생각했던 호주보다 훨씬 크고 도시가 자연과 더불어 있었다. 때마침 그때가 점심시간이라 회사원들은 햄버거와 커피를 손에 들고 공원에서 동료들과 얘기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호주의 장관인 맑은 하늘과 푸른 잔디밭에서 친구와 함께 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부러웠고, 조금은 질투도 났다. 시드니에서의 짧은 관광을 끝내고 퍼스로 갔다. 퍼스의 Tropical colour



농장에 도착했다. 나는 전에 아르바이트(Part-time job)를 해본 경험도 없고, 농장에서 길게 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적응도 힘들고 사장님께 혼도 많이 났다. 퇴근시간이 다가오면 헤이해지는 정신과 일이 끝난 뒤 마무리로 인해 제일 많이 지쳐당했다. Tropical colour 농장은 호접란, 덴드로비움, 온시디움, 개음죽, 선인장등을 키우는 농장으로서 대기업인 Bunning Warehouse, IKEA, Master의 wholesale market에 출하를 하고있다. 매주 상품을 출하하기 때문에 주문도 많고 할 일도 많았다. 일을 끝내도 밥을 해 줄사람도 한국 음식을 먹을 곳도 편하게 이야기를 할 사람도 없었다. 패스트푸드를 먹거나 내가 해 먹어야 했다. 사람은 먹을때 예민하다고 분명 누군가가 말했다. 나역시 그랬나보다. 같이 간 친구들과도 생활하면서 약간의 의견충돌이 생겨 힘들었다. 1월에는 근무 중에도 퇴근해서도 적응하는데 힘들어 사장님께 승수는 것 빼고 다 혼난 것 같다.



2월, 3월

1월달전 까지만 해도 농장분위가 진짜 좋지 않았다. 나 뿐만 아니라 같이 온 3명의 친구들도 다 일을 못하여 사장님이 한 명 정도 정리하고 할 수 도 있다고 엄포를 놓으실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다. 그런 불명예는 당할 수 없었다. 사장님 눈에 들으려고 열심히 일을 했고 퇴근하러 해도 30분씩 더 했으며 항상 뛰어다니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나마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2월초가 지나고 나서부터 사장님이 나에게 조금씩 일을 더 할당해주셨다. 처음에는 삽질과 썩은잎 등을 골라서 버리는 잡일만 했었는데, 2월 중순쯤부터 관수 관리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다른 지역 주문도 나에게 맡기셨다. 가끔 칭찬도 하셨다. 처음 칭찬을 들었을 때는 서러움에 눈물이 날 뻔도 했다. 2월 ~ 3월 달에는 거의 모종 심는 것 밖에 안





했다. 매주 1만개~1만5천 개의 호접난 모종이 들어오고 1만개의 덴드로비움 모종이 들어왔다. 크리스마스에 출하하고 난 자리를 새로운 모종으로 다시 채워 넣는 작업이다. 생각보다 힘들었다. 바크를 통에 받아 흙먼지를 털고 모종과 함께 포트에 꼭꼭 눌러 담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엄지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기도 한다. 마더스테이 준비기간 전까지는 계속 모종이 들어오고 심는 일을 주로 했다. 1달반 정도가 지나니 일이 손에 익고 주말에는 시내에 돌아 다닐 여유가 생겼다. 시내에 나갈 때마다 드는 생각은 역시 호주에 잘 왔다는 생각이다. 땅이 넓어서 그런지 차도나 인도의 폭이 넓었고, 외국음식을 접해보고 외국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호주의 문화도 느껴보았다. 하지만 외식을 할 때 음식의 종류는 패스트푸드나 아시아요리, 이태리요리가 대부분이었다. 맛은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다. 호주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달리 옷이나 악세사리가 유행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개성을 존중한다. 나이키, 아디다스등 명품 브랜드가 아닌 호주브랜드를 매우 사랑하고 아낀다. 우리나라는 명품브랜드의 네임 벨류가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데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2배이상 비싼데도 불구하고 명품브랜드의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사람들도 유행에 치우쳐 자신의 개성을 잃지 않고 자신의 것을 찾았다. 우리나라가 꼭 배웠으면 하는 자세이다. 어릴때가 건물들 사이에는 공원이 있고 ㅽㅽㅽㅽ 건물 숲 사이에 숨을 쉬게 해주는 공원은 정말 매력적이었다. 가끔 공원에서 쉬다 보면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있다. 왜 맨발로 다니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공원의 잔디를 직접 느껴보려고 하는 것 같다.



4월: 호주는 5월 2째주 일요일인 5월 11일에 Mother's Day 이다. 마더스 데이는 호주 큰 기념일인 만큼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다. 그래서 인지 꽃의 출하량도 어마어마 하다. 마더스데이기념 꽃은 4월부터 1달 내내 출하한다. 15,000개이상의 호접난과 5,000개의 다른 상품이 캔들랜드의 브리즈번, 남호주의 아들레이드, 빅토리아의 멜번, 뉴사우스 웨일즈의 시드니, 호주 각지로 간다. 다른 직원들이 꽃을 골라주면 내가 세라믹포트에 넣고 10개씩 박스에 패킹하고 운반하도록 상차 작업의 큰 트럭에 싣는 것까지가 할 일이다. 사장님이 나를 믿고 인정해주신 덕분에 많은 일을 해보고 경험 할 수 있게 되었다.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꽃이 나오는 것을 보고 호주의 시장이 얼마나 크고 도전할 만한 시장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5월: 마더스데이 축하철이 지나 농장의 바쁜 기간은 끝이 났다. 다시 2, 3월처럼 모종이 들어오면 심어 꽃이 나간 빈자리를 채우는 일을 했다. 사장님은 마더스데이 물량 받아 내느라 고생했다며 3일 휴가를 주셨다. 우리는 매니저 형님과 함께 차를 렌트하여 Albany로 여행을 갔다. 매니저 형님은 호주에 거주한지 5년이 넘으셨다. 거주하면서 도움을 주셨던 부부인 Jim과 Alison을 찾아뵙고 마더스데이 기념 선물을 드리고 함께 추억을 쌓기로 했다. Albany에서 Jim과 Alison을 만나 3박 4일 동안 같이 요리도 하고 호주 전통음식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했다. Albany의 자연경관도 찾아가 보았다. 바닷물에 의해 침식되어 높



은 절벽이 된 GAP과 가운데가 땀 뚫린 Natural Bridge
에도 가봤다. 정말 거대하고 놀라운 자연경관에 놀
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지금까지 본 자연 경관중
에 단연 최고였다. 매니저형남과 매우 친철하신 Jim
과 Alison 덕분에 호주사람과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
고 하면서 호주의 문화에 대해 경험 할 수 있는, 한
국사람이 살면서 인기 힘든 기회를 얻었다. 정말 감
사 드린다. 다시 농장에 돌아와 1월정도 일을 하고
실습이 끝났다. 호주에서 일을 하면서 호주의 문화
와 큰 시정에 대한 성공 가능성성을 알게 되었고, 사정
별 밑에서 일을 배우며 같은 시간에 남들보다 더 효
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속하게 하는 법을 배웠고, 신
작과 미루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호주에서의
실습은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을 얻게 해 주었다. 인생
의 터닝포인트라고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내게는 생
생남이다. 네 작은 일을 깨고 나눌 수 있도록 해주
신 모든 분들께 성공함으로서 지금까지의 도움에 보
답할 것이라 다짐한다.



야생화의 진로특적 살펴

식물잎의 역할은 엽록체에서 광합성작용을 통하여 양분을 만들고 잎의 기공을 통하여 산소를 받아들며 호흡작용을 하며, 기공을 통해 물을 수증기 상태로 내보내는 증산작용을 합니다. 잎의 배열 양식은 햇빛을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이며 첫번째 잎보다 두번째 잎이 큰 이유는 경쟁자인 숲속의 나무들이 성장하면서 햇빛을 가리기때 꽃을피우고 번식을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개망초 (어긋나기 잎차례)



말나리 (돌려나기 임차례)



헬레니움 (마주나기 임차례)

가든인 이광범기자

Q&A



장마와 병충해가 많아지는 여름입니다. 채소를 재배하면서 궁금한 재배법, 병충해, 식물생태, 농약살포시기 등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저희 가든인에 물어보세요.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상담 소장으로 계시는 유봉수 소장님께서 친절하게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이번 호에도 살림에 보탬이 되는 해결책이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유봉수 소장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

문. 감자를 수확했어요. 어떻게 저장해야 하나요?



답. 감자는 저장온도를 낮게 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수확 시 입은 상처를 잘 아물게 하기 위해 반드시 일주일간 온도 12~18℃, 습도 80~85%에서 예비저장을 거친 후 저온으로(3~4℃), 습도(80~85%)에서 본 저장을 해야하며 저장 시 온도가 높으면 호흡작용이 왕성하여 흑색심부름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로 저장하시면 병균이 침입하여 일찍 썩게 됩니다.

문. 고추 꼭지 끝이 말라서 회색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답. 고추 흑미병입니다. 5~6월에 가뭄으로 고추모장에 수분이 부족하고 온도가 높아 석회 성분이 충분이 있어도 흡수가 잘 되지 않아 발생된 것입니다. 칼슘 성분은 식물체 내에 이동이 잘 안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토양이 건조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수, 멀칭 등 토양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확칼슘제 시비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문. 가지 잎을 따준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잎을 따주는데 특별한 방법은 없나요?



답. 잎은 식물체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든 잎이거나 노화가 되어 양분을 만들지 못하는 잎은 일찍 따주어 통풍을 좋게 해주고 햇볕 쏘임이 많게 해야 수확량이 좋아지겠지요. 가지는 생리적 특성상 원가지에서는 두 잎 건너 1개의 과실이 달리며, 결가지에서는 3~4개 건너 1개의 과실이 맺히게 되는 작물이다보니 과실 1개 키우는데 필요한 잎수는 3~5개 정도로 수확하는 과실 밑으로 2개 정도의 잎을 남겨두시고 모두 따주면 됩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번에 과다하게 잎을 따주면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과과나 기형과 뽕죽과 등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 여주라는 열매가 당뇨병을 예방 치료한다는데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런가요?

답. 여주열매의 크기는 10~50cm정도이며 긴 원통형으로 자라며 모양은 가시오아와 비슷하나 표면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돌기가 솟아있어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색깔은 녹색, 흰색, 진한녹색, 주황색등이 있는데, 짙은 녹색의 열매를 주로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맛은 아주 씹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고과 일본에서는 고야, 서양에서는 쓴 멜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혈당을 낮춰주고 면역기능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는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과 이와 유사한 성분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해열, 구토, 이뇨, 기침, 피부병, 위통, 치통, 통증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주는 생즙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쓴맛이 강하므로 과일이나 우유 요구르트를 함께 넣어 짜서 마셔도 좋고 벌꿀을 넣고 갈아 마셔도 괜찮습니다. 말려서 차로 마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문. 고추잎을 갈아 먹은 흔적은 있는데 벌레가 보이질 않아요. 무슨벌레인가요?

답. 아마도 담배거세미나방인 것 같습니다.

거세미나방은 덜 부숙된 퇴비를 밭에 넣었거나 비옥한 밭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야행성이라 밤에만 활동하고 낮에는 땅 밑에 숨어 있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담배거세미나방은 유충이나 번데기로 땅속, 잡초, 나무껍질 속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최근 채소에 발생하는 담배거세미나방은 살충제에 저항력이 매우 강해져서 한가지 제제로는 방제가 어려우므로 약제성분이 다른 살충제 2~3가지를 구입하여 교대로 바꾸어 가면서 뿌리는 교호살포를 해야 방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담배거세미나방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발생이 심해 시설재배 농가에 아주 치명적인 해충입니다.

문. 5월 중순에 메주콩을 심었는데 밀식해서 심었는지 너무 키가 켜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콩은 작물생리상 전형적인 단일성 식물로서 햇볕이 짧아지는 시기 즉 절기로 하지가 지나야 꽃이 핀다는 뜻입니다. 또 콩뿌리에는 뿌리혹박테리아라는 근류균이 있어 공기중에 질소 성분을 흡수하여 토양에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해서 토양에 질소성분이 많아집니다. 밀식해서 심었다면 포기거리 60~70cm로 솟아서 햇볕 쏘임을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마디에서 손을 질러 주시고 줄기가 2~3cm문하도록 흙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순지르기)

문. 농가재해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든다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들어야 할까요?

답. 농가 재해보험은 반드시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재해대책 지원은 최소한의 구조수준이므로 대형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종가경영안정에 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가입되는 작물이나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서둘러 가까운 지역농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해보험은 품목별, 시군별, 개인별로 보험료가 다른데 보통 정부에서 40~60%, 지자체에서 20~30%, 농가가 10~20%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태풍이나 강풍 집중호우, 화재, 조수해등 보장재해이므로 가입시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상적인 기상재해가 자주 발생되므로 언제 어떤 재해로 농작물에 피해를 줄지 모르니 서둘러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저장했던 마가 썩어 있는데, 그냥 먹어도 되는건가요?

답. 마의 잎은 나물로 먹어도 좋은 식품입니다. 마는 장마와 산마, 둥근마로 분류되며, 생김새나 수분의 함유량의 차이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썩어 나온 마는 하루라도 빨리 삶아서 으깨어 보관하셔야 합니다. 마는 한번에 많은 량을 먹는 것보다 꾸준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는

자양강장제에 특별한 효험이 있고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 당뇨병 기침, 폐질환에도 아주 효과가 큼니다. 특히 신장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강해서 원기가 쇠약한 사람이 장기복용하면 좋습니다.

문. 고추잎이 울긋불긋 갈색반점에 중앙에 하얀 반점에 박힌 네모 왜 그런가요?



답. 세균성 반점병입니다. 원인은 토양환경이 불량해서 양분 흡수가 되지않아 식물체가 쇠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세균성 반점병은 주로 오래된 잎에 발생되며 병징은 회갈색의 원형 또는 부정형의 점무늬가 나타나며 심할 때는 병반의 중심부가 흰색으로 변하며 가장자리는 흑색이나 흑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방제방법은 종자를 소독하거나 항생제 농약을 살포하라고 하지만 효과는 아주 미미한 편입니다. 저의 경우는 식물이 튼튼해지도록 포기에 달린 고추를 따주고 요소 0.5%액이나 제 4종 복합비료를 시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뿌리에 산소공급이 잘 되도록 포장 관리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 맛있는 수박 고르는 요령

답. 모든 사람들이 슈퍼마켓이나 과일가게에서 수박을 구입할 때 사고자 하는 수박이 잘 익었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 두드려 보고 사는 것을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에 의해 덜 익은 수박은 "탕탕" 둔탁한 소리가 나고 잘 익은 수박은 "통통"맑은 소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소리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박을 고를 때 배꼽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꼽이 적은 것일수록 맛이 있습니다. (꼭지의 반대편) 둘째는 표면에 하얀 분이 많은 수박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과일이 당도가 올라갈 때는 표피에 하얀 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포도나 자두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로 줄무늬가 선명하고 짙은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녹색과 검은색이 짙고 일정하게 만들어진 것이 좋은 수박입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모양이 균형이 잡히지 않은 것, 꼭지가 마른 것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GARDEN & MOVIE

이달의 영화 속 정원 테마

Roof Garden

옥상 정원(屋上庭園)

옥상이라하면 흔히 건물위의 콘크리트 바닥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도시녹지공간이 늘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빌딩의 옥상위에 정원이 들어서고 있다. 한여름 열대야의 주범은 도심속에 녹지가 없기때문... 그 주범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늘어가고 있는 옥상정원. 영화 속에서 더없이 로맨틱한 장면으로 태어나는 옥상정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잠깐 고개를 들어보자.

지금 저 옥상정원에서 영화같은 로맨틱함이 있을지 누가 알까.



하이 스쿨 뮤지컬: 졸업반

(High School Musical 3: Senior Year, 2008)

책 에프론 / 바네사 허진스

옥상 정원을 생각하면 내가 본 영화중 다섯손가락 안에 꼽는 영화 중 한 편이다.

이런 하이틴물에서? 이런 디즈니물에서? 라는 편견은 버려 주시길...

물론 웃기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은 하이틴물의 영화이지만 장면은 동화처럼 짝여놓았으니..

Synopsis

남자 주인공 트로이 볼튼(책 에프론 분)과 가브리엘 몬테즈(바네사 허진스)의 고등학교 성장 일기. 가브리엘이 고2전학을 오면서 졸업을 할때까지의 사건들을 드라마와 영화로 찍었다. 학교 옥상정원에서의 댄스장면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멋진 장면이다. 거기에 비까지 내려주는 센스가...



영화 속 댄스 장면 중

보는 내내 빠져들게 만들었던 로맨틱한 장면. 주변난간은 화분과 키 큰나무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중간 중간 키 큰 나무 아래 작은 화분을 놓아서 흡사 피어난 것처럼 보인다.



굉장히 평범한 장소임을 보여주는데 왜 저렇게 멋있어 보일까? 물론 주인공이 멋지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보면 장소도 넓지만 꽃도 참 많다. 칸칸이 수납하는 공간들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물론 겨울이 없는 곳으로 나오는 곳으로 열대 나무가 많이 보이기는 한다.



옥상 마지막 장면에서 비가 내린다는 설정은 아마도 최고였던 기억이 난다.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기억되는...



GARDEN & MOVIE



비스틀리(Beastly 2011)

알렉스 페티퍼 / 바네사 허진스

옥상 정원보다는 옥상 온실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똑똑똑딱 만들어 내는 장면을 캡처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장미 옥상위에 장미정원을 혼자서 만들어 내는 장면은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했다. 어렵고 힘들게만 여기던 것을 혼자서 그것도 고등학생이 만들어 내는 것이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Synopsis

남자 주인공 카일(알렉스 페티퍼 분)과 린디(바네사 허진스)의 성장이야기와 할수도 있고 인격형성이라 할수도 있는... 사랑영화라 할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고전패러디영화.

주인공 배우의 잘생김을 격하시켜 한몫보려 했던 것 아닐까 할 정도.

주인공이 야수인이라 밤장면이 주로 많았고 개인적공간이 많이 나와서 공원과 정원 그리고 호수와 같은 자연친화적인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왔던 영화였다.

그중 압권은 역시나 린디를 위해 만드는 옥상 장미온실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옥상에 자신만을 위해 장미정원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가 문을 열어놓는다면.. 영화 내내 저 장미가 탐났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정원에서 앉아 있어 주는 센스.



영화 곳곳에 나오는 정원, 동물원 등은 주인공 얼굴만이 아닌 볼거리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옥상의 장점을 살려 바깥을 볼 수 있도록 벤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듯하다.

내 최고의 영어선생님이자 문학 예술 감독이었고 하지 못하고 할수 없었던 것에 대한 동경을 풀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창구였던 AFKN은 늘 언제나 영화를 볼 수 있는 채널이었다. 영화를 보다보면 정말 많은 장면들과 노래들이 흐르듯 지나간다. 멋진 장면으로는 고전 사운드 오브 뮤직의 큰 딸과 남자친구의 노래와 댄스가 나올때 잊고 가까운 영화는 트랜스포머에서 부모님이 공들인 정원을 무참히 밟아버리는 로보트들과 안절부절 못하는 아들 그리고 정원을 소중히 가꾸는 부부의 평온한 일상이 깨지는 것이 불만했다.

지나갔다 꽃을 심는 할머니를 손가락질하는 힙합 뮤직비디오도 있었고 정원수를 손질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뮤직비디오도 있었다.

우리는 멀지 않게 가드닝. 정원을 많이 보고 함께 하고 있었고 매체에서는 빠질래야 빠질수 없는 소재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인가 언제부터인지 난 작은 테라스에 2인용 의자형그네를 두고 있는 마당있는 집에 살고 싶은 꿈이 살짝쿵 있다. 아마도 '백 투 더 퓨처'에서 나오는 그 그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음...언젠간 이루어지겠지?

글 이진희

BOOK & FESTIVAL

김 지 태



시골은 그런 것이 아니다

저자 마루야마 겐지 | 출판사 바다출판사

어딜가나 삶은 따라온다

얼마 전 후배 한 명이 남도 지방의 전원주택 택지를 계약했다. 동대문 시장에서부터 호프집,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까지 온갖 장사와 사업을 두루 해 온 친구였다. 새벽부터 밤까지 장사를 하고 짓군은 손님들에게 치이며 돈을 벌어도 막상 수중에는 남는 것 없는 인생, 지방에 내려가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그가 계약한 전원주택 택지는 그동안 버려져 있던 야산을 개간한 것이었다. 공기 좋고 입지는 좋다 해도 수도와 가스, 전기 등 기본 인프라들을 어떻게 구축할 지 계획이 없었다. 게다가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반평생을 산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으며 전원생활을 할 것인가. 나는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라고 했지만 그 동안 도시 생활에 지치고 환멸을 느낀 그의 마음은 이미 아름답고 평화로운 전원마을을 떠돌고 있었다. 나 역시 도시 출신으로 전원생활을 막연하게 동경하는 구석이 있는지라 더 이상 만류하지는 못했는데 이 책을 보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됐다. 시골은 그런 것이 아니다. 꽃꽂한 지사 스타일로 글을 쓰는 마루야마 겐지답게 그는 초지일관 냉엄한 어조로 일관한다. 풍경이 아름답다는 건 그만큼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구급차 기다리다가 숨 끊어진다. 외로움 피하려다가 골병든다. 시골에선 심심하던 차에 당신이 등장한 것이다. 친해지려하지 말고 그냥 맘 편하게 욕 먹여라. 깡촌에서 살인사건 자주 벌어진다. 자기 몸 자기가 지켜야 한다. 급기야는 “호신용 수제창을 만들어서 강도를 만나면 주지 말고 찔러라!”까지 꼼꼼하게 일러주고 있다.

전원생활을 꿈꾸며 귀농, 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고약한 노인네의 악담으로 들일 수 있다. 폐쇄적이고 이중적 기질이 있는 일본과 한국의 현실은 다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차이를 감안하고서라도 우리 현실에서도 새벽별 대목은 꽤 있어 보인다. 마루야마 겐지가 다종다양한 독설을 뱉어내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대목은 바로 ‘홀로서기’이다.

“부모에게 의존하고 학력에 의존하고 직장에 의존하고 사회에 의존하고 국가에 의존하고 가정에 의존하고 술에 의존하고 살아오면서 진정 당신은 인간으로서 격을 조금이라도 높인 삶을 살아왔는가?” 허술한 인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독립된 인간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허울좋은 목적이라도 전원생활은 최악의 충동구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나친 엄격함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도시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되새겨볼만한 말이다. 도시에선 정말 사람답게 살 수가 없을까? 그러려고 노력이나 해 봤던가? 도시엔 인정도 사랑도 없다고 야속해 하지만, 스스로가 남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사랑에 굶주려 있다고 구차하게 징얼대는 건 아닌가? 그런 사람들에게 마루야마 겐지는 가혹하게 묻는다. “당신을 시골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도시만 벗어나면 인간성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처럼 선전하는 귀농, 귀촌 유행에 대해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름다운 자연과 힐링을 생각하는 시골이지만 그 곳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끊임없는 노동의 현장이자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가혹한 삶의 현장이기도 한 것이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도시생활이 패턴화된 사람들에게는 그 솔잎이 무관심하고 비정한 도시의 공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BOOK & FESTIVAL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 Tom's midnight garden

글/그림 필리파 피어스 / 역자 김석희 / 시공주니어 | 1999. 08. 20

누구나 꼭 빠졌던 상상의 세계

필리파 피어스의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는 영국 근대 팬타지 문학의 대표작으로, 1959년에 카네기 상을 수상했다.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는 톰과 해티를 비롯한 등장 인물들의 독특한 성격, 팬타지의 세계와 실제 세계를 슬쩍슬쩍 넘나들면서도 흐트러지지 않게 꼭 짜인 구조, 그리고 섬세하면서도 아름다운 문장 때문에 영국 어린이 문학에서 걸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역자 : 김석희

1952년 제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문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국문과를 중퇴했다. 198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되어 작가로 데뷔했다. 영어·프랑스어·일어를 넘나들면서 시오노나미의『로마인 이야기』, 카사노바의『카사노바 나의 편력』, 홋타 요시예의『고야』, 『몽테뉴』, 앤드루 그레이엄 덕슨의『르네상스 미술 기행』, 이나미 리츠코의『중국의 은자들』, 질 베른의『해저 2만리』, 『신비의 섬』, 존 러스킨의『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존 파울즈의『프랑스 중위의 여자』등 2백여 권을 번역하고, 역자후기 모음집 『북마니아를 위한 에필로그 60』, 『번역가의 서재』, 귀향일이 이야기를 엮은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을 냈으며, 제1회 한국번역상 대상을 수상했다.

그림 : 수잔 아인리치

독일의 베를린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1939년 영국 런던으로 이주하여 센트럴 어브 아트 & 크래프트에서 공부했다. 아인리치는 에 그림을 그린 후에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굳혔다.

저자 : 필리파 피어스

영국 근대 판타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며, 몇 안 되는 문장가로 손꼽힌다. 그녀의 작품은 대체로 문장가라는 명성에 걸맞는 묘사력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큼 개성 있는 인물 창조, 완벽하고 균형 있게 짜맞춘 구조 등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어 '걸작'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피어스의 대표작으로는 현실 세계를 밀도 있게 그려 '리얼리즘'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주 작은 개 치키티토'와 피라미호의 모험, 실제 세계와 상상의 세계를 살짝살짝 넘나드는 멋진 작품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 등이 있다. 피어스는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로 1959년에 카네기 상을 받았다.

책에는 250여 점의 그림들이 담겨져 있다. 꽃들과 눈맞춤하며 그날의 비추인 그 모습을 정직하게 그려냈다. 봄이 되면 겨우내 꽁꽁 얼어 있던 땅을 뚫어 나오는 작은 새싹들, 여름철 폭염과 폭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어나는 꽃들, 색색으로 물들어 꽃들과는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가을의 나무들, 영하의 날씨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겨울의 강인한 꽃들을 통해 정원일의 진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BOOK & FESTIVAL



파라다이스가든 Paradise Garden

글 권기태 / 민음사 | 2006. 08. 06

대기업 오너십 찬탈에 휘말린 평범한 회사를 둘러싼 숨가쁜 유혈극

2006년 제30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우수문학도서 선정 2006년은 40돌을 맞은 민음사에겐 뜻 깊은 한 해다. 바로 <오늘의 작가상>을 다시 한번 빛내줄 두 작품을 제30회 <오늘의 작가상> 공동 수상작으로 선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로가 각기 다른 낙원을 소유한 인간 군상의 총화(叢話)인 『파라다이스 가든』에서 등장인물들은 저마다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며 자신들의 이상향을 추구한다. 그들의 이상향의 충돌이 빚어내는 관념의 힘과 묵직한 사회의식은 긴박감 넘치는 이야기의 빠른 전개에 힘입어 한층 빛을 발하며 독자들의 눈길을 강하게 사로잡을 것이다. 여기 또 하나의 야심작, 제30회 <오늘의 작가상> 그 두 번째 작품 『파라다이스 가든』을 내놓는다.



소박한 밥상 Simple food for the good life

글 헬렌 니어링 / 디자인하우스 | 2001. 09. 05

탐식으로 얼룩진 우리의 육체와 정신에 한 줄기 자성의 바람을 일으키는 요리 철학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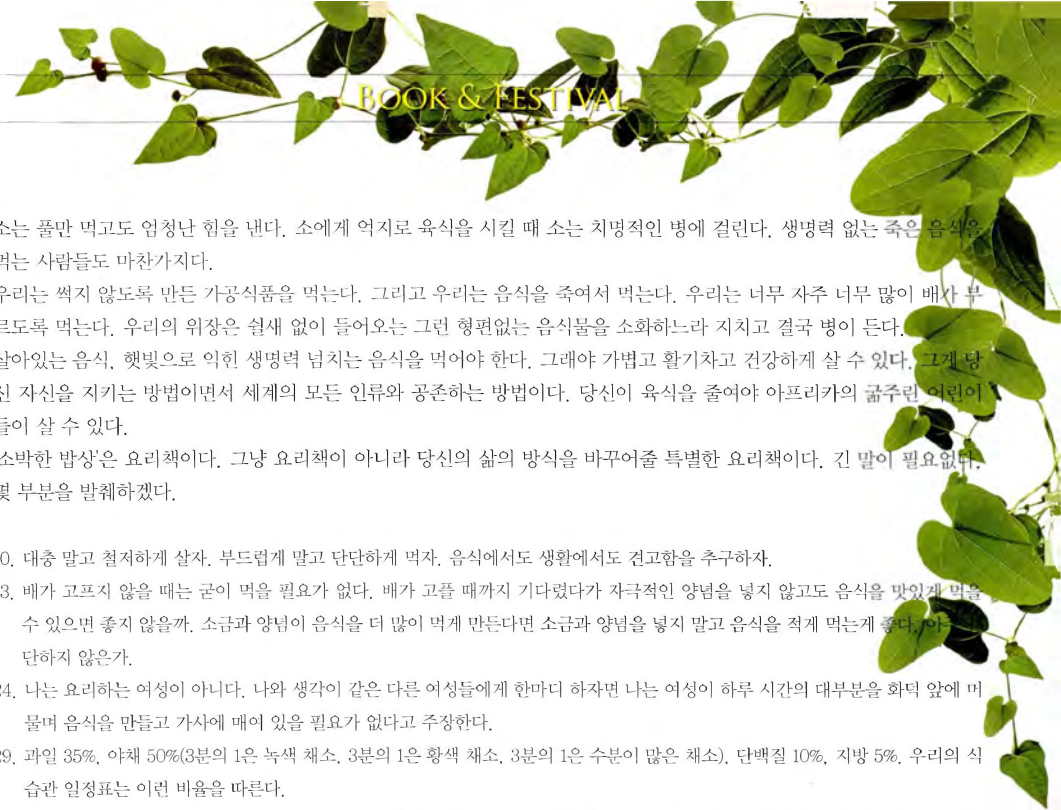
Review By 이정환 on February 11, 2004

누구 못지 않게 먹는 욕심이 많고, 또 먹는데 돈 쓰는 걸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나는 맛의 취향도 분명하다. 맛있는 음식은 몸이 먼저 안다. 헬렌 니어링과 스코트 니어링을 존경하는 나는 이 책, 『소박한 밥상』을 읽고 그들의 건강한 삶의 비결이 건강한 먹을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우리는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얻으려고 먹는다. 아무 걸로나 다만 배를 채우려고 먹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를테면 당근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익혀서 먹는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껍질을 막 깎아낸 당근을 아삭아삭 베어먹는 것보다 당근을 더 맛있게 먹는 요리법은 없다. 익힌 당근

은 맛있지도 않고 영양가도 더 없다. 맛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조미료를 써서 맛을 억지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우리는 습관처럼 동물의 썩어가는 시체를 먹는다. 피와 기름이 섞인 고기를 더부룩하게 먹고 우리는 몸이 건강해진다고 느낀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생명력을 얻는 건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을 때가 아니라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한입 가득 베어물 때다.



BOOK & FESTIVAL

소는 풀만 먹고도 엄청난 힘을 낸다. 소에게 억지로 육식을 시킬 때 소는 치명적인 병에 걸린다. 생명력 없는 죽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썩지 않도록 만든 가공식품을 먹는다. 그리고 우리는 음식을 죽여서 먹는다.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배가 부르도록 먹는다. 우리의 위장은 쉴새 없이 들어오는 그런 형편없는 음식물을 소화하느라 지치고 결국 병이 든다. 살아있는 음식, 햇빛으로 익힌 생명력 넘치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 가볍고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게 당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며 세상의 모든 인류와 공존하는 방법이다. 당신이 음식을 줄여야 아프리카의 굶주린 어린이들이 살 수 있다.

『소박한 밥상』은 요리책이다. 그냥 요리책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줄 특별한 요리책이다. 긴 말이 필요없다. 몇 부분을 발췌하겠다.

10. 대중 말고 철저하게 살자. 부드럽게 말고 단단하게 먹자. 음식에서도 생활에서도 견고함을 추구하자.

13.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극적인 양념을 넣지 않고도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소금과 양념이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만든다면 소금과 양념을 넣지 말고 음식을 적게 먹는게 좋다. 아, 단단하지 않은가.

24. 나는 요리하는 여성이 아니다. 나와 생각이 같은 다른 여성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나는 여성이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화덕 앞에 머물며 음식을 만들고 가사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29. 과일 35%, 야채 50%(3분의 1은 녹색 채소, 3분의 1은 황색 채소, 3분의 1은 수분이 많은 채소), 단백질 10%, 지방 5%. 우리의 식습관 일정표는 이런 비율을 따른다.

33. 나는 여성이 지킬 자리가 반드시 부엌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요리를 좋아한다면 요리의 즐거움을 만끽하라. 하지만 나는 요리를 좋아하는 부류가 아니다. 나는 요리에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밖으로 나가든지 음악이나 책에 몰두하고 싶다.

36. 과일이나 견과야말로 가장 먹기 쉽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자연적인 음식이다. 또한 그것은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아 활기에 넘치고 생명과 영양으로 충만한 음식이며 식물이 주는 생명력과 인체의 생활력 사이에 틈이 거의 없는 음식이기도 하다.

36. 가능한 한 살아 성장하는 상태에서 수확해 즉시 먹어야 한다. 자연은 우리를 위해 이런 먹을거리를 준비해주었다. 살아있는 음식 즉 햇빛으로 익힌 음식이다.

37. 조리하는 것은 심지어 보수적인 조리법까지도 음식의 생명력을 일부 파괴시킨다. 조리한 콩에서는 새싹이 트지 않는다. 익히거나 통조림하거나 냉동한 음식은 방부제를 넣은 죽은 음식이다. 조리하는 것은 파괴하는 것이고 재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조직으로 구성된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식물 속의 살아있는 조직과 인체의 조직 세포가 서로 에너지를 교환할 때 건강을 주는 힘이 생긴다.

40. 문명화된 인간이나 인간이 키우는 가축은 질병을 앓지만 야생동물들은 질병을 앓지 않는다. 야생동물들은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날것을 그대로 먹는다.



다음호에 계속
참고 : 맛집 기행, 토수, (이정환닷컴)

BOOK & FESTIVAL



헬렌 니어링 & 스코트 니어링

헬렌 니어링은 1904년, 뉴저지 릿지우드의 중산층 지식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예술과 자연을 사랑하고 채식에 실천하는 부모 슬하에서, 그녀 역시 자연의 혜택을 흠뻑 받으며 자연스럽게 채식주의로 성장했다. 바이올린을 전공한 그녀는 젊었을 적부터 유럽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하였고, 한 때는 철학자 크리슈나무르티와 교류하기도 하였다. 1928년, 헬렌은 장차 남편이 될 스코트 니어링(Scott Nearing)을 만난다. 스코트 니어링은 왕성한 저술과 강연으로 존경받는 교수 출신이었으나,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반전 운동을 벌인 명목으로 당시 주류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있었다.

1932년, 마음을 합한 그들은 도시를 떠나 버몬트의 한 낡은 농가로 이주한다. 바로 그 곳에서 자연과 하나되는 그들의 '조화로운 삶'은 시작되었다. 그들은 필요한 먹을거리는 스스로 경작하고, 최소한의 것만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했으며, 반세기가 넘도록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삶을 누렸다. 삶의 매 순간을 명료한 의식과 치열한 각성 속에서 살아갔던 그 두 사람은 이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스코트 니어링은 100세 되던 해에, 음식을 서서히 끊음으로써 자신을 붙들고 있던 욕망과 작별을 고했다.

“나 또한 삶에 큰 고마움을 느끼며 또 죽음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 큰 고마움을 느낀다. 우리는 누워서 병을 앓으며 무력한 삶을 계속 살아갈 필요가 없다. 요양원에서 이루어지는 긴 사멸의 공포를 느낄 필요도 없다. 우리가 집에 있고 우리 희망을 알릴 수 있으면, 우리는 먹는 것을 멈출 수 있다. 그것은 간단한 일이다. 병구완을 앓고 먹는 것을 멈추면, 죽음은 우리 앞에서 두 손을 활짝 벌리는 것이다. 스코트의 죽음은 내게 훌륭한 길, 훌륭한 죽음을 보여 주었다. 고통과 억압이 없는 죽음, 여전히 생명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없다.” (헬렌 니어링,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보리, 1997, p.233) 헬렌 니어링 또한 남편과 마찬가지로 생을 마감하고자 하였으나, 불행히도 그 바람은 실현되지 못했다. 1995년 9월 17일, 차 사고로 인해 그녀는 갑작스럽게 92세의 일기를 마쳤다.

- [에스24 제공]

도서 소개된 글은 인터넷 교보문고와 Yes 24에서 발행된 서평 및 리뷰입니다.

BOOK & FESTIVAL

어디로 떠나볼까?

그저 목적없이 떠나는 여행은 이제 그만~~

본격적인 바캉스 철을 맞아 구석구석 다양한 축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축제들을 정리 쉽고 빠르게 알아볼수있도록 해 놓았다.

올 여름은 어디로 떠나볼까?

태백 해바라기축제

자연과 예술의 만남

전국 최대의 해바라기 꽃밭과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야생화와 함께하는 해바라기

기간 2014.07.25(금)~2014.08.16(토)
장소 강원 태백시 구와우마을
주최 해바라기문화재단
문의 033)553-9707
www.sunflowerfestival.co.kr



부여서동연꽃축제

연꽃들이 펼쳐는 아름다운 향연

백제 서동과 신라 선화공주와의 국경을 초월한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깃든 곳! 연인들과 함께 오시면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

기간 2014.07.17(목)~2014.07.20(일)
장소 서동공원(궁남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궁남로52
주최 부여군
문의 041-830-2921~2922



한림공원 수국꽃축제 2014

여름의 문턱

한림공원 수국동산에 수국 꽃들이 시원시원하게 만발했다.

기간 2014.06.14 ~ 2014.07.06
장소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300
한림공원 수국동산
주최 한림공원
문의 064)796-0001~4
www.hallimpark.co.kr



함께여서 가까워서 좋다.

경기도권 수목원

가족과 함께 떠날수 있는 여름.

가까운 근교 수목원으로 나가보자.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맑은 공기 그리고 시원한 바람을 한껏 느껴보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수목원

안양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은 우리나라 자생 식물 및 북반구 식물을 수집, 증식, 보존, 전시, 연구하며 관련 지식 및 정보의 축적과 교육, 그리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추구한다.

관람시간 : 13:30, 14:00, 14:30, 15:00

주의사항 : 자유 견학 불가, 인솔교사 및 숲해설가 동행하에 관람 가능문의/ 안내관악수목원(주말방문 4~11월, 2째주 토요일)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280 (안양동)

문 의 : 031-473-0071

홈페이지 : <http://arbor.snu.ac.kr>



장흥자생수목원

장흥자생수목원은 개명산 형제봉 능선 자연림을 배경으로 한 자연생태수목원으로 조성, 기존 산림의 모양과 식생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자연생태를 보존한 진정한 생태학습장이며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산림욕장이기도 하다. 백년이 넘는 잣나무 숲을 배경으로 다양한 오솔길과 원시림, 숲속 쉼터, 계절테마원, 자연생태관찰원, 고산식물원, 나비원, 고사리원, 원추리원, 분재원 등의 다양한 테마에 따라 2천여종의 우리나라 야생화를 관찰할 수 있다.

관람시간 : 하절기(4~10월) 09:00~19:00 / 동절기(11~3월) 09:00~18:00

주의사항 : 입장은 폐장 1시간 전까지(매포 18:00까지)

주 소 : 경기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161번지

문 의 : 031-826-0933

홈페이지 : <http://www.장흥자생수목원.kr>



아침고요수목원

축령산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하여 한국의 미를 듬뿍 담은 정원들을 원예학적으로 조화시켜 설계한 원예수목원이다. 여러가지 특색있는 정원을 갖추고 있고, 울창한 잣나무숲 아래에서 삼림욕을 즐길 수도 있어 도시민들에게 심터를 제공한다. 20개의 주제를 가진 정원은 아름답게 가꾸어진 잔디밭과 화단, 자연스러운 산책로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을 실제 한반도지형 모양으로 조성하여 최고 절정의 꽃으로 표현한 하경정원(Sunken Garden)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곳이다. 또한 이곳에는 백두산 식물 300여종을 포함한 5,000여종의 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영화 "편지"의 촬영장소로 알려져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다.



관람시간 : 08:30~일몰시(20:00) / 오색별빛정원전 09:00~21:00

입장은 폐장 1시간 전까지 가능쉬는날연중무휴

주 소 : 경기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32

문 의 : 1544-6703

홈페이지 : <http://www.morningcalm.co.kr>



벽초지문화수목원

푸를 籍, 풀 草, 못 池 - 꽃 나무 땅 그리고 물과 함께 어울어진 터
벽초지 문화수목원은 1965년부터 부지확보를 시작하여 각종 희귀, 멸종위기식물, 자생식물, 100여종이 넘는 수생식물 및 외래종을 지형에 맞게 식재하여 현 수목원의 근간을 이루었다. 벽초지 문화수목원은 지속적인 자연 보존 및 연구, 개선활동으로 또 적극적인 문화적 활동으로, 도심에서 찾기 힘든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한다. 친환경적인 식물수목원을 조성, 우리나라 자생식물뿐만이 아닌 전 세계 희귀종의 식물들과 함께 어우러진 자연생태계에 가까운 회복을 위해 수목원 전 식물들을 한 점의 그림과 같이 식재하였다.

관람시간 : 3 ~ 11월 - 09:00 ~ 18:00 / 12~2월 - 10:00 ~ 21:00

일몰시간 및 수목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쉬는날연중무휴

주 소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166-1

문 의 : 031-957-2004

홈페이지 : <http://www.bcj.co.kr>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오산시에 있는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은 10만 평 규모의 예쁜 이름만큼이나 볼거리가 많다. 16개 테마원과 각종 부대시설, 1601종의 식물이 있다.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편한 마음으로 산책하기 좋은 물향기 수목원은 천천히 둘러보면 두 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로 규모가 작지 않으며 아기자기하고 주제별로 테마원이 있어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수목원이 있는 수청동은 말 그대로 맑은 물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이름도 '물향기'수목원이다. 습지엔 올챙이들이 헤엄치고 있고 나무 위엔 청설모가 뛰어다닌다.

관람시간 : 하절기 9~18시, 동절기 9~17시

주 소 : 경기 오산시 청학로 211

문 의 : 031-378-1261

홈페이지 : <http://mulhyanggi.gg.go.kr>



경기도권 수목원 1편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전기로 걱정없이 수도물로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을!!

Cooling Mist

Must have ITEM "쿨링 미스트"

수돗물을 이용한 무전력 냉방 시스템!

수돗만 있으면 어디든지 이동 설치가 가능!

옥상정원, 베란다, 발코니, 회랑, 서양 쪽 창가, 야외체육시설, 공장 야외작업장, 팬션, 식당, 카페, 파라솔, 학교, 유치원, 놀이시설 등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로 관수하는 점적관수키트



정원 관수를 위한 Sprinkler 스프링클러

June Recommended Products

가정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친환경 배지

코코칩

그린커튼용 (Green Curtain)

가든네트

애충집는 포충기

트랩피아3



가드닝/원예자재 전문 미림가든센터

경기도 과천시 물사방로 257 (주암동)

구 주소: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47-8

Tel. (02)585-5346, 503-7080

Fax. (02)588-9593



월간 <가든인> 구독이벤트

-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40%할인권을 제공
- 꽃씨증정

문의전화

Tel. 031-645-2000, 010-6730-175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termeden.com



40% 할인권
기간 2014. 5. 1 ~ 2014. 5. 31

Gardenin

정성껏 만든 미림 및 가든인 제품과 원예자재로?
가사에 대한 열정과 정성으로 만든 가사 등 다양한 제품과 가사 등
정성껏 만든 미림 및 가든인 제품과 원예자재로?
가사에 대한 열정과 정성으로 만든 가사 등 다양한 제품과 가사 등

■ 이 달에 가장 유익했던 가사는 무엇입니까?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가사는 무엇입니까?

<가든인>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Gardenin

정상이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가든인 정기구독 1년 12권

정기구독

16.6% OFF

정상이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무통장입금
예금주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농협 317-0005-7946-71
(입금 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문의 : 031-712-7009

신청하시는분

이름	성별
이메일	직업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주소	

* 신청한 우편물을 위해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구독기간	
대금납입방법	무통장입금 (농협) 317-0005-7946-71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031-712-7009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40% 할인권

[기간] 2014. 5. 1 ~ 2014. 5. 30

이용안내

- 스파 이용에 한해서만 할인 적용됩니다.(사우나 이용 제외)
-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매 2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이용권을 매표소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 본 이용권은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 본 이용권은 비매물로 판매 및 영인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AK레저(주)

Tel. 031-645-2000 www.termeden.com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월간 가든인

Tel. 031-712-7009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Gardenin**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가든인 Tel.031-712-7009

4 6 7 - 8 7 2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Gardenin**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가든인 Tel.031-712-7009

4 6 7 - 8 7 2

편집후기

많은 변화를 주었다.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고 많은 글들을 부탁했으며
어중잡은 솔씨로 글도 썼다.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린다.

7월이다.

장마가 올 것이고 태풍이 불 것이며
휴가가 올 것이고
프리절에서는 월드컵이 한창이다

그리고 가든인 7월호가 나온다.

발행

발행인 김명재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박공영 우리씨드(Urseed)그룹 대표 / 이화여자대학교

고문 이순영 前 함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이명

전문위원 김광두 前 상명대학교 산업대학 겸임교수

김광춘 대림원예중요(주) 대표

김귀순 (주) 그린페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완식 농학 박사 / 씨드림대표

우정아 경기조경가드대학 강사/가든디자이너

유봉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소

윤정식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겸임

윤광성 삼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前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중석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건 농학박사

책임기자 김지태 jsommer@gmail.net

황주리 junie777@hatmail.net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전화 031-712-7009, 010-6730-1756

팩스 031-634-7991

Gardenin

가든플래너 박공영의

정원 연출 기법과 식물 선택 노하우의 모든 것

우리꽃이 제안하는 조경용 식물 가이드북

한국의 대표적인 정원 테마가 시작됩니다.

계절별 변화하는 살아있는 자연이 다가옵니다.

유리식 정원, 이제 한국의 집과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발간 10개월 만에 완판, 초판 발행 5쇄의 베스트셀러
- 교과서적 식물도감과는 다른 현장 경험을 통한 살아있는 정보와
올 컬러 사진 제공
- 혼성 혼합식재, ARI Garden, E&P(생태연못), 벽면녹화,
조경용 지피식물의 적용과 관리(A-Z)
- 현장 적용된 정원 연출 사례 제시 및 각 적용 식물의 특성 비교
- 봄부터 겨울까지 연중 꽃이 피는 혼성 혼합 식재의 비법 공개
-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는 연중 테마 정원 ARI Garden
- 1000여종 식물의 습성과 특성, 식재법을 올 컬러로 제공



가든인 독자 특별 할인가
20,000원 (정가 32,000원)



조선왕조 500년 온천의 명소 이천! 품격이 다른 온천수 - 테르메덴



중부·수도권 제일의 온천으로 테르메덴 선정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여행작가협회 그리고 관광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이천 '테르메덴'을 중부·수도권의 최고의 온천으로 선정하였다. 테르메덴 온천수는 자갈성이 강한 유황천이나 산성천 등과는 달리, 알카리성 온천으로 여러 가지 효능의 성분이 골고루 혼합된 온천수이다. 수질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합하고 특히 병후 회복과 건강 증진,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을 완화하고 피부를 아름답고 부드럽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삶의 무게를 느낀다면 **단언컨데** 온천욕은 **가장 완벽한 힐링**입니다.



셔틀버스 운영시간

이천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제일은행)앞에서
테르메덴 무료 셔틀버스 이용(약 15분 소요) ⇒ 이천 테르메덴 도착

구분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 테르메덴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 출발)	테르메덴 ⇒ 이천터미널 (테르메덴 본관 앞 출발)
매일 (월~일)	08:20 09:20 10:20 11:20 13:00 14:20 15:20	12:40 14:00 15:00 17:30 18:30 19:30

※ 만차 및 도로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이케이레저(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문의 : 031)645-2000